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地理學論叢

別號23

1997. 2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 -

박 원 석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Journal of Geography

(Jirihak Nonchong)

Monography Series 23

Feb. 1997

Regional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 An Examination of the Existence of Regional Financial Markets

Park, Won-Seok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地理學論叢 別號는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에서 나오는 博士學位論文과 其他 學科研究物을 펴내는 單行本 시리즈이다. 단, 學位論문을 제외한 其他 研究物은 編輯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실린다.

編輯委員

(編輯委員은 서울大學校 地理學科 教授로 構成되었음)

金 仁
柳 佑 益
朴 杉 沃
朴 英 漢
許 宇 亘(委員長)
柳 根 培(幹事)
朴 基 豪
李 廷 滿

◇ 題揮
滄海 金昌煥 先生

Editorial Board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are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n Kim

Woo-ik Yu

Sam Ock Park

Young-Han Park

Wookung Huh (Chairman)

Keun Bae Yu (Secretary)

Key Ho Park

Jeongman Lee

국 문 초 록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원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 그 발생요인 및 경로를 분석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관련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먼저, 연구목적과의 관련성 하에서, ①포괄적으로, 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개념과 ②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되는 내생적인 금융시장 균형결정 메카니즘이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형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①완전통합형, ②이자율 스프레드형, ③신용할당형, ④이자율 스프레드-신용할당 동시발생형으로 유형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신용할당, ③자금집중도를 채택하였고,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신용할당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통계자료분석 및 설문자료에 대한 t통계량 검정 등의 정량적인 방법과, 인터뷰자료 분석 등의 정성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로는 통계자료, 금융기관 내부 집계자료, 기업설문자료, 기업·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 등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대출금 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서울은 금융중심지의 위치를, 나머지 지역은 주변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의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 '이자율 스프레드'기준에서는 지역간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자금집중도'기준에서는 생산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용할당'기준에서는 금융중심지인 서울의 차입자보다 주변부인 나머지 지역의 차입자가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주변부인 나머지 지역 간에, '자금집중도' 및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여, 서울과 대구권이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 설정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결과를 보면, '이자율 스프레드'기준에서는 지역간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신용할당'기준에서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서울 중소기업보다 대구권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용할당 경로지표의 검토결과, ①금융시장 접점에서의 여신한도의 차이, ②산업구조·지역연계의 차이, ③정보의 비대칭성 등 3가지 지역요인이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구권지역』의 『중소기업부문』에서,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의 형태로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①전국형 금융기관이 발달로, 자금흐름이 단절될 정도의 완전고립된 지역금융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②지역간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증을 한 지표 중에서,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많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정도는 부분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지역금융시장, 이자율 스프레드, 신용할당, 대출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산업구조, 지역연계.

감사의 글

부족한 저에게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논문심사를 맡아주시고, 논문이 논문다울 수 있도록 논문의 틀에서부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지리학과 류우익 선생님, 이정만 선생님, 경제학부 류근관 선생님, 국토개발연구원 주성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도교수님이신 박삼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은 늘 저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고 바른 학자가 되도록 격려해주신 지리학과의 박영한 선생님, 김 인 선생님, 허우금 선생님, 박기호 선생님, 그리고 학과 기독인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신 유근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귀찮은 설문과 인터뷰에 응답해 주신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 분들, 그리고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도움을 받았던 금융기관과 기업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사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님,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운영, 그리고 박진보, 한수, 현, 정식, 창규, 영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삼성경제연구소 남양호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서도 성원을 보내 주신 통신개발연구원 황주성 박사께도 감사드리며, 귀찮은 대표 작업을 적극 도와준 이정협 군, 그리고 원고내용을 검토해준 문미성 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함께 기도해준 지리학과 기독교인 모임 식구들, 여러 모양으로 도와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선후배 및 경제지리연구회 동학들, 삼성경제연구소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학원 석사과정 이후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준 순철, 동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저와 같은 시기에 학과 조교직을 맡는 동안 늘 순수함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유환종 형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외할머니, 이모님, 그리고 누님, 동생들 내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정작업 등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많은 수고를 감당해준 아내 미정과, 매일 밤 아빠 논문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준 아들 해성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기꺼이 맡아주신 아버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땅의 사는 날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자료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9
제 3 절 연구의 흐름	10
제 2 장 관련 문헌검토 및 연구의 틀	12
제 1 절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12
1. 연구동향의 개관	12
2.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15
3. 지역금융시장의 모델에 대한 연구	23
4.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동향	32
제 2 절 금융시장 관련연구 동향	38
1. 지리학에서 금융에 관한 연구	38
2.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시장 관련 연구동향	40
제 3 절 연구의 이론적 틀	41
1.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과 지역금융시장	41
2.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	44
3. 지역금융시장모델의 유형화	47
4.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	56
제 4 절 연구주제 및 분석의 지표	58
1. 연구주제의 구체화	58
2. 분석의 지표	62

제 3 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67

제 1 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67

- 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추이 67
- 2.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의 특징 69

제 2 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 73

- 1. 금융기관별 대출금 추이 73
- 2. 금융기관별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75
- 3. 대출주체별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83

제 3 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88

- 1. 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별성 검증 88
- 2.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 검증 90
- 3.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 검증 92
- 4. 소결 -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101

제 4 장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103

제 1 절 자료의 개요 103

- 1. 설문자료의 개요 104
- 2. 인터뷰자료의 개요 109

제 2 절 기업 금융활동의 특성에 대한 지역별 비교 111

- 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112
- 2.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 121
- 3. 자금조달 우선순위 128
- 4.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130
- 5. 구매연계 및 판매연계를 통한 지역간 자금·신용의 흐름 132

제 3 절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136

- 1.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 검증 136
- 2.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 검증 143
- 3. 소결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와 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169

제 5 장 종합적 검토 및 결론	175
제 1 절 종합적 검토	175
1.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와 그 특성	175
2.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논의의 확대	177
3. 지역금융시장으로서의 대구권의 특성	181
제 2 절 지방의 금융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	188
1.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188
2. 지역균형개발정책에의 시사점	189
3. 금융시장개방에의 시사점	191
제 3 절 맺음말	192
1. 요약 및 결론	19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95
 참고문헌	 197
 부 록	 207
1. 부록 1 - 설문지	207
2. 부록 2 - 설문조사 상세결과표	214
 ABSTRACT	 229

[표 목 차]

[표 1-1] 금융기관전체 예금 및 대출금의 지역별 현황	4
[표 1-2] 지역별 어음부도율의 추이(금액기준)	5
[표 2-1]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16
[표 2-2]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사례연구	34
[표 2-3]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	56
[표 2-4] 이자율 스프레드의 검증지표	63
[표 2-5] 신용할당의 검증지표	65
[표 2-6] 자금집중도의 검증지표	66
[표 2-7] 지역금융시장의 특성에 대한 지표	66
[표 3-1] 지역별 GRDP 비중 (1990년 불변가격 기준)	76
[표 3-2]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시중은행)	85
[표 3-3]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지방은행)	86
[표 3-4]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보험회사)	87
[표 3-5] GRDP대비 대출자금집중도에 대한 지역별 입지계수	89
[표 3-6] 지역별 금융기관별 이자율	91
[표 3-7]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지방은행, 1994년)	94
[표 3-8]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1995년)	94
[표 3-9]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가계, 1995년)	95
[표 3-10] 지역별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지방은행)	96
[표 3-11]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97
[표 3-12] 지역별 대출금의 비율과 실질금리와의 상관계수	99
[표 4-1]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응답기업 현황	106
[표 4-2] 법인형태별 응답기업 현황	107
[표 4-3] 종업원수별 응답기업 현황	108
[표 4-4] 대표자 출신지별 응답기업 현황	108
[표 4-5] 인터뷰조사 기업의 개요	109
[표 4-6] 인터뷰조사 금융기관의 개요	110
[표 4-7] 금액비율과 이자율의 구간 및 구간값	112
[표 4-8]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113
[표 4-9] 차입금 유형별 조달액 비율의 평균 (1995년말 기준)	114

[표 4-10]	자금조달 유형별 조달액 비율의 평균 (1995년 1년 기준)	115
[표 4-11]	정책자금대출 조달금융기관 비율의 평균	116
[표 4-12]	제2금융권 일반대출 조달금융기관 비율의 평균	118
[표 4-13]	사채의 조달방법별 비율	119
[표 4-14]	기업의 자금조달구조에 관한 기존의 조사결과	120
[표 4-15]	은행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122
[표 4-16]	지방은행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122
[표 4-17]	제2금융권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123
[표 4-18]	사채조달방법별 자금조달지역 (중소기업)	124
[표 4-19]	시중은행 서울소재지점의 자금유출입지역의 비율	126
[표 4-20]	자금조달 우선순위	128
[표 4-21]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척도의 평균	130
[표 4-22]	금융기관의 금리산정 기준	138
[표 4-23]	차입금 유형별 이자율의 평균 (1995년말 기준)	139
[표 4-24]	자금조달 유형별 이자율의 평균 (1995년 1년 기준)	140
[표 4-25]	은행대출신청에 대한 실제조달비율	145
[표 4-26]	은행자금조달 받지못한 이유 (대기업)	146
[표 4-27]	은행자금조달 받지못한 이유 (중소기업)	147
[표 4-28]	은행대출조건별 비율의 평균	149
[표 4-29]	지방에서 기업운영시 애로사항	151
[표 4-30]	사례기업의 거래금융기관 현황	153
[표 4-31]	기업내 자금조달 조직	154
[표 4-32]	주거래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정	156
[표 4-33]	금융기관의 주요 여신심사·신용평가 기준	161
[표 4-34]	기업의 신용평가 현황	162
[표 5-1]	업종별 원료구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182
[표 5-2]	업종별 제품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182
[표 5-3]	은행자금조달 받지못한 경우 대응방식 (대기업)	186
[표 5-4]	은행자금조달 받지못한 경우 대응방식 (중소기업)	186
[표 5-5]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95년 11월말 기준)	191

[그림 목 차]

[그림 1-1] 금융시장에서 대출시장의 위치	8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1
[그림 2-1] 금융상품과 금융시장과의 관계	19
[그림 2-2] 금융자산에 대한 지역공급곡선 및 수요곡선	24
[그림 2-3] 유형 1 : 지역금융시장과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26
[그림 2-4] 유형 2 : 지역신용수요가 지역신용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26
[그림 2-5] 유형 3 : 지역금융시장의 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보다 낮은 경우	27
[그림 2-6] 유동성선호의 변화와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28
[그림 2-7] 지점은행체제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29
[그림 2-8] 지역자금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	30
[그림 2-9] 안정적인 경제여건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31
[그림 2-10] 불안정한 경제여건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32
[그림 2-11] 완전통합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50
[그림 2-12] 이자율 스프레드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51
[그림 2-13]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54
[그림 3-1] 금융시장의 초과수요율 (제조업 전체)	71
[그림 3-2] 금융기관별 대출금 추이	74
[그림 3-3] 예금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75
[그림 3-4] 시중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78
[그림 3-5] 지방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78
[그림 3-6] 특수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79
[그림 3-7] 외국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79
[그림 3-8]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81
[그림 3-9]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82
[그림 4-1] 대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105
[그림 4-2] 금융활동권에 대한 도식적 모형 (금융중심지와 지방금융권 비교) ...	127
[그림 4-3] 원료 구매지역 비율의 평균(%) [대기업]	134
[그림 4-4] 원료 구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134
[그림 4-5] 제품 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대기업]	135
[그림 4-6] 제품 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135

[그림 4-7] 지역별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	157
[그림 4-8] 여신심사과정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	165
[그림 5-1] 우리나라에서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17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금까지의 경제지리·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로 지역의 생산, 고용, 소득, 투자부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Moore, Karaska and Hill, 1985, p.29, Roberts and Fishkind, 1979, p.16),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연구주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 자본의 이동은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간 이자율의 차이가 존재하거나 한 지역내에서 자금 수요와 자금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裁定去來(arbitrage)를 통하여 균형이자율과 균형자금 수준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은 국가차원에서 완전통합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Bolton(1985)은 일반적인 지역계량경제모델을 구축하면서 一國모델(national model)에 포함시킨 금융시장부문을 지역모델(regional model)에서는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지역모델에서 화폐시장 또는 금융시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본의 공급은 한 국가범위에서 결정된 이자율 수준에서 무한탄력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지역금융시장 간에 이자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모델에 금융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Bolton, 1985, p.50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다른 생산요소보다는 자유롭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 제도적인 장애, 거래비용 등이 있는데, 금융시장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은 지역간 재정거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자율과 자금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거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간에 이자율의 차이나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즉,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경제모형에 금융시장부문을 도입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¹⁾되었고, 금융시장의 지역간 차별성을 밝히는 경험적 사례연구²⁾들이 진행되어 왔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을 다루는 연구의 흐름은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되는 지역금융시장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요인들이 금융시장에서 지역간 재정거래를 보다 근본적으로 저해할 경우, 국가범위의 금융시장(national financial market)에 접근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금융시장 즉,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지역금융시장(regional financial market)이란 한 국가내의 지역단위에서 이자율과 수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메카니즘을 가지는 금융시장으로 정의³⁾할 수 있는데, 이에 미국,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달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치금융적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Park Y.

1) 대표적인 연구로, Moore and Hill(1982), Dow(1987), Harrigan and McGregor(1987) 등이 있다.

2) 대표적인 연구로, Fishkind(1977), Roberts and Fishkind(1979), Bias(1992), Amos and Wingender(1993), Porteous(1995) 등이 있다.

3)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는 2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C., 1993, p.125)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이자율 수준, 대출자금 한도 등을 국가에서 직접관리하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금융시장의 통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미국⁴⁾, 캐나다 등의 경우보다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도성장 및 저금리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이면 계약(양건성예금 부과), 대출한도계약 등의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왔다. 즉,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표면적인 금융시장 균형점으로부터 자율적인 금융시장 균형점으로 회귀하려는 작용으로, 이러한 이면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면거래 과정에서 거래조건이 지역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이자율의 차이나 자금의 초과수요의 차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금융시장(national financial market)에서 완전분리된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에서 어느 정도 이탈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먼저, 그 단서를 서울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전체의 예금 및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⁵⁾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은 전국대비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대비 서울의 GRDP(지역내 총생산) 비율이 25%내외인 점을 볼 때, 서울지역에는 생산력에 비하여 자금이 2배나 집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미국의 경우, 州정부의 절반은 지점은행체제(branch banking system)를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지점은행제도를 제한하거나 단일은행체제(unit 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Amos and Wingender, 1993, p.101).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보다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대출금의 지역별 현황은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다.

[표 1-1] 금융기관전체 예금 및 대출금의 지역별 현황 [단위:10억원(%)]

	예 금 (예수금)			대 출 금		
	서 울	지 방	전 국	서 울	지 방	전 국
1986년	50,502 (53.7)	43,488 (46.3)	93,990 (100)	54,322 (61.0)	34,686 (39.0)	89,008 (100)
1990년	102,505 (50.7)	99,479 (49.3)	201,984 (100)	78,490 (51.2)	74,708 (48.8)	153,198 (100)
1995년	200,441 (50.2)	198,848 (49.8)	399,289 (100)	149,804 (51.4)	141,560 (48.6)	291,364 (100)

주 : 금액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따라서, 금융자금의 지역간 배분과정에서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에 금융시장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서울은 전국의 금융자금이 집중하는 금융중심지(core)의 위치에 있으며, 나머지 지방은 주변부(periphery)의 위치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중심지의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지방(주변부)의 지역금융시장이 분리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단서는 지역간 어음부도율의 차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별 어음부도율의 추이를 보면, 서울의 어음부도율과 나머지 지방의 어음부도율의 수준이 뚜렷하게 二分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서울의 어음부도율만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나머지 지방은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편차가 몇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음부도율의 지역적 차이는 직접적으로는 산업구조, 기업규모 등 부문적(sectoral)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어음부도라는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자금수요자들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에 어음부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자금수요자가 금융시장에 접근

하는데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개연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자금이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우선적으로 배분된 결과, 서울은 경제력에 비해서 자금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어음부도율에서 있어서도 지역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서를 통해 볼 때, 역시, 서울과 나머지지역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중심지의 국가금융시장에 통합되지 못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이 지역산업구조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2] 지역별 어음부도율의 추이(금액기준) [단위 : %]

		1985년	1990년	1995년
수도권	서울	0.05	0.02	0.12
	인천	0.15	0.06	0.84
	경기	0.26	0.12	0.85
부산권	부산	0.24	0.15	0.47
	경남	0.16	0.15	0.67
대구권	대구	0.27	0.16	0.58
	경북	0.34	0.17	0.79
호남권	광주	0.38	0.09	0.85
	전남	0.34	0.14	1.00
	전북	0.27	0.17	0.83
충청권	대전	0.23	0.14	0.92
	충남		0.28	0.75
	충북	0.24	0.16	1.03
강원		0.27	0.11	0.92
제주		0.32	0.16	0.93
전국		0.07	0.04	0.20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통념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하여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특성에 대한 의문은 사

실상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의 개략적인 2가지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심지의 국가금융시장에서 이탈·분리된 지역 금융시장이 나머지 지방에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서울과 지방과의 지역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심지(서울)와 지방 간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경로를 해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⁶⁾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다. 즉,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나타난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어느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차별성이 나타나는 경우,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 및 요인을 규명하여,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금융중심지인 서울을,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을 비교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 이것이 통합된 금융시장에서의 지역경제변수의 차이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파악하여, 대구권지역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밝히고, 그 특성을 검토한다.

6)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3장에서 상술하겠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자료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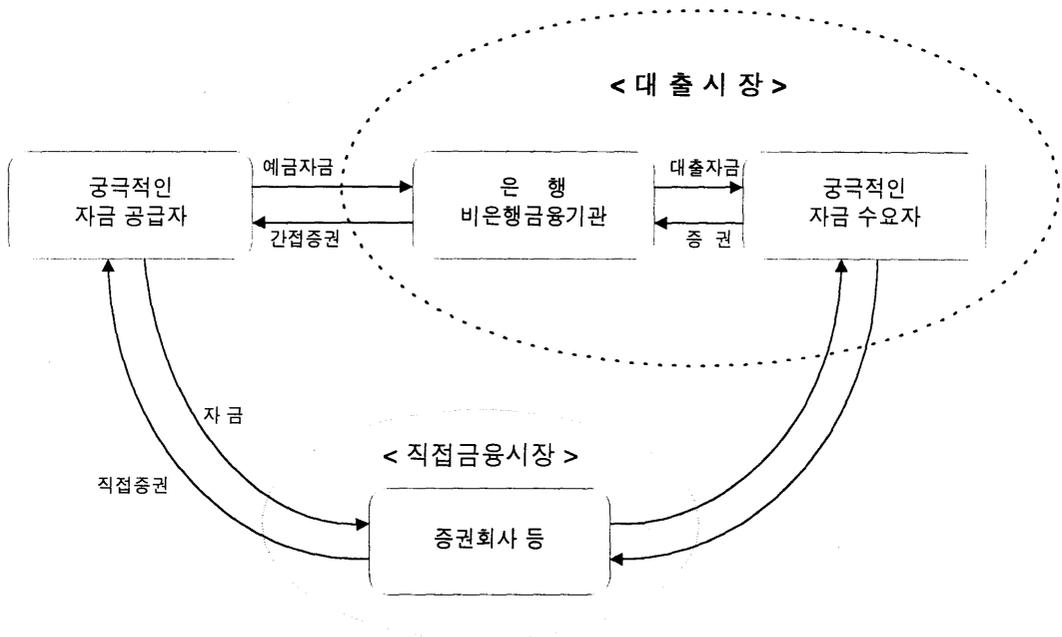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금융시장의 범위이다. 금융시장은 금융자산(금융적 청구권)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러한 금융자산은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다양하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그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는 자금의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직접금융시장(direct financial market)과 간접금융시장(indirect financial market)으로 분류할 수 있고, 둘째는 자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화폐시장(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short-time financial market)과 1년이상의 장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분류할 수 있고, 셋째는 자금의 유통방식에 따라, 대출자금(loaneable funds)⁸⁾이 거래되는 대출시장(loan market)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security mark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유형 중에서 대출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금융시장에서 대출시장의 위치는 [그림 1-1]과 같다.

7) 이하의 내용은 Henning, Pigott and Scott, 1975, pp.5~7; 강병호, 1994, pp.3~8 에서 인용하였다.

8) 대출(loan)이란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자금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양도가 자유로운 점으로 인해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를 알 수 없는 증권(security)과 대비된다. 따라서, 대출(loan) 계약에 있어서는 자금대출자가 평가하는 차입자의 신용(credit)이 중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대출시장은 신용시장(credit market)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출시장이란 당사자간의 계약형태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Henning, Pigott and Scott, 1975, p.6 ; 강병호, 1994, p.4)



[그림 1-1] 금융시장에서 대출시장의 위치⁹⁾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등, 지역경제의 실물부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어진 화폐량이라기 보다는, 신용창출과정을 통하여 화폐량의 승수효과로 창출되는 신용의 이용가능성(credit availability) 또는 대출자금(loanable funds)이라는 점(Moore, Karaska and Hill, 1985. p.30)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구조가 간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발달(Park, 1993, p.125)되었다는 점이다. 즉, 구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약¹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시장

9) Henning, Pigott and Scott, 1975, p.24; 강병호, 1994, p.6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이다.

10) 물론 최근의 경우,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직접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간접금융시장이 금융거래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을 논의할 때 대출시장이 중심이 됨을 밝혀둔다.

다음은 연구대상이 되는 경제주체의 범위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대출자금의 공급자는 은행등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고, 대출자금의 수요자는 기업, 가계부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행, 제2금융권)과 기업(대기업, 중소기업)¹¹⁾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경험적 사례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定量的인 방법과 定性的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분석 및 설문자료에 대한 t통계량 검정 등 정량적인 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와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뷰조사 및 금융기관 내부자료를 통한 메카니즘분석 등 정성적인 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2.2. 연구자료

이를 위해, 분석에 들어가는 연구자료는 통계자료, 금융기관 내부자료, 기업설문자료, 인터뷰자료 등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1) 기존연구를 보면, 금융시장에서 가계의 행태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행태를 통하여 가계의 행태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은 제외시켰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및 금융기관의 내부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주로 한국은행의 『지역금융통계』 및 한국은행의 내부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내부자료는 우리나라의 대출금융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보험회사) 각각 1개소씩 선정된 사례 금융기관에서 구득한 지역별 집계자료(aggregate data)이다.

다음으로, 서울과 대구권 간의 지역금융시장 비교사례연구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와 인터뷰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설문자료는 본사가 서울과 대구권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구득하였는데,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된 응답부수는 총 104부이다. 인터뷰자료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로 나뉘어지는데, 기업인터뷰자료는 본사가 서울과 대구권인 8개소의 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구득하였고, 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는 시중은행 3개소, 지방은행 1개소, 보험회사 1개소를 사례로 선정하여 구득¹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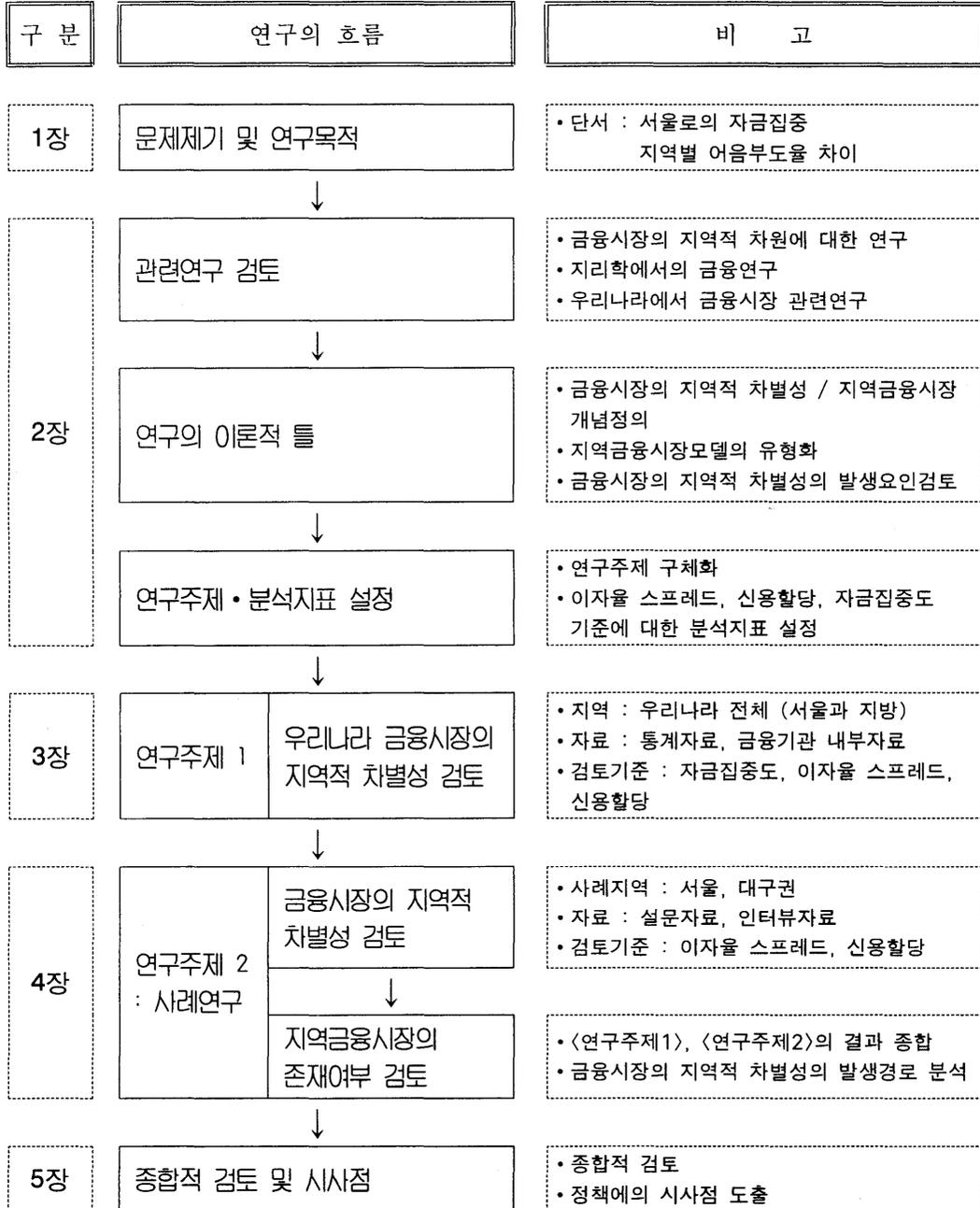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흐름

이러한 맥락에서, 2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며, 이러한 바탕하에서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분석의 지표를 선정한다. 이어 3장에서는 첫번째 연구주제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4장에서는 두번째 연구주제인 서울과 대구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3장과 4장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12) 설문자료 및 인터뷰자료에 대한 내용은 4장의 자료의 개요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에, 본 연구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관련 문헌검토 및 연구의 틀

2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문헌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 즉,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지리학 및 금융시장 관련분야에서 금융연구의 동향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주제들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본 연구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려는 경험적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례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문헌 검토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종합하여,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분석을 위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한다.

제 1 절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1. 연구동향의 개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 또는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지리학 및 지역경제학 관련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에, 1절에서는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에 대하여는 연구동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개

략적인 연구동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이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일찌기 Lösch(195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Lösch는 그의 저작에서 이자율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¹⁾. 첫째는 1923년에서 1935년 사이에 미국의 금융중심지인 뉴욕시의 은행이자율의 등락을 폭이 같은 기간 나머지지역의 등락을 폭보다 더 크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이때 뉴욕의 이자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항상 2%정도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였으며, 셋째는 1919년에서 1925년 사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는 뉴욕에서 1,000마일 떨어질 때마다 0.5% 씩 상승한다는 점이였다. Lösch는 이러한 결과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 당시 주변부지역은 중심지인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율로 인해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뉴욕의 균형이자율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변부지역의 균형이자율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Lösch의 분석결과를 보면, 그 당시 지역간 자금이동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Lösch의 연구 이후에도 지역간 이자율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Davis and Banks(1965), Meyer(1967), Smith(1968)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논의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킨 것은 대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그동안 지역모델에서 간과해 온 ‘금융’ 또는 ‘금융시장’ 변수가 국가차원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모델의 균형을 결정하는 내생변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주된 흐름은 기존의 지역계량모델에 금융변수를 추가하여 이것이 지역모델의 적합성을 높여주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였다. 화폐변수가 지역소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힌 Beare(1976)의 연구, 연방정부의 통화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것을 밝힌

1) Lö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Roberts and Fishkind, 1979, p.17 에서 재인용함.

Fishkind(1977)의 연구, 지역계량모델에 금융부문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모델의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통하여 밝힌 Roberts and Fishkind(1979)의 연구 등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지역계량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려는 초기의 연구흐름을 넘어서,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되는 지역금융시장의 관점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금융시장을 모델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Moore and Hill(1982)의 연구, Dow(1987)의 연구, Harrigan and McGregor(1987)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금융시장의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승수를 이용한 접근방법이 본격화되었다. 지역금융시장에서 승수적 접근방법이 사용되게 된 것은 상당수의 연구들이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신용의 이용가능성 또는 대출자금(loanable fund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주어진 화폐량(money stock)으로부터 대출자금의 공급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통화승수를 개념적 도구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승수적 접근방법은 Moore and Hill(1982)에서 사용한 이래, Karaska, Moore and Susman(1983), Moore, Karaska, and Hill(1985) 등의 후속연구에서 주요한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Karaska, Moore and Susman(1983)의 연구에서는 지역소득승수모델을 통하여 지역산업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어 Moore, Karaska, and Hill(1985)의 연구에서는 지역 화폐공급의 관점에서 은행시스템에 의한 화폐승수모델과 지불준비금승수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소득승수모델에 결합시켜, 은행시스템을 포함하는 수정된 지역소득승수모델을 도출하였다.

한편, 계량경제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연구로, Hughes(1991, 1992)의 연구, Bias(1992)의 연구, Amos and Wingender(1993)의 연

구, Porteous(1995)의 연구 등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금융시장이 국가범위 내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한 국가내에서 지역간에 금융시장의 차별성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거나,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들은 초기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동향은 본 절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그 유형 및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이 무엇이며, 다음으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도출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역금융시장의 모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나아가,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은 지역간 자금의 재정거래가 불완전하여, 금융시장의 균형결정과정에서 지역간에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의 자금수급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1]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연구자	요인
Fishkind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부와 외부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 지역별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의 차이
Roberts & Fishkind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부와 외부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 지역간 산업 및 금융자산의 구성의 차이 • 지역간 개인이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
Moore & Hill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창출과정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Harrigan & McGregor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외부 차입자와 내부차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 대출자금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제약 • 지방기업에 밀착하는 지방은행의 행태
Dow (1987, 1990,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비대칭성 • 지역간 유동성선호의 차이 → 자금수요측면 강조
Hutchinson & McKillop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비용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
Porteous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구조의 차이 • 지역별 외부지역 고립도의 차이 • 연고주의적 경향 • 지점은행체제하에서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
Clark and O'Connor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정보의 노출정도

2.1.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첫번째 요인으로, 지역외부와 지역내부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즉,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은 지역내부의 차입자에 비해 지역외부의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데, 이러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시장에서 지역간 재정거래를 제약하고, 그리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완전경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거래비용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정보는 완전하지 않으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여기서, 금융시장에서 불균형, 비대칭적 정보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연구²⁾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신용시장(대출시장)에서 정보의 문제는 결국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에는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항상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차입자의 신용정보는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에 모두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며,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는데 불확실성이 개입되게 된다.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경제주체는 지역내부의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는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지역외부의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부의 차입자와 지역외부의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신용정보의 수집비용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고, 획득된 정보를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역시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국가 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Moore and Hill(1982)의 연구가 있다. Moore and

2) 최근에 발달한 불균형거시이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거래)비용, 정보획득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모든 시장이 연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고,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격에서도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시장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불완전·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금융시장을 들었다. (정운찬, 1991, pp.446~449, pp.517~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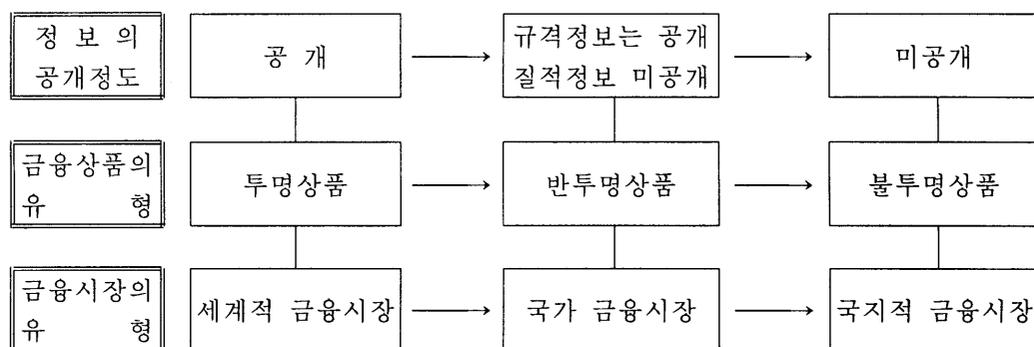
Hill은 먼저, 지역을 『①중심지와 ②주변부(지방)』로 분류하고, 금융시장에서 차입자계층을 『①대기업, ②소기업/가계』로, 대출자계층을 『①국가 금융중심지에 입지한 전국형 금융기관, ②소규모 지방금융기관』으로 유형분류하였다. 여기서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융중심지에 입지한 전국형 금융기관은 지방의 대기업 차입자계층에 비해 지방의 소기업/가계 차입자계층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적고,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중심부의 전국형 금융기관은 지방의 소기업/가계에 대한 신용창출을 꺼리게 된다. 즉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용이 지역간 자본이동(裁定去來)을 제약한다. 그 결과, 지방에 입지한 소기업/가계 차입자계층은 국가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방금융기관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균형이자율과 자금공급은 국가금융시장의 균형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지방의 소기업/가계차입자 부문에서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Dow(1987)는 Moore and Hill(1982)의 분석적 틀에 입각하면서, 은행체제를 지점은행체제(branch banking system)와 단일은행체제(unit banking system)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개념적 진전을 보였다. 전국형 은행의 지방지점의 경우, 금융중심지의 본사를 통하여 자금차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없이 지방의 신용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국형 은행의 지점체제는 지방의 단일은행체제보다 신용창출에 대한 여력이 더 커지고, 이자율의 차이도 그만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지방의 신용위험이 높고, 지점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점은행체제를 통하여 지방에서 무한적으로 신용을 확대시킬 수는 없고, 일정한 수준에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orteous(1995)는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경제적인 거래관계에서 지역의 고립도 수준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즉 금융중심지나 다른지역과의 경제적 거래관계가 적은 고립된 지역의 경우 외부에 신용정보가 덜 알려져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획득비용 및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신용정보의 불확실성이 더 높

다. 이에 금융기관은 고립된 지역의 신용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문제를 금융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연결시킨 연구로 Clark and O'Connor(199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과 위험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금융상품의 정보적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을 유형 분류하고, 이를 금융시장의 공간적 유형과 연결시켰다. 이들이 주목한 사실은 금융상품(자본)이 완전히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교역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여전히 런던,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와 하위의 지역 금융중심지가 공존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금융상품에 내재한 차별적인 정보 내용으로 공간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따라서 금융산업에 있어서 지리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개발한 것이다. 이들이 유형화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2-1]와 같다.



자료 : Clark and O'Connor(1995)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그림 2-1] 금융상품과 금융시장과의 관계

투명상품(transparent products)이란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거나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즉각적인 재정거래로 인하여 평균이상의 수익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투명상품

으로 金先物(gold futures), 外換先物(foreign currency futures)이 있다. 투명상품은 일반적으로 대량거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갖추어진 세계적 금융중심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반투명상품(translucent products)이란 상품의 규격적인 성격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으나, 개별 상품의 고유한 질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국지적인 금융시장에서만 알려진 상품으로, 반투명상품의 투자수익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투명상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주식이 있다. 반투명상품은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제품 설계기술과 제품차별화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금융중심지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국가 금융중심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불투명상품(opaque products)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私的인 정보(특정 정보)에 기초하여 설계된 제품으로, 상품에 숨겨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품설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불투명상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REIT³⁾(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이 있다. 불투명상품에 내재된 수익성과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네트워크와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불투명상품은 국가하위의 지역 단위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Clark and O'Connor(1995)의 연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개념을 조작화하여 도식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금융상품에 내재된 정보를 매개로 하여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을

3)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이란 다수의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동산펀드를 말한다. REIT은 1960년 미국에서 소액투자자에게 부동산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탄생한 제도로, 부동산을 증권화하려는 방편으로 고안되었다. 부동산펀드가 조직형태, 자산운용, 수입내역, 수입배분 등의 항목에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 REIT으로 인정이 되고, 이러한 REIT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됨으로 투자자는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Brueggman and Fisher(1993), 金子榮作 外(1990), 都市開發證券化研究會 編(1991)).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공간적 차원을 제기한 공헌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을 살펴보았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후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는 요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였다.

2.2. 지역 산업구조의 차별성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두번째 요인으로, 산업구조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별지역은 각각 고유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가능성과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신용평가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에 투영될 때,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oberts and Fishkind(1979)는 자본이 완전히 이동가능하여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이 지역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산업구조가 지역마다 상이할 경우, 실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의 형태가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Porteous(1995)는 산업구성의 다양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부지역과 주변부지역 간에 금융시장의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변부지역(periphery)은 중심부지역(core)보다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적으며, 부의 축적수준이 떨어진다. 이에 국지적 기반을 가진 지방의 사업자들은 지역산업구조의 단순성으로 산업경기의 주기적인 등락에 쉽게 노출되고, 부의 축적수준이 낮으므로 담보가 적고 담보의 유동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표준적인 위험조건 하에서도 중심부지역보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주변부 사업자의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한다. 즉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중심부지역과 주변부

지역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2.3. 지역별 경제주체(인구) 성향의 차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세번째 요인으로, 지역별로 경제주체(인구)의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은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기업/가계 부문 등의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 위험에 대한 태도, 연고주의(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 등의 측면에서 경제주체의 성향이 지역마다 상이할 경우,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Roberts and Fishkind(1979)는 지역마다 개인이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⁴⁾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Harrigan and McGregor(1987)는 연고지역기업에 밀착하려는 지방은행의 행태를 통하여 차별성이 발생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Dow(1987)는 화폐의 투기적 수요를 강조한 케인즈학파의 전통에 입각하여, 유동성 선호의 지역적 차이가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변부 지역의 경제는 중심부지역의 경제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주변부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주변부지역의 유동성 선호가 더 높게 되는데, 유동성 선호로 인하여 주변부 지역의 경제주체는 지방 금융기관보다는 전국형 금융기관에, 지방에서 발행한 증권보다는 국가에서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려 한다. 이에 따라,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부지역에서 신용창출은 중심부보다 더 낮게 된다. 그 결과 주변부에서는 신용공급은 줄어들고, 이자율은 국가범위의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되어 중심부의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

4)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위험기피자가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위험선호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Porteous(1995)는 인종, 동향관계 등의 연고주의적(pathological bias) 경향과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비경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지점은행체제 하에서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함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본점의 최고경영자가 되기 전에 지점근무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지점의 근무자는 승진을 위하여 자신의 지점 근무기간 동안에 부실채권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의 경력관리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경우 본점보다 차입자의 신용정보의 평가에 있어서 대출 의사결정이 더욱더 보수적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문헌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현실의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찾는 것은 특정 지역의 금융시장에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금융시장의 모델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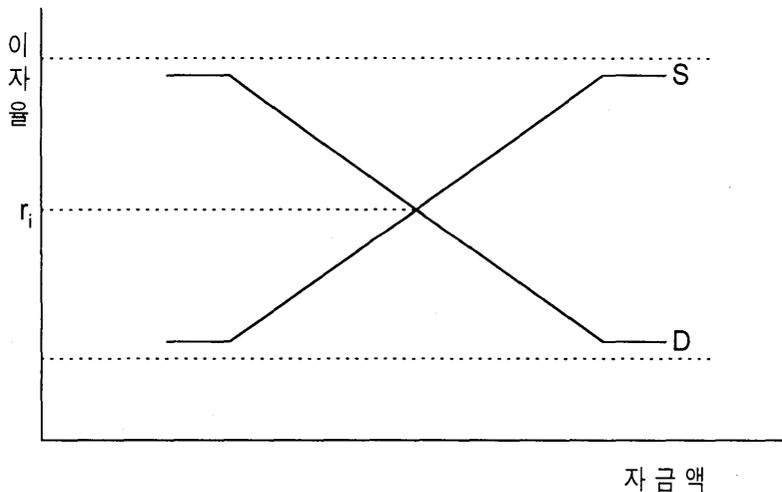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나아가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분석하는 지역금융시장의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금융시장을 모델화하는 작업은 지역금융시장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였는데, 주로 국가금융시장과의 관련성 하에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형성되는가를 그

래프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금융시장 모델인 Roberts and Fishkind(1979), Moore and Hill (1982), Dow(1987), Harrigan and McGregor(1987)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3절의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서 유형화하려는 지역금융시장모델의 유형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도출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3.1. Roberts and Fishkind의 모델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설명한 모델 중에서 초기의 것으로, Roberts and Fishkind(1979)의 모델이 있다. Roberts and Fishkind(1979)는 국가금융시장과의 관계 하에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개념화하였는데,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금융자산에 대한 지역공급곡선 및 수요곡선

그래프에서 보면, 지역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은 금융중심부에서 결정된 균형이자율(r_i)을 중심으로 일정한 상하폭이 있는 帶狀(band)내에서 결정된다. 이자율이 帶狀(band)을 벗어날 경우 국가금융시장에서의 재정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곧

회귀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은 완전히 독자적인 금융시장이 아니라, 국가 금융시장과의 지역간 재정거래가 저해되는 부분내에서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금융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정보획득의 관점에서 격리도가 큰 지역일수록 상하폭의 범위가 더 커지며, 수요 및 공급함수가 보다 비탄력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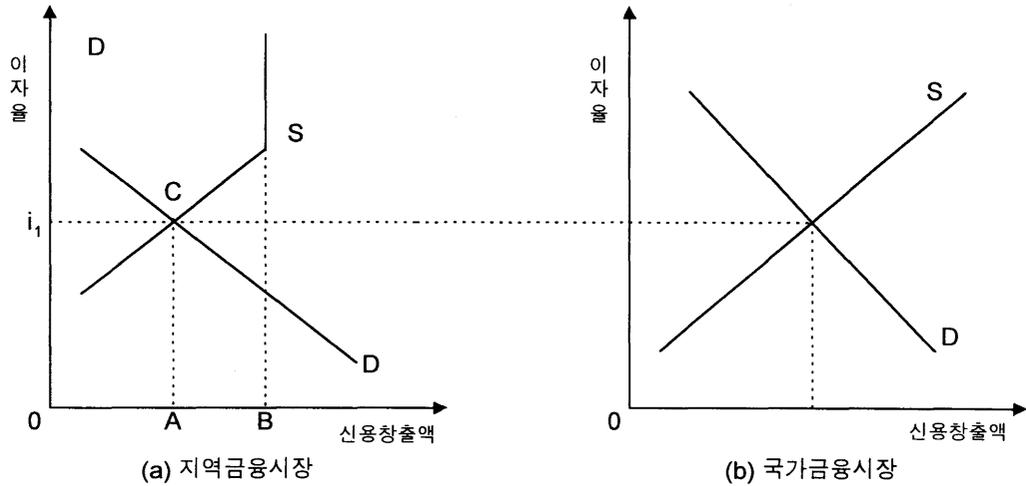
3.2. Moore and Hill의 모델

Moore and Hill(1982)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출자금(loanable funds), 신용의 이용가능성(credit availability)을 기준으로 금융시장의 균형을 분석하면서, 대안적인 지역금융시장모델을 ①지역금융시장과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②지역신용수요가 지역신용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③지역금융시장의 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보다 낮은 경우, 3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그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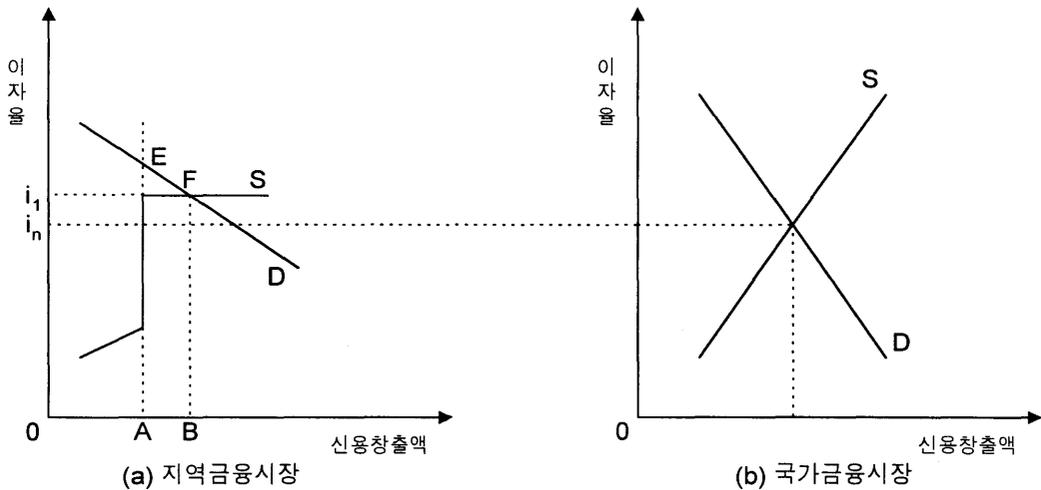
첫째는 지역금융시장의 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과 동일한 경우인데,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과 균형대출량이 결정되는데, 그림에서 지방금융기관이 지역에 창출한 균형자금량(신용량)은 O~A가 된다. 한편 지역통화승수에 의해 지역의 대출자금(신용이용가능성)의 최대수준은 O~B가 되는데, 여기서 A~B는 지역외부에 투자된 자금량을 나타낸다.

둘째는 지역의 신용수요가 지방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급량보다 큰 경우인데, [그림 2-4]와 같다. 이 경우, 지방은행의 신용공급량은 O~A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국가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신용을 O~B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때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은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i_n)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가산금리(mark-up)를 더한 수준(i_l)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기업은 국가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지방은행의 가산금리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 기업과 가게는 국가금융시장에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산금리를 지불하고 차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금융기관은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소규모 지방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의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은행의 이윤마진은 이자율 스프레드로 나타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된 신용량은 A~B 수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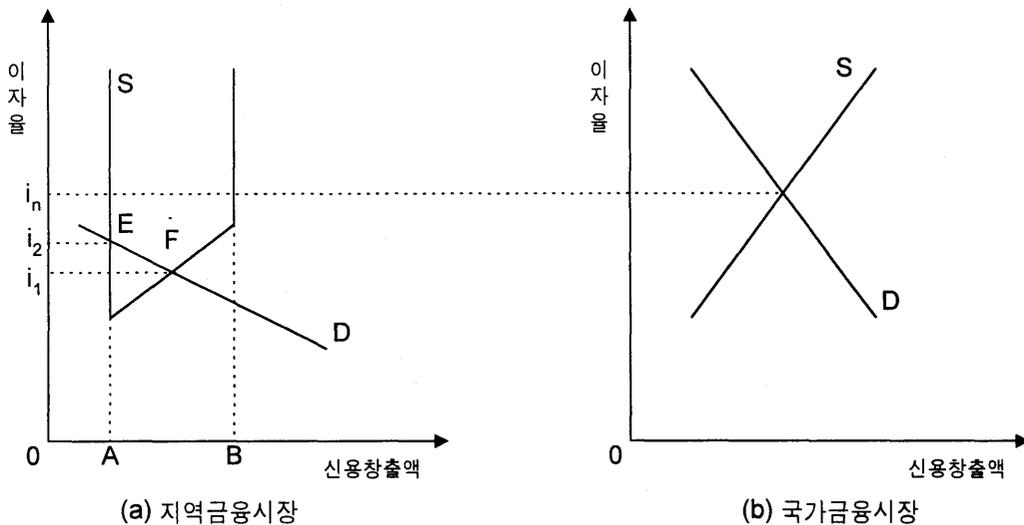


[그림 2-3] 유형 1 : 지역금융시장과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그림 2-4] 유형 2 : 지역신용수요가 지역신용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는 국가금융시장에서의 균형이자율(i_n)이 지역이자율(i_2)보다 높은 경우인데, [그림 2-5]와 같다. 이 경우, 지방은행은 대출자금을 국가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대출자금이 국가금융시장에 투자된다. 한편, 지방금융시장에서는 대출공급이 최소한의 수준(O~A)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수의 대규모 지방 저축자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키는 수준이다. 이들 저축자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은행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들 고객에 부과하는 이자율(i_2)은 [그림 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래의 균형이자율 수준(i_1)보다는 높지만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i_n)보다는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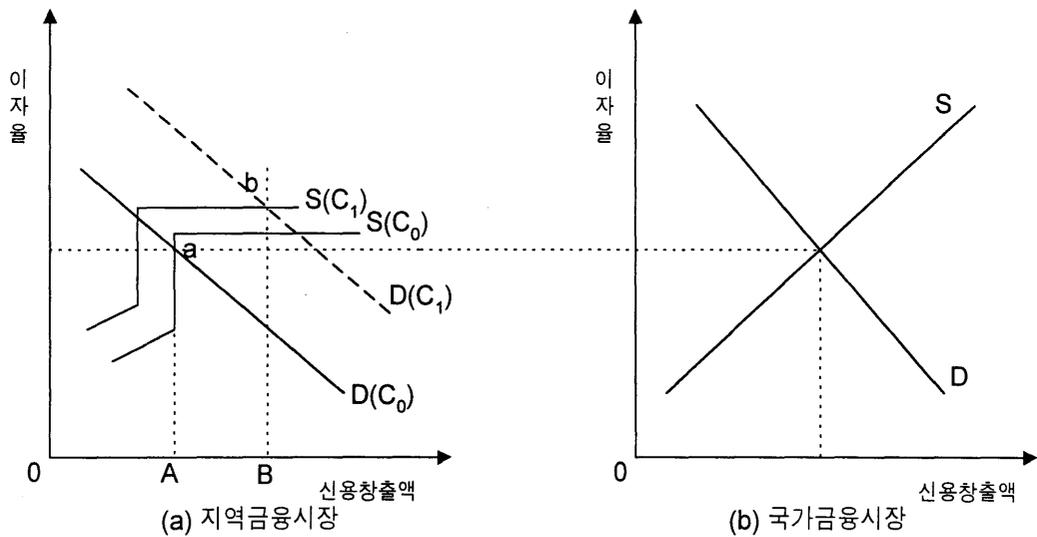


[그림 2-5] 유형 3 : 지역금융시장의 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 보다 낮은 경우

3.3. Dow의 모형

한편, Dow(1987)는 Moore and Hill(1982)에서 제시한 지역금융시장의 모형 중 2번째 유형인 '지방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그림 2-4)'를 기본적인 형태로 채택하여, 유동성 선호의 변화와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림 2-6]과 같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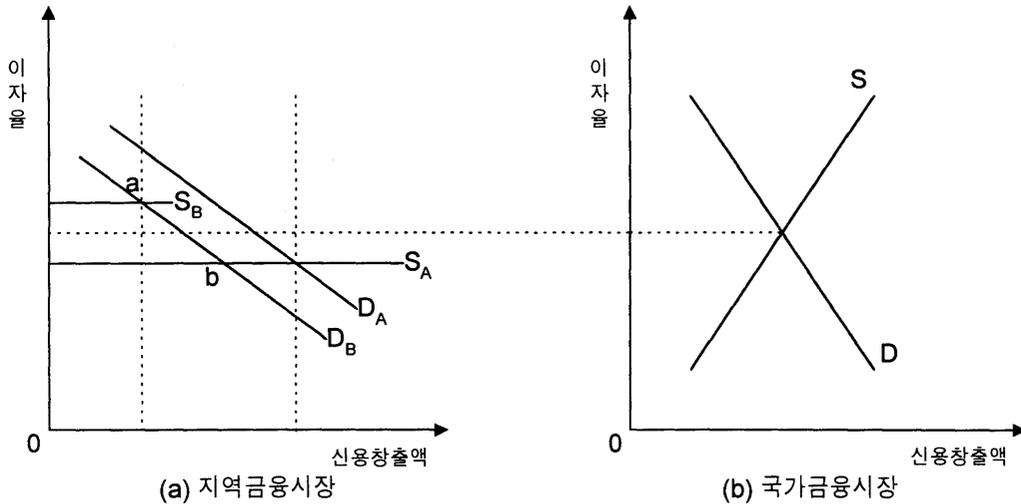
이, 최초의 균형에서 지방의 유동성 선호가 높아지면 신용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D(C_0) \rightarrow D(C_1)]$, 신용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S(C_0) \rightarrow S(C_1)]$, 이에 따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b점의 균형은 A~B 만큼의 자금을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균형이자율에 일정한 가산금리(mark-up)를 지불하고 끌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6] 유동성선호의 변화와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또한, Dow는 지점은행체제(branch banking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이자율이 고정적인 상황에서 도출되는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설명하였다. 금융시장에 지점은행체제를 도입할 경우, 이자율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할 시에 지점 은행망을 통하여 즉각적인 재정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고정가격 형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수평이며, 종점이 있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7]이다. [그림 2-7]에서 보면 이러한 공급곡선의 형태는 지역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유망지역(A)의 경우, 예상되는 지불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적기 때문에, 공급곡선(S_A)을 보면, 이자율 수준이 낮고, 신용의 공급량도 많은 형태를 보인다. 반면, 침체지역(B)

의 경우 신용위험도 높고 유망한 투자기회도 적어, 공급곡선(S_B)을 보면, 이자율 수준도 높고, 신용의 공급량도 적은 수준에서 제한된다.



[그림 2-7] 지점은행체제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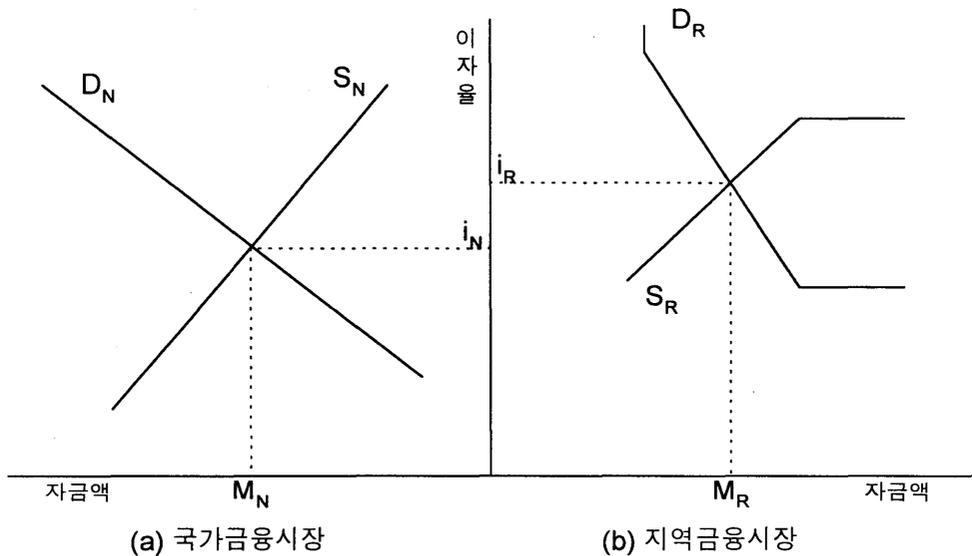
3.4. Harrigan and McGregor의 모형

Harrigan and McGregor(1987)는 국가금융시장에서 지역금융시장이 완전히 통합된 경우와 완전히 분리된 경우의 양 극단의 상황을 절충하는, 중간적인 裁定이 이루어지는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적인 지역금융시장모델⁵⁾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그림2-8]과 같다.

[그림 2-8]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수요곡선 형태는 D_R 과 같은데, 이는 ①이자율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수준을 나타내는 수직선 구간, ②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우하향 곡선구간, ③이자율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금융시장과의 완전재정이 가능하여 수요곡선이 완전

5) 한편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부분통합적인 지역금융시장모델이 완전통합 및 완전 분리라는 양 극단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탄력적(수평선)이 되는 구간, 이상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한편 공급곡선의 형태는 S_R 과 같은데, 다음과 같은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①지역이자율이 일정수준⁶⁾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역의 자금공급이 국가금융시장과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공급곡선이 우상향의 형태를 지니게 되고, ②지역이자율이 국가이자율보다 일정수준 이상 초과할 때는 국가금융시장과의 완전재정이 가능하여 공급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부분분리 모형은 지역이자율이 무한히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이자율을 중심으로 한 상하의 띠(band)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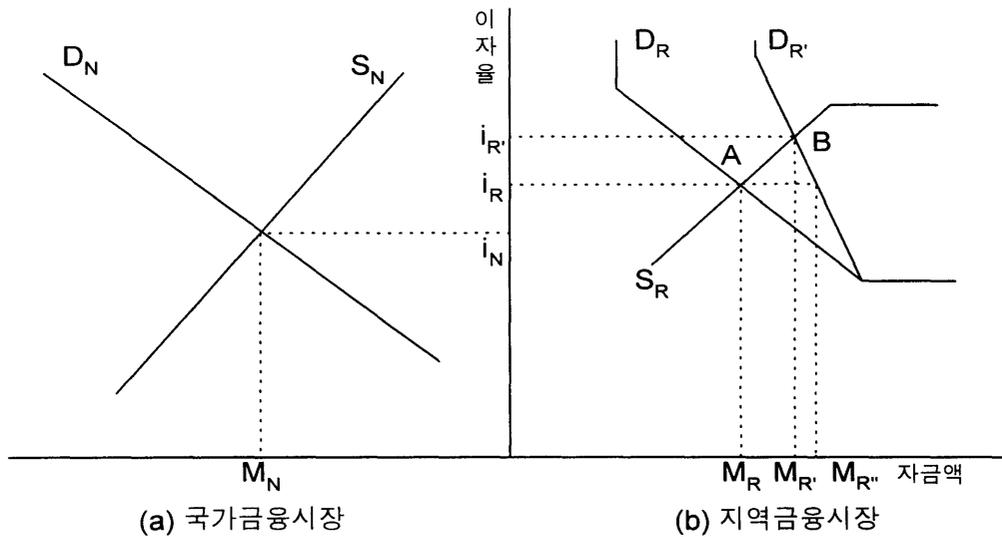
[그림 2-8] 지역자금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

한편 이들은 지역의 경제여건을 안정적인 시기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불안정한 시기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비교정확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림 2-9], [그림 2-10]이 그것이다.

먼저, 지역의 경제여건이 안정적인 시기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 [그림 2-9]이다. 경제여건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지역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자금수

6) 이 이자율 수준은 국가금융시장에서의 균형이자율에 거래비용(신용위험)을 가산한 수준이다.

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확실하므로 공급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은 B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때, 균형이자율과 자금량은 $i_{R'}$, $M_{R'}$ 으로 모두 상승하게 된다. 만약 이 때 이자율이 i_R 수준에서 고정적이면 자금을 위한 초과수요로 $M_R \sim M_{R''}$ 만큼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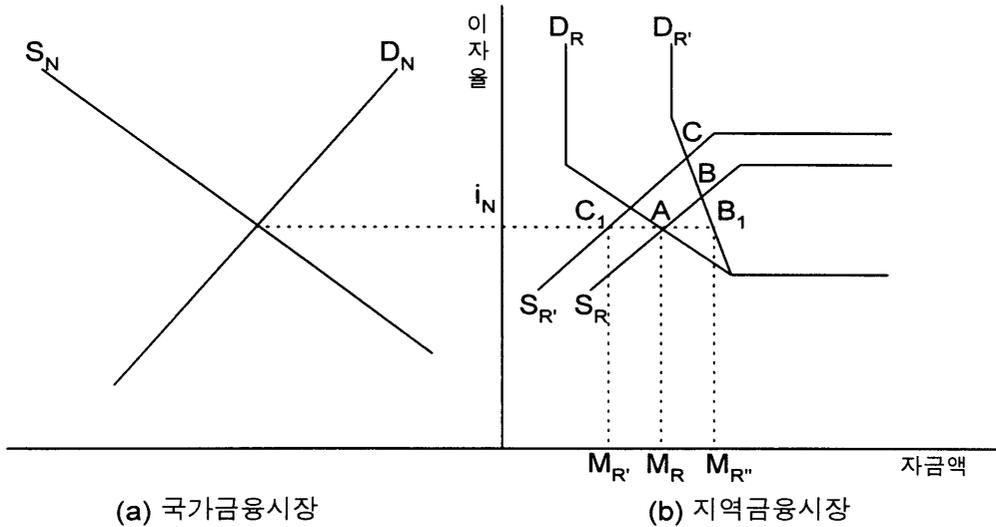


[그림 2-9] 안정적인 경제여건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반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 [그림 2-10]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지므로 지역 내의 자금거래자들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쪽으로 구성하려 하고, 따라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반면 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의 신용에 대해 낙관적인 예상을 할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이동을 하지 않게 되지만, 비관적인 예상을 할 경우에는 자금의 공급을 줄이게 되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은 신용이 양호한 지역은 B점, 신용이 불량한 지역은 C점이 된다. 이 때, 지역이자율이 i_N 수준에서 고정적일 경우 신용할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이 양호한 지역의 신용할당량은 $M_{R'} \sim M_R$ 이지만, 신용이

불량한 지역의 신용할당량은 $M_{R'} \sim M_{R''}$ 이나 된다.

따라서 Harrigan and McGregor(1987)는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해, 경제가 안정적인 시기에는 지역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지역간 금융여건이 비슷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지역의 신용상태에 따라 지역간 금융여건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2-10] 불안정한 경제여건 하에서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4.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금융정책)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경험적 사례연구는 지역금융시장 논의가 시작된 초기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각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목적은 국가(연방정부)의 금융정책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가를 검토하려는 것에서부터, 국가내의 지역금융시장이 분리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분석에 들어가는 변수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각 국가의 금융제도 및 정책의 자율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연구의 분석결

과에서 지역적 차별성의 정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연구 결과는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지역모델에서 금융시장이 유의한 내생변수가 됨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연구를 개관해 보면, [표 2-2]와 같다.

Beare(1976)은 지역비즈니스사이클 모델을 사용하여, 지역소득이 국가통화정책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지, 자본유입에 따라 지출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56년에서 1971년까지의 캐나다의 프레리, 사스캐치원 등 4개 지방을 대상으로 지역지출과 국가화폐공급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적어도 단기에서는 화폐가 지역활동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Fishkind(1977)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지 차별적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당시 연방 준비국(Federal Reserve)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지역(州정부)별로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자본흐름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차이는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연방 준비국은 모든 지역(주정부)에 동일한 통화정책을 사용하였다. Fishkind는 바로 이 점에 의문을 갖고,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인디애나 주를 대상으로 지역계량경제모델을 구축하여 각 상황별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그 결과를 같은 기간의 미국 전체의 평균값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확대 통화정책의 시기에는 인디애나주의 성장율이 미국평균 성장율과 비슷하나, 긴축 통화정책의 시기에는 인디애나주의 성장율이 미국평균 성장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따라서 국가의 통화정책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Fishkind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원인을 지역간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Roberts and Fishkind(1979)는 앞서 이론적 연구동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융부문을 도입한 지역계량경제모델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플로리다의 금융부문과 건설부문에 적용하여, 지역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지역계량모델

[표 2-2]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사례연구

연구자	사례지역	주요 분석변수
Beare (1976)	캐나다 (4개지방)	• 지역지출 • 국가화폐공급
Fishkind (1977)	미국 (인디애나주)	• GRP • 지역고용 • 개인소득 • 이전수지
Roberts & Fishkind (1979)	미국 (플로리다주)	• 지역고용 • 지역지불준비금
Hutchinson & McKillop (1990)	영국 (북아일랜드)	• 지역은행의 대차대조표 (유동성비율) • 지역기업/개인의 대출이자율
Hutchinson & McKillop (1991)	영국	• 지역별 금융기관의 고용량 • 지역별 금융기관의 산출량 • 지역별 모험자본 투자량
Dow (1990)	캐나다	• 지역별 금융부문 구성비 • 재무구조 - 지역 금융기관, 기업, 개인
Dow (1992)	영국 (스코틀랜드)	• 지역의 모험자본 투자량 • 지역기업의 재무구조 - 자본장비율, 유동성 부채비율, 이윤율 • 지역기업/가계의 부
Bias (1992)	미국 (12개주)	• 지역소득 • 지역인구 • 지역이자율 (할인율) • 지역화폐공급
Amos & Wingender (1993)	미국 (50개주)	• 지역 이자율 • 국가이자율 • 지역소득 • 지역소비지출 • 지역투자지출 • 지역수출입
Porteous (1995)	캐나다	• 금리 및 금리차 (은행기준금리, CD/CP 금리) • 수익률 • 예상인플레이션율 • 기업의 예상투자율 • 실업율, 고용변화율

에 금융부문을 도입하는 것이 모델의 적합성과 예측력을 높여주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①금융시장을 명시적으로 도입(통화, 금융변수를 모델에 도입)한 지역계량모델』과 『②그렇지 않은 지역계량모델』 2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①표본기간, ②표본기간 이후의 기간, ③통화정책 전환기간』에 대하여 각각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시장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지역모델이 표본기간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표본기간 이후의 예측성에서도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지역계량모형에 금융부문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예측력이 뛰어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utchinson and McKillop(1990)은 금융시장이 국가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비용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금융시장 분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북아일랜드 금융부문을 사례로 경험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북아일랜드의 소기업·가계부문은 자금공급의 접근이 지방금융기관에 제한되지만, 대기업(분공장포함)의 경우 중심지의 금융시장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Moore and Hill(1982), Dow(1987)의 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①신용공급이 지역적으로 제한받는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②북아일랜드의 이자율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아일랜드 금융부문은 영국의 통합된 금융시장의 일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Hutchinson and McKillop(1991)에서는 영국 전체를 사례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체적인 분석결과는 런던이 지배적인 금융시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정지역 수준에서 자율적인 메카니즘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utchinson and McKillop(1990)의 연구와 Hutchinson and McKillop(1991)의 연구에서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EC의 출범으로 EC국가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었을 때, 각 국가의 국가금융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점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은 정보(기회)비용, 국가간 제도적 차이가 국가간 이자율 차이와 신용공급의 제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였다.

한편, Dow(199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를 대상으로, Dow(1992)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개념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 중, Dow(1992)의 스코틀랜드 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 완화제도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소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하여, 신용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가계부문은 1인당 저축률이 영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자본유출과 투자저하 현상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Dow는 이러한 결과가 스코틀랜드의 유동성 선호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Bias(1992)는 미국의 12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미국의 연방정부의 통화정책이 지역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그리하여 미국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공개시장조작과 할인율의 변화가 지역화폐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 간에 금융적으로 분리가 일어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화폐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화폐공급이 어느정도는 지역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도 밝혔다.

Amos and Wingender(1993)는 지역금융시장과 지역소득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①이자율에 의해 유도된 지역지출모델과, ②신용제약에 의해 유도된 지역지출모델이라는 2가지 지역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2가지 대안적인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어느 모형이 설명력이 더 높은가를 미국의 50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32개 주에서 지역금융시장이 생산활동에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9개 주는 금융시장의 간접적인 역할이, 나머지 23개 주는 직접적인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제약에 의해 유도된 모형이 지역성장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Porteous(1995)는 스위칭회귀모델(switching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호주와 캐나다의 지역별 신용할당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는 은행의 신

용공급이 지역의 신용수요에 대응하여 균형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국지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부보다 주변부지역에 보다 많은 신용할당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캐나다를 사례로 선정하여, 지역별로는 『①금융중심부지역과 ②주변부지역』으로 분류하고, 차입자의 계층은 『①대기업과 ②중소기업/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스워칭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신용할당의 정도를 분석⁷⁾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대출부문에서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회귀식의 적합도가 낮아서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사례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지역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금융변수, 금융시장, 금융정책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해석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나, 지역별로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통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점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州정부별로 거시경제변수⁹⁾에 대한 통계가 있는 미국, 캐나다의 사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는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 지표간의 지역별 차이를 사례조사를 통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가 쉽고,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지표를 통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①거시경제변수를 지역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②지역별 차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한

7) 스워칭모델에서 신용공급과 관련된 변수로는 ①은행기준금리와 CD금리 간의 차, ②수익률, ③예상인플레이션율, ④은행의 설립자본금을 선정하였고, 신용수요와 관련된 변수로는 대기업의 경우 ①기준금리, ②CP금리, ③기업의 예상투자율, ④고용변화치, ⑤예상물가상승률을, 중소기업/가계의 경우 ①기준금리, ②실업률 ③고용변화치, ④예상물가상승률을 선정하였다.

8) 실제로 Porteous(1995)의 경우, 지역별 신용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캐나다와 호주 양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으나,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보기 위한 스워칭회귀모형 구축 단계에서는 지역통계자료의 부족으로 호주의 경우를 제외시켰다.

9) 특히 금리자료는 지역별 통계가 가장 잡히기 힘든 부분이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계량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계량모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설명력을 잃지 않으면서, 사례연구의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통계적 자료분석과 설문·인터뷰자료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절 금융시장 관련연구동향

1. 지리학에서 금융에 관한 연구

지리학에서 금융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 입지론, 도시체계론, 도시지리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리학에서 금융연구의 동향을 보면, 상당수의 연구에서 금융연구의 접근방법이 공간(특히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능·부문의 하나로서 금융기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학에서의 금융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Choi(199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i(1993)는 지리학에서 금융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동향을 첫째, 서비스산업(특히 생산자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의 금융부문(financial sector)에 관한 연구¹⁰⁾, 둘째, 공간구조의 역동성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공간적 맥락에 관한 연구¹¹⁾로 분류하고

10) 여기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금융부문)과 제조부문과의 관련성 연구, 생산활동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연구, 산업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성장에 관한 연구, 생산자서비스로서의 금융부문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11) 이러한 공간구조의 역동성에는 메트로폴리탄의 발전, 기업본사입지의 이전, 정부 규제변화, 경제일반의 발전, 및 도시계층체계에의 영향 등을 들고 있다.

있는데,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금융기능·부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로 파악된다.

이러한 금융기능, 금융부문의 공간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의 주요 주제는 대체적으로, 금융활동의 입지에 관한 연구¹²⁾, 도시체계론적 관점에서 금융활동의 계층 및 패턴에 관한 연구¹³⁾, 기업활동과 금융활동의 지리적 연계연구¹⁴⁾, 금융활동의 지리적 발전과정 및 집중¹⁵⁾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기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금융연구는 금융을 여러 도시기능 중 하나로 파악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이 다른 기능과 구별되어 가지는 고유한 영역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능을 생산자 서비스기능의 하나로 보아 공간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금융기능의 공간적 패턴이 다른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이 생산자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금융연구가 다른 연구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연구'라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면이 많이 노출된다. 이러한 금융연구에 대한 시각은 그 동안 지리학에서 금융에 관한 연구가 생산, 소득, 노동부문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루어져 온 것(Choi, 1993, p.322)에 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자산의 가격 및 수량이 결정되는 금융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금융연구는 금융의 고유한 영역에 보다 근접하는 연구주제로 사료되며, 따라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 및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주제는 지리학에서 금융연구의 논의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Goldberg, Helsley and Levi (1975), Coffey and Polese(1987), Lord(1987) 등이 있다.

13)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Conzen(1975), Marz and Semple(1985), Choi(1993), 조순철(1994) 등이 있다.

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Wheeler(1986), Fagan(1990), Dicken(1976), 신성일(1992) 등이 있다.

15)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Taylor and Thrift(1983), Lord(1992) 등이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시장 관련 연구동향

한편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과 관련한 연구는 여러가지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져 왔다. 금융시장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로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결정에 관한 연구¹⁶⁾, 대출시장의 현황 및 행태분석¹⁷⁾, 공식금융시장과 비공식금융시장(사채시장)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¹⁸⁾,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에 대한 연구¹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시장 전반을 다루든지, 부문별로 접근한 연구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 또는 지역금융시장에 관한 문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금융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연구도 주로 자금의 유출과 같은 지방의 금융환경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친 연구²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덕훈 외(1994)의 연구를 보면, 새마을 금고를 사례로 지역금융의 차원을 논의하면서 지역외부와 지역내부 차입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념적인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나아가, 지역금융시장 연구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금융시장의 발달과정과 금융제도 및 통화정책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외국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금융제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16) 대표적인 연구로 성정호, 최운규(1991), 장덕주, 유진방(1991) 등이 있다.

17) 대표적인 연구로, 조성제 외(1994), 최장봉(1990) 등이 있다.

18) 대표적인 연구로, 김기영(1993) 등이 있다.

19) 대표적인 연구로, 손동진(1993), 김응진(1992) 등이 있다.

20) 대표적인 연구로, 김극수(1996), 장충식(1994), 장재우(1989) 등이 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는 금융자유화(특히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불 때에도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금융 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연구의 이론적 틀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관한 연구들을 본 연구의 목적과의 관련성 하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3절에서는 관련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서론에서 밝힌 연구목적 하에서, 사례연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결과를 적절하게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대안적 모델들을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1절의 문헌검토에서 검토한 금융시장의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발생요인을 추출한다.

1.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과 지역금융시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을 논의한 연구들은 대략적으로, 한 국가에서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나아가, ‘국가 하위의 지역범

위'에서도 '금융시장의 균형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지역금융시장(regional financial market)의 개념을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의 흐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목적에 따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을 보는 관점이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과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연구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흐름을 보면, 먼저, 이자율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자금수급이 지역간 불균형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지역간에 금융시장의 균형결정 지표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려는 차원의 연구, 즉,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를 보면, Beare(1976), Hughes(1991, 1992) Bias(1992), Amos and Wingender(1993), Clark and O'Connor(1995) 등이 있는데, 주로 국가금융정책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지 여부를 검증하거나, 지역계량경제모델에 있어서 금융변수가 유의함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를 요약하면, 한 국가내에서 이자율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국가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하에서 지역의 자금수요만큼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용할당²¹⁾이 지역간 차별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region)'의 개념에는 국가하

21) 신용할당에 대해서는, 지역금융시장모델 유형화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한다.

위의 공간적 범위(subnational boundar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차별성'이란 개념에는 '다양성', '상이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시장의 차별성을 구별하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거시경제변수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즉, '금융활동권', '지역경제권'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의 유동성 선호 등 금융시장의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자금의 재정거래를 저해하여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Roberts and Fishkind(1979)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완전히 이동가능하더라도 지역산업구조, 지역인구의 성향 등 자금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경제환경이 지역간에 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수가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금융시장이 국가차원에서 어느정도 통합된 상황에서도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라는 관점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금융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즉, 이자율, 신용할당, 자금집중도에서 지역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역적 차별성으로 파악한다.

한편, 금융시장 지역적 차별성이 단순히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금융시장 메카니즘이 지역에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파악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내에서 국가차원의 균형 이자율과 자금 수준을 결정하는 국가금융시장(national financial market) 메카니즘은 자금의 거래량이 풍부하여 금융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중심부(core)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 때,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요인으로 자금의 지역간 재정거래가 심각하게 제한될 경우, 중심부의 국가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주변부)에서는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균형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개념에는 주변부(peripher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차별성’의 개념에는 국가(중심부)로부터 통합되지 못하고 ‘이탈’, ‘분리’, ‘차등화’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Fishkind(1977), Moore and Hill(1982), Harrigan and McGregor(1987), Dow(1987, 1990, 1992), Hutchinson and McKillop(1990, 1991), Porteous(1995) 등이 있는데, 주로 지역금융시장을 모델화하고,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다.

앞에서 문헌검토에서, Moore and Hill(1982), Dow(1987)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이 주변부지역 내에서도 중소기업·가계와 같이 국가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변부부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은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주변부 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의 차원에서의 주변부로 분류될 수 있는 중소기업·가계 등 제한적인 부문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균형결정 지표의 지역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균형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지역내부에서 작용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만족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한 국가 내에서 금융시장의 통합도가 높을 경우 지역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제한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역금융시장(regional financial market)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차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국가하위의 공간적 범위(subnational boundary)’의 차원에서 지역금융 시장을 정의하는데, 이에, 『지역금융시장』이란 ‘국가하위의 지역범위에서, 지역의 이자율이나 자금수급량·수급관계 등의 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국가 금융시장의 지표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시장’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역범위’는 거시경제변수들이 집계되고, 금융활동이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금융시장』은 『지역금융권』, 『지역금융활동권』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금융시장이 메카니즘적으로 통합되어 있더라도, 산업구조, 인구구성 등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경제변수의 차이에 의해 금융시장 균형결정 지표에서 지역간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역금융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의 지역금융시장 개념정의는 광의의 개념정의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술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의미와 유사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주변부(periphery)’의 차원에서 지역금융시장을 정의하는데, 이에, 『지역금융시장』이란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가격(이자율)과 수량(자금)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국가하위의 일정 지역·부문의 금융시장’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금융중심부(core)의 국가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분리·이탈되는 ‘주변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변부의 의미에는 공간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유형, 공급자의 유형과 같은 부문적인 차원도 포함한다. 즉, 이러한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에는 ‘일정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일정 부문’이라는 메카니즘적인 차원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융시장 균형결정 지표에서 지역간 차별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균형결정 메카니즘이 지역내부에서 작용한다는 상황이 동시에 만족될 때, 지역금융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번째의 지역금융시장 개념정의는 협의의 개념정의로 볼 수 있다.

지역금융시장의 분리는 중심부 국가금융시장과 금융거래 자체가 단절되거나, 금융거래에서 차별적인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결과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국가금융시장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단절된 고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한 지역 전체가 지역금융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국가금융시장과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역내의 경제주체 중에서 국가금융시장과의 접근과정에서 차별적인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주변부 부문에 한정하여 지역금융시장으로 정의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지역 간의 비교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지역경제변수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아울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 및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첫번째의 지역금융시장 개념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두번째 개념은 『지역금융시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흐름은 먼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사례연구에서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서는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서울을,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대구권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기 이전에 그 공간적 범위를 서울과 대구권으로 설정하는 것에 타당성을 첫번째 ‘국가하위의 공간적 범위(subnational boundary)’의 차원에서 정의한 지역금융시장 개념에서 찾았다. 즉, 첫번째의 지역금융시장 개념정의를 보면, 지역금융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대체적으로 금융활동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활동권에 해당하는 공간적 단위로는 지역중심도시와 그 배후지가 밀접하게 연계를 맺고 있는 권역 단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권의 경우, 지방중심지인 대구와 주변부인 경북이 하나

의 독자적인 지역금융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역금융시장의 사례로 대구권을 선정한 이유는 4절의 연구주제의 구체화를 통하여 살펴보고, 지역금융시장으로서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타당성은 4장의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의 검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²²⁾인 동시에, ‘국가하위의 공간적 범위’ 차원의 개념정의를 보면 하나의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으로서의 지역금융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사례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서울로 설정한 이유는 금융중심지의 특성을 살펴보는 지표에서 금융중심지의 특성이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또한, 4장의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의 검토결과에서 서울이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은 ‘주변부’ 차원의 개념에서는 국가금융시장(금융중심지)의 지위를, ‘국가하위의 공간적 범위’ 차원의 개념에서는 지역금융시장(금융활동권)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금융시장모델의 유형화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유형화한다. 지역금융시장의 모델을 유형화하는 것은, 첫째로,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되는 메카니즘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를 통하여 경험적 사례연구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고, 차별화되는 형태를 밝히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셋째로, 분석 결과를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기본적으로는 지역금융시장의 유형화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분석기준 및 유형화에도 적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금융시장 모델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

22)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지닌다는 사실은 이후의 3장, 4장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러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온 모델 중에서 본 사례연구의 틀을 정립하는데 적합한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1절에서는 지역금융시장 모델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모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Moore and Hill(1982), Harrigan and McGregor(1987), Dow(1987)의 모델에서 제시된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서론의 연구범위를 설정하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분석의 주 대상은 대출시장(loan market)이다. 대출시장은 대출자금(loanable funds)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자금의 공급자는 은행 등 대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고, 자금의 수요자는 기업 및 가계부문이다. 따라서, 대출시장의 균형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이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이자율)과 균형수량(대출금액)이 결정된다.

지역금융시장 모델은 크게 통합되었느냐 분리되었느냐에 따라 완전통합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다. 분리된 경우는 가격조정이 발생하느냐, 수량조정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형과 신용할당형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 성립되는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완전통합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지역간 자금흐름이 완전히 자유로와, 지역간 이자율 차이 및 자금불균형에 대한 完全 裁定去來(perfect arbitrage)가 이루어져,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에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자율 스프레드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지역간 자금흐름이 자유롭지 못하여 不完全 裁定가 발생하고, 불완전 재정의 결과로 지역간 利率差(interest spread)가 발생하는 경우, 즉 價格調整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가금융시장에 통합되지 못하는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는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지역간 불완전 재정이 발생하고, 불완전 재정의 결과로 이자율차 보다는 지역금융시장에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이 발생하는 경우, 즉 數量調整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역시 국가금융시장에 통합되지 못하는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넷째는 이자율 스프레드-신용할당 동시발생형 지역금융시장모델로, 이자율스프레드과 신용할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모델이다. 각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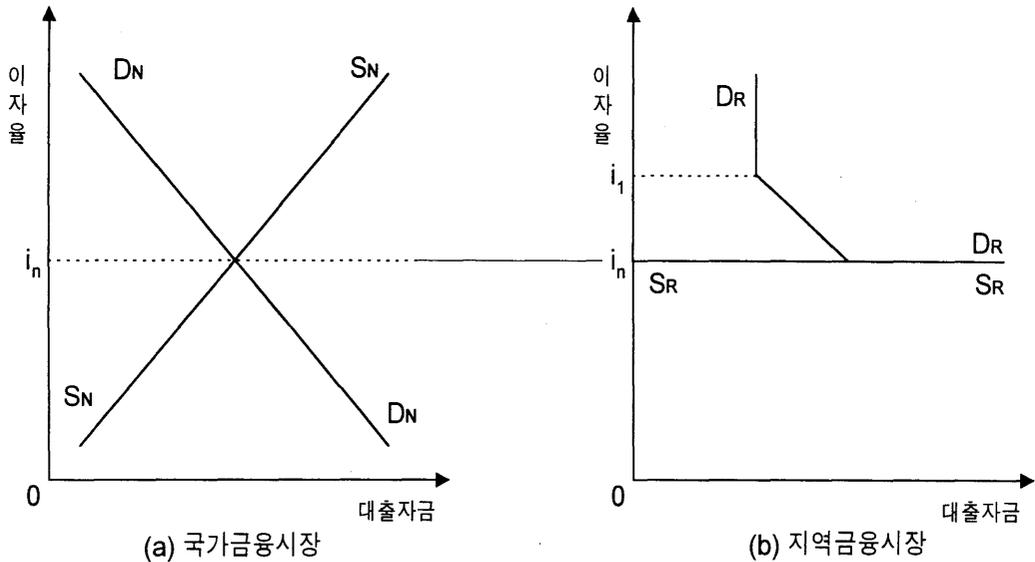
3.1. 완전통합형 지역금융시장모델²³⁾

먼저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에 완전히 통합된 모델이다.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에 완전 통합되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지역간 재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주변부' 차원에서 정의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지역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2-11]은 지역간 완전 재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좌측은 국가금융시장에서의 균형을, 우측은 지역금융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낸다.

지역금융시장의 공급곡선($S_R S_R$)의 형태는 (a)국가금융시장과 (b)지역금융시장 간에 완전 재정거래가 가능하므로, 국가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수준(i_n)에서 완전 탄력적이 되고, 따라서 수평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편 지역금융시장의 수요곡선($D_R D_R$)은 Harrigan and McGregor(1987)에서 제시한 형태를 적용하였다. 즉, ①지역에서는 이자율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자금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수직선 구간, ②이자율이 i_1 수준에 이르면,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우하향 곡선구간, ③이자율이 i_n 수준에 이르면 국가금융시장과의 완전재정 기회로 수요가 무한탄력적이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수평선 구간의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23)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을 두번째의 '주변부'의 차원에서 정의된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국가단위에서 완전통합될 경우, 지역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통합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라는 용어는 모순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역금융시장을 유형화하려는 연구의 흐름상 예외적으로, 첫번째 광의의 의미에서의 정의한 지역금융시장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림 2-11] 완전통합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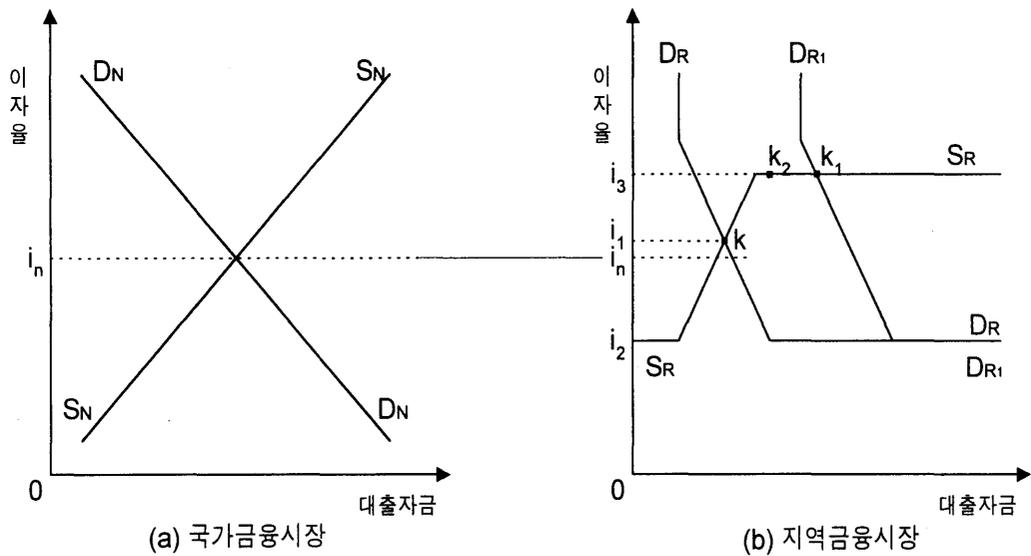
이에 따라 도출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은 이자율 i_n 수준에서 일정한 자금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간 완전 재정으로 국가금융시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금융시장에서는 유일한 균형점이 없으며, 균형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이자율 스프레드형 지역금융시장모델

둘째는 이자율 스프레드²⁴⁾(interest spread)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앞서 논의한 정보의 불완전성 등의 요인으로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역간 재정거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

24) 여러 연구 및 실무에서 보면, 이자율 스프레드(interest spread)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스프레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금리에 부가되는 가산금리 간의 차이를 스프레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간의 이자율 차이를 스프레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자율 스프레드(interest spread)로 정의한다.

간에 이자율 스프레드가 나타나는 형태로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되는 모델이다. 지역금융시장이 이자율 스프레드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지역금융시장에서 가격조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2]는 지역간 불완전 재정으로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 간에 이자율 차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그림 2-12] 이자율 스프레드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그래프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수요곡선은 (b)의 $D_R D_{R1}$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 2-11]의 수요곡선의 형태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완전 재정거래가 발생하는 수평구간이 국가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이자율 i_n 수준 아래인 i_2 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정보비대칭성,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재정거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여기서 $i_n \sim i_2$ 차이는 재정거래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등이 줄어들어 국가금융시장과의 통합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작아질 것이다.

한편, 지역금융시장의 공급곡선 형태는 $S_R S_R$ 곡선과 같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 i_3 보다 높아지거나 i_2 보다 낮아질 경우 국가금융시장에서의 완

전 재정기회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율이 i_3 와 i_2 수준에서는 공급곡선은 무한탄력적이 되어 수평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이자율이 $i_2 \sim i_3$ 사이에서는 공급곡선이 우상향의 형태를 띠게 된다. 수요곡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금융시장과의 통합도가 높아질수록 $i_n \sim i_2$, $i_n \sim i_3$ 차이는 작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은 [그림 2-12]의 k점이 된다. 이 때 균형이자율은 무한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도출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에 의하여 $i_2 \sim i_3$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k점의 경우는 균형이자율이 i_1 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영역은 이자율 $i_2 \sim i_3$ 범위내로 제한²⁵⁾된다. 재정비용이 줄어들 경우 그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국가금융시장에 완전통합될 경우 결국 [그림 2-11]과 같은 완전통합형 모델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3.3.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

셋째는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현행이자율 하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할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율조정에 의한 시장청산 대신에 비가격적 수단의 조정에 의하여 신용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손동진, 1993, p.18).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이 결정한 이자율에서 신용수요가 신용공급을 초과하는 현상(Cosci, 1993, p.7)을 말한다.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용진, 1992, p.21). 첫째는 국가가 균형이자율 이하의 수준에서 강제적으로 이자율을 규제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 신용할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타율적 신용할당이라 한다. 둘째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²⁶⁾(asymmetric

25) 다시말하면,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되어 이자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금융시장은 국가의 자본이동, 금융제도,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information)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합리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율적 신용할당이라 한다.

신용할당이론은 금융시장에서 만성적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요지는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이자율은 시장 균형이자율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다(전성인, 1996, p.175)는 것이다. 대출시장에서 차입자는 금융기관보다 자기의 신용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김응진, 1992, p.20)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신용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먼저 금융시장에서 事前的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의 신용(지불불이행)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높이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양호한 차입자는 차입을 기피하는 대신 위험이 높은 차입자는 고수익을 노리고 차입을 증가시키려 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의 인상으로 대출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逆選擇(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事後的인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 금융기관이 대출거래 이후 차입자의 행동을 충분히 감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때, 이자율의 인상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차입자로 하여금 이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하게 하는 道德的 弛緩(moral hazard)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사후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이완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인상시킬 경우 지불불이행 위험이 상승하여 금융기관의 이윤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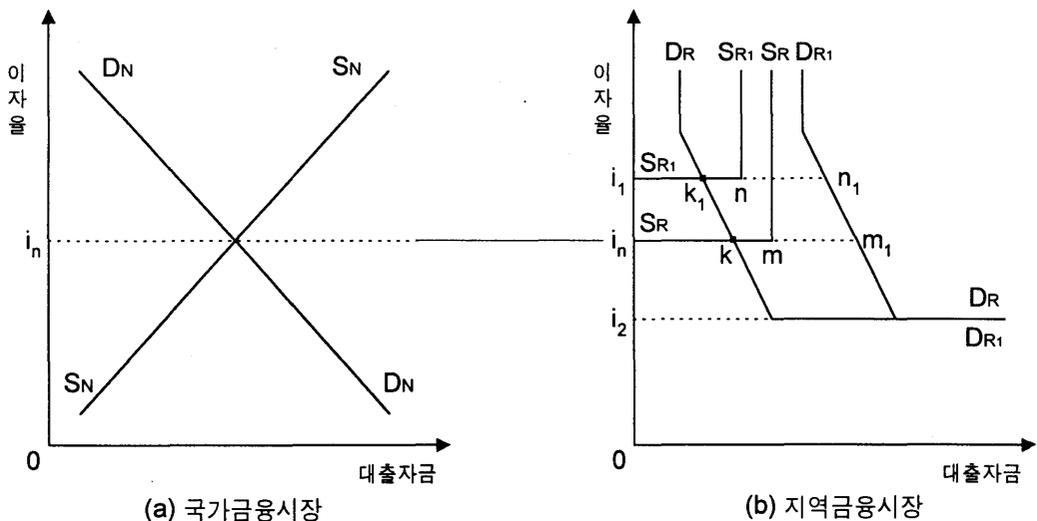
26)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차입자 보다 잘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7) 여기에 대한 내용은 Cosci(1993), Mattesini(1993), 최성환(1991), 김응진(1992)에서 주로 참고하였다.

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감수하더라도 이자율을 균형이자율 수준 이하로 낮추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신용할당은 결국 금융시장 불완전성을 수량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역차원에서 보면, 금융기관이 지역내부 차입자와 지역외부 차입자의 신용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발생할 경우,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점은행체제가 발달한 경우, 이자율의 차이는 지점망을 통하여 즉각적인 재정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간 이자율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가 보다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할당의 방법으로는 ①대출거부, ②대출한도 제약, ③담보대출 요구, ④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회수기간 단축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역간 재정거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결과, 신용할당의 형태로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되는 모델이다. [그림 2-13]은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그림 2-13]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의 균형

먼저, 지역금융시장의 수요곡선은 $D_R D_R$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그림 2-12]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이다. 한편, 지역금융시장의 공급곡선은 $S_R S_R$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즉 이자율이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 수준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수평의 형태를 지니지만, 자금공급자가 자금차입자에 대한 신용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공급은 일정한 수준에 제한되게 되고, 따라서 그 수준에서 공급곡선은 꺾이게 된다. 이 때 수요곡선이 $D_R D_R$ 일 경우 균형점이 k 가 되나, 지역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D_{R1} D_{R1}$ 이 될 경우 자금공급은 m 수준에서 제한되므로, $m \sim m_1$ 만큼의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하여 신용할당이 발생하게 된다.

3.4. 이자율 스프레드-신용할당 동시발생형 지역금융시장모델

넷째는 이자율 스프레드와 신용할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금융시장모델이다. 금융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이자율 스프레드와 신용할당이 지역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신용위험도가 높을 경우,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은 국가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에 지방의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이자율로 신용을 공급함과 동시에, 그 공급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2-12]에서 수요곡선이 $D_{R1} D_{R1}$ 이면서 공급곡선이 k_2 점에서 단절될 때, 이자율은 i_3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i_3 \sim i_n$ 만큼의 이자율 스프레드와 $k_2 \sim k_1$ 만큼의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그림 2-13]에서 수요곡선이 $D_{R1} D_{R1}$ 이면서 공급곡선이 $S_R S_{R1}$ 의 형태를 지닐 때, 이자율은 i_1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i_1 \sim i_n$ 만큼의 이자율 스프레드와 $n \sim n_1$ 만큼의 신용할당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지역금융시장 모델은 앞으로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분석의 틀이 된다. 따라서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위의 어느 모델이 우리나라 지역금융시장 구조를 가장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4.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

본 연구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과 그 경로를 밝히는 것은, 사례연구의 결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 이를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은 1절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금융시장의 메카니즘의 관점에서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추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을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 요인

구 분	발 생 요 인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구조 • 지역 경제주체의 유동성 선호도 및 위험 선호도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외부와 지역내부의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거래비용 (거래 고립도의 차이) •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 • 지역 경제주체의 신용도 • 연고주의적 경향

먼저,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는 기업, 가계인 만큼, 수요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산업구조 등의 부문적인 요인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자는 금융기관인 만큼,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

보의 비대칭성,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 등 금융기관의 행태와 관련된 요인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 산업구조의 차이, 지역 경제주체의 성향의 차이, 지역 경제주체의 신용도의 차이 등의 요인은 국가차원에서 완전통합된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경로에 의하여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할 경우,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거래비용의 차이, 지점경영자의 보수성, 지역 경제주체의 성향의 차이, 연고주의적 성향 등의 요인은 금융시장에서 지역내부의 경제주체(차입자)와 지역외부의 경제주체(차입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리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금융시장의 발생요인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거래비용의 차이 등 지역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위주가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지역금융시장의 유형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요인을 결정하는 것이 지역공급곡선의 형태와 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는 주로 지역공급곡선을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의 금융시장에서는 [표 2-3]에서 정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위의 요인 중에서 사례 금융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의 요인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지역내부와 외부의 경제주체를 분리시키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례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요인 및 경로를 찾는 작업은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제4절 연구주제 및 분석의 지표

4절에서는 서론에서 개략적으로 밝힌 2가지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들을 선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1장 서론의 문제제기 수준에서 밝힌 연구목적, 2장에서 구축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개념 및 모델화의 틀 속에서 고찰하여 적절하고 검토가능한 연구주제로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 연구주제의 구체화

1절의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또는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구 가능한 주제는 더욱 다양하다고 하겠다. 즉,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지, 그리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금융시장의 구체적인 공간적, 부문적 범위를 설정하는 연구, 금융정책 또는 금융변수들이 지역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시계열적으로 금융정책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금융시장과 지역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금융시장모델 및 지역모델을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주제로 한다. 이에, 연구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연구주제 1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연구

첫번째 연구주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지역적인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나타난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은 금융시장의 균형결정 지표의 지역간 차이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자금집중도, ③신용할당, 이상 3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금융시장의 균형결정과정에서, 가격조정에 의한 차이는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를 통해 반영되고, 수량조정에 의한 차이는 지역간 자금집중도나 신용할당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의 3가지 기준에 대하여, 현실적인 자료의 구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이러한 분석지표들을 통하여 지역적 차이를 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여부 및 그 유형과 정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 범위가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연구주제 1>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는 대출금에 대한 지역별 통계자료와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자인 대출금융기관에서 지역별로 집계된 내부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검토한다.

여기서 분석을 위한 지역의 구분은 서울과, 인천/경기, 부산권, 대구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및 금융활동권의 단위가 지역금융중심지와 주변지역이 묶이는 권역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권역은 지방은행의 영업구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을 별도로 분리한 것은 금융의 측면에서 서울은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사실은 서론에서 자금의 지역별 집중도, 어음부도율 등의 지표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3장과 4장의

사례연구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 차별성 비교는 서울과 나머지 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3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 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3장의 연구분석은 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는 만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3장의 결론은 <연구주제 2>의 사례연구와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1.2. 연구주제 2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

두 번째 연구주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차별성이 나타나는 경우 그 요인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례연구를 통하여, 먼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통합된 금융시장 하에서의 지역경제변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균형결정 지표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가 필요한데, 이에, <연구주제 2>에서는 서울과 대구권(대구·경북)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여, 설문자료, 인터뷰자료 등과 같은 1차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다. 즉, 설문자료를 통하여는 규모·업종변수를 통제한 상

태에서 지역적 차별성의 발생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인터뷰자료를 통하여는 설문조사에서 밝힐 수 없는 차별성의 발생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 2>의 경우, 사례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가금융시장과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례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서울은 중심부의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대구권은 주변부의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을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금융시장에서의 균형결정 메카니즘은 자금거래량이 많아서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중심지에서 비롯되는데, 이에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지역적 범위가 서울로 나타나기 때문²⁸⁾이다.

다음으로 대구권을 지방금융시장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역금융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대체적으로 거시경제변수가 집계되는 금융활동권의 범위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활동의 행태를 볼 때, 금융활동권의 범위가 지역중심도시와 주변부가 묶이는 道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지역경제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연구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지역단위를 사례연구 지역으로 설정하는 경향²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권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경제권으로서 지역내에 산업과 금융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서울과 비교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둘째는 대구권지역의 산업구조가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산업 등의 요인을

28) 이러한 사실은 앞의 <연구주제 1>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밝힌 바와 같다.

29) 예를 들면,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를 보면 보통 州(state)단위로 연구지역을 설정하고 있고, 영국을 사례로 한 연구를 보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정도의 지역단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사례연구도 province를 연구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지역단위로 지역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이 권역으로 묶이는 道 단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구권(대구/경북)을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사례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의 비중 및 위치를 감안하여 업종을 섬유, 전자, 건설업으로 제한하였는데, 대구권지역은 이들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문헌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금공급자로서 전국형 은행과 지방은행 간에는 금융행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구권에는 지방은행 중에서 대출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에의 밀착도도 큰 것으로 알려진 대구은행이 있기 때문에, 전국형 은행과 지방은행과의 행태를 비교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며, 아울러 대구은행의 주 영업구역이 대구·경북지역이기 때문이다.

<연구주제 2>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이자율 스프레드와 ②신용할당, 이상 2가지 기준³⁰⁾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간의 차별성이 지역금융시장에서의 가격조정(지역간 이자율의 스프레드)이나, 수량조정(지역간 차별적인 신용할당) 메카니즘에 의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는 3절에서 유형화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4가지 모델, 즉, ①완전통합형, ②이자율 스프레드형, ③신용할당형, ④이자율 스프레드-신용할당 동시발생형 지역금융시장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는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 2>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 여부 및 그 특성을 검토한다. 4장의 결론은 <연구주제 1>를 통하여 도출되는 잠정적인 결론과 종합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분석의 지표

다음으로, 구체화한 연구주제에 가장 적절한 지표들을 선정한다. 연구주제에

30) 여기서 <연구주제 1>에서 포함시킨 '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별성' 기준은 지역금융시장의 메카니즘에서의 차별성과 관련있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주제 2>에서는 제외시켰다.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주제 1>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는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자금집중도, ③신용할당을 채택하였고, <연구주제 2>의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①이자율 스프레드와 ②신용할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주어진 자료의 제약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준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한다.

2.1. 이자율 스프레드의 지표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자율을 지역별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에는 이자율을 지역별로 집계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대출이자율 자료를 직접 구득하여,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구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자율 스프레드의 검증지표는 [표 2-4]와 같다.

[표 2-4] 이자율 스프레드의 검증지표

분 석 지 표	자료의 유형	비 고
금융기관의 지역별 실행금리 비교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지역별 기업의 실세금리 비교	설문자료	4장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 분석	인터뷰자료	4장

3장의 <연구주제 1>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별 실행금리를, 4장의 <연구주제 2>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시의 실질부담금리³¹⁾를 주요 분석지표로 사용하는데,

31) 여기서 실질부담금리란, 금융기관과의 표면적인 계약에서 부담하는 실행금리에

그 이유는 각각의 검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2.2. 신용할당의 지표

신용할당은 현실에서 실현된 대출자금과 실제 대출수요의 차이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수요곡선 및 시장균형점을 추정해야 하는 만큼, 신용할당의 크기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즉, 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신용할당의 존재와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자율 수준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직접적인 정보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신용할당의 존재를 측정하고 있다(손동진, 1993, p.29).

신용할당에 대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방식, 대용변수(proxy variable)방식,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구조모형의 추정,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손동진, 1993, p.29). 신용할당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구조모형이 가장 적합한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구조모형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스위칭회귀모델(switching regression model)이 있다. 스위칭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신용할당을 분석한 연구로는 미국과 일본의 신용할당의 정도를 비교한 Ito and Ueda(1991)의 연구, 캐나다의 지역별 신용할당 차별성을 연구한 Porteous(1995)의 연구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례로는 전술한 손동진(1993)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위칭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별성을 검증하려면, 거시경제변수³²⁾에 대한 시계열적인 지역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구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양건성예금 등에 의한 금리상승분을 감안한 수준을 말한다.

32) 스위칭회귀모델에 사용되는 거시경제변수들은 대부분 국가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집계되고 있는 경우는 몇몇의 연방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따라서 스위칭회귀모델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단위의 신용할당 여부를 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며, 이를 지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몇몇의 국가에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신용할당과 관련된 다수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신용할당의 검증지표는 [표 2-5]와 같다.

신용할당의 지표는 먼저 금융시장에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신용할당의 방법과 관련하여 설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할당의 방법에는 대출한도제약, 담보대출의 요구(신용대출 축소), 유동성 선호 등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과 관련하여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지표는 신용할당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표를 검증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2-5] 신용할당의 검증지표

구분	분석지표	자료의 유형	비고
금융시장 접근도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 경로분석	인터뷰자료	4장
담보대출 관련	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통계자료,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기업자금조달시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비율	설문자료	4장
	지역별 기업의 애로사항 비교	설문자료	4장
대출제한 관련	지역별 기업의 은행대출신청에 대한 실제조달 비율	설문자료	4장
유동성 관련	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신용평가 관련	여신심사·신용평가 경로분석	설문자료, 인터뷰자료	4장
기타	지역별 대출금 비율과 실질금리와의 상관관계	통계자료	3장

2.3. 자금집중도의 지표

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별성에 대한 지표는 [표 2-6]과 같다. 지역간 자금집

중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출금 비율을 지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력(생산력)에 비하여 금융자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해 있는가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하여 지역별로 금융시장의 접근가능성의 차이를 밝히려 한다.

[표 2-6] 자금집중도의 검증지표

분 석 지 표	자료의 유형	비 고
지역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금 비율	통계자료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2.4. 지역금융시장의 특성에 대한 지표

다음으로, 지역금융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표는 [표 2-7]과 같다. 이러한 지표들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발생경로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그리하여 지역금융시장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표 2-7] 지역금융시장의 특성에 대한 지표

분 석 지 표	자료의 유형	비 고
지역별 금융기관별 대출금 비율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지역별 금융기관의 대출주체별 대출금 비율	금융기관 내부자료	3장
지역별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설문자료	4장
지역별 기업 자금조달유형별 조달지역	설문자료	4장
지역별 기업의 자금조달 우선순위	설문자료	4장
지역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설문자료	4장
지역별 기업의 구매 및 판매연계	설문자료	4장
금융기관 및 기업 사례비교	인터뷰자료	4장

제 3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주제인 우리나라 전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및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특성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를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주제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다. 즉,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의 금융시장 균형결정 지표에 대한 차별성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나타난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4장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 1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추이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구조가 형성된 것은 대체적으로 1960년대의 경제개발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에 따라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었고,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러

1) Park Y. C. (1993)의 연구에서는 근대적인 금융제도의 정립을 멀리 일제 강점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정책의 기초 및 금융환경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금의 가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부족한 투자자금의 배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개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경제개발의 우선정책은 중화학산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금배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부가 금융부문에 강력하게 개입하게 된 것이다(Park Y. C., 1993, p.142). 이러한 정책개입의 수단으로써 균형수준 이하의 저금리정책, 직접적 신용규제와 선별적 신용통제(정책금융이 대표적) 등의 방법(손동진, 1993, p.18)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의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970년대 금융시장 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私金融市場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출현이었다. 특히, 1972년 8·3조치로 대표되는 사채거래 동결조치는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리면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아, 실세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출현은 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적 조절에 한계(즉 사금융시장 발달)를 느낀 정부에서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은행권과 사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교량역할을 필요로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금융시장 구조의 대표적인 변화는 금융자율화의 진전이다. '80년대 금융자율화의 주요 추진내용은 첫째, 직접규제방식에서 은행의 자율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간접규제방식으로의 변경, 둘째, 금리자율화를 통한 규제금리와 시장 실세금리 간의 격차의 축소, 셋째, 금융산업에의 진입제한 완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자율화로 비로소 제한적이거나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책정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이하의 논의는 Park Y. C.(1993), Park Y. C.(1994) 박영철(1988), 박영철, 김병주, 박재운(1986), 장충식(1994)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1990년대 금융시장 구조의 대표적인 변화는 금융자유화의 심화 및 금융시장 개방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을 위한 방편으로서 추진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책금융의 축소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국내 기업이 직접 외국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금융시장의 개방 경향은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규제금융적 성격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추이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의 특징

앞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추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첫째는 규제금융, 관치금융의 성격이 강하여,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자율 규제, 은행의 대출자금 배분에의 개입과 같은 규제는 물론,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금융서비스의 유형 및 금융상품의 종류까지도 통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율적 메카니즘보다는 정책에 의한 왜곡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는 간접금융 또는 중개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시장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은 여타 구미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나 중요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미하다. 이러한 간접금융시장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은행지향적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3) 여기에 대한 내용은 Park Y. C.(1993)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여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 내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금의 공급자(저축자)들이 간접금융기관을 더 선호하였다는 점⁴⁾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대출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출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시장의 지역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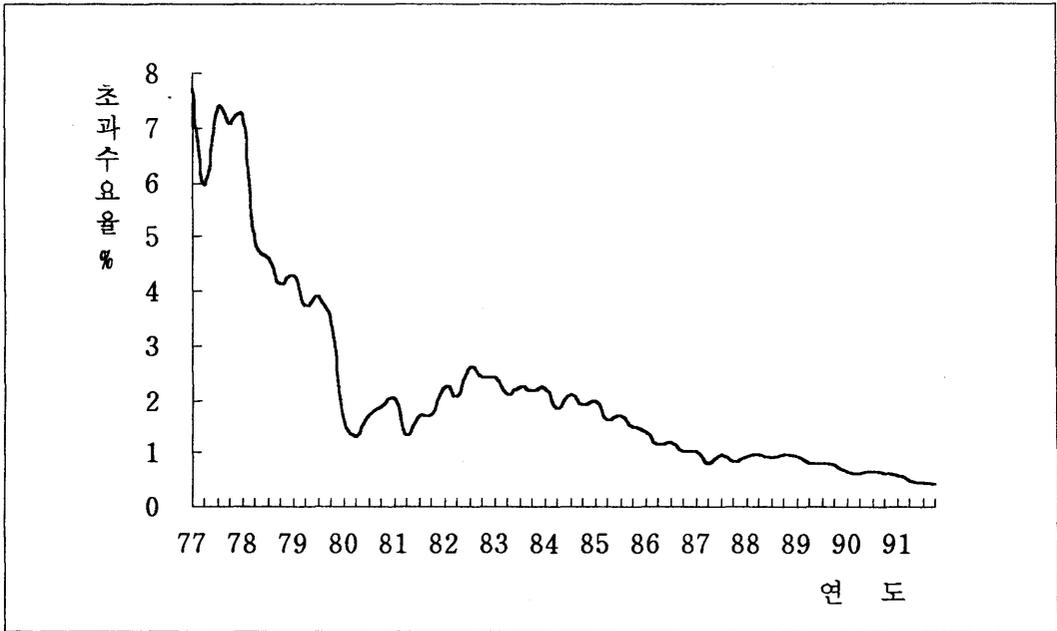
셋째는 금융의 구조와 산업의 구조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을,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우선산업 위주로 여신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공업, 내수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구조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육성산업이 특화된 지역과 사양산업이 특화된 지역간에,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역시 관치금융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대출금리(특히 은행대출금리)문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시장청산과정을 통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균형금리 수준 이하로 낮게 책정하는 저금리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러한 저금리정책은 결국 공식금융시장에서 지속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유발(최장봉, 1990, p.2)시켰는데,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손동진(1993)의 연구를 통해 잘 나타난다. 손동진(1993)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

4) 즉, 직접자본시장에서는 저축자들이 수요자의 신용을 직접 평가하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간접금융시장은 원리금의 상환을 공신력있는 은행이 보장해 줌으로써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금융시장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스윙칭회귀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77년~1991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은행대출시장에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기업부문에서의 신용할당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그림 3-1]과 같은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시계열을 통하여 초과수요율이 양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에서 지속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의 성격을 살펴보면, 저금리정책에 의해 자금의 초과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의 兩建性預金(compensatory deposit)의 요구, 담보위주의 대출 등이 관행화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신용할당의 성격 역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손동진(1993) p.47의 표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그림 3-1] 금융시장의 초과수요율 (제조업 전체)

한편, 초과수요율의 추이를 보면, 초과수요율이 '80년대 초반까지는 격감하다

가 이후에 '83년까지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83년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은행대출시장에서 초과수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초과수요율의 이러한 변화과정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재편(restructuring)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초과수요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은 고임금, 고금융비용, 저임금 노동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신흥공업국(NICs)에서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나기 시작(Park S. O., 1994)한 때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기업들은 입지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화를 통해서도 고임금, 고금융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Park S. O., 1995, p.158)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러한 해외산업 이전은 '80년대 초반에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졌고, '8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상당수의 해외직접투자가 '90년대에 이루어졌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기업은 해외에서 현지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내 자금수요를 그만큼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금융시장에서 초과수요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직접금융시장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은 그만큼 은행 자금수요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대출시장의 초과수요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80년대 후반이후의 금리자유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대출시장의 금리자유화로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를 줄어둠에 따라 초과수요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관치금융적 성격에 의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과, 산업구조재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은행대출시장의 초과수요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울러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제2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동안 만성적인 자금의 수요초과를 보여왔고,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금융자율화의 경향과 자금조달원의 다각화, 산업구조 재편 등의 요인으로 초과수요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를 검토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간접금융시장이 지배적인 만큼, 대출시장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를 개관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을 금융기관별로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⁵⁾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은행의 경우 시장 균형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금을 공급하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시장 균형금리를 반영한 수준의 대출금리로 대출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행태 및 구조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자율 및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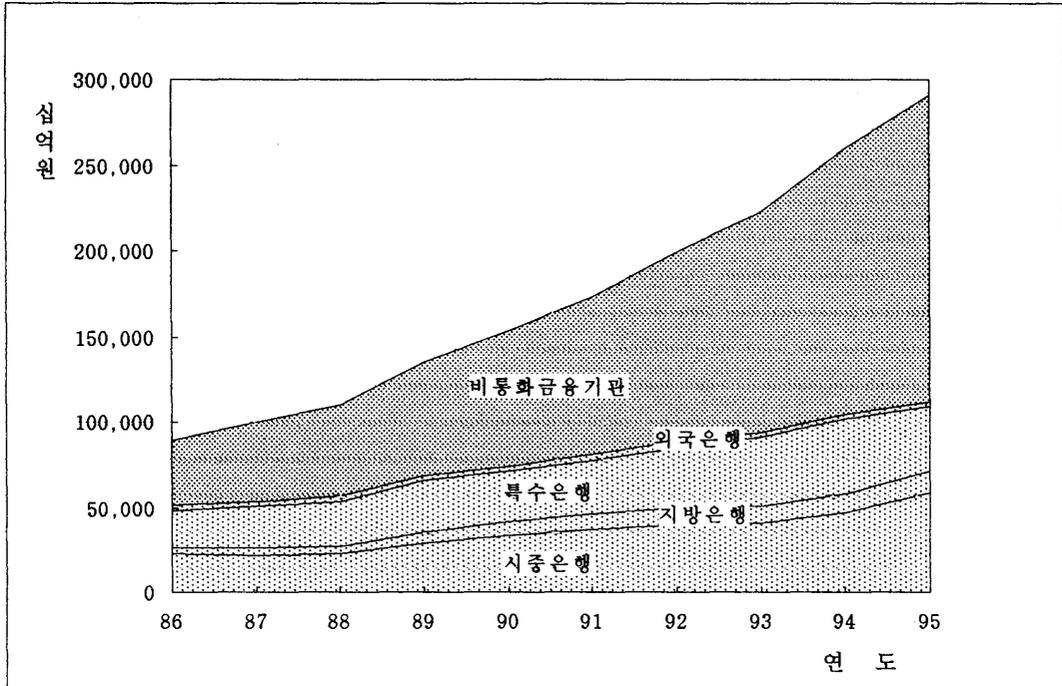
분석기간은 예금은행의 경우 1984년부터 1995년까지 12년간, 비통화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전체의 경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이다.

1. 금융기관별 대출금 추이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출금이 어떠한 추이를 보여왔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86년부터 '95년까지이고, '90년 불

5) 원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대출금의 분류를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누고 있는데, 은행의 신탁계정을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은행의 신탁계정은 그 성격 및 금리운용체계가 제2금융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통화금융기관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각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출금의 추이는 [그림 3-2]와 같다.



주 : 199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한국은행 내부자료.

[그림 3-2] 금융기관별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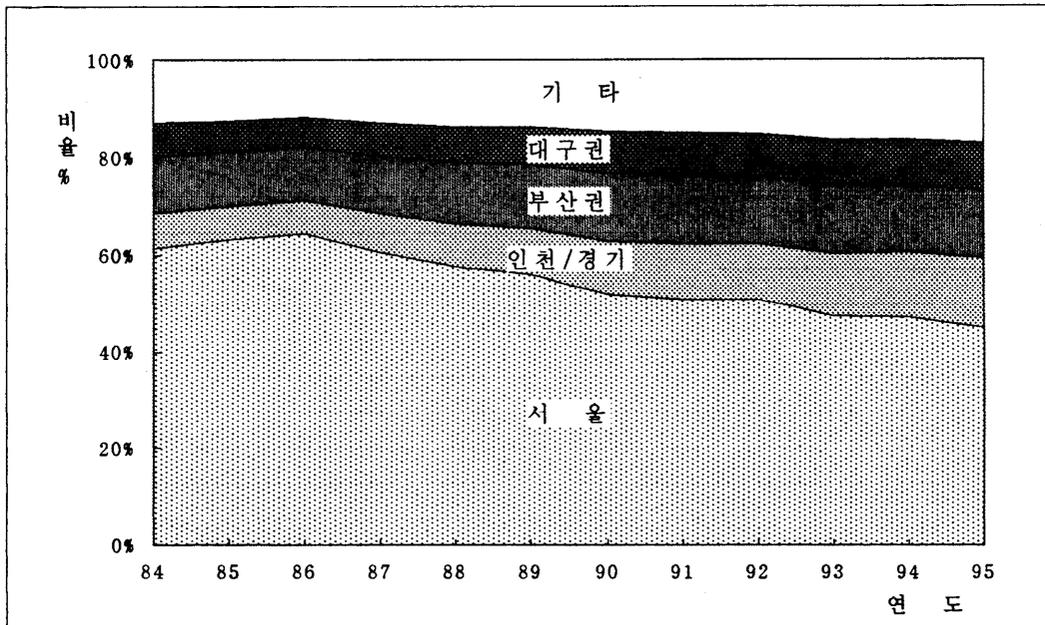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출금은 '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86년에서 '95년까지 연 평균 14%의 성장을 보여왔다.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의 상승폭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년 43%에서 '95년 62%에 이른다. 이는 '70년대말 이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출현하여, 차입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금리자유화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금리차이가 줄어든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예금은행권 내에서 보면, 각 유형별로 절대적인 금액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대적인 비율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경우, 예금은행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전국형 은행이 지배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84년 8%, '95년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비율에서는 약간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금융기관별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2.1. 예금은행 전체의 추이

예금은행 전체의 지역별 대출금 추이를 보면 [그림 3-3]과 같다. 예금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그림 3-3] 예금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첫째는 대출금의 서울집중이다. 서울의 대출금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의 약 45%~64%를 점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했는가는 지역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과의 비교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표 3-1]를 보면, 전국대비 서울의 GRDP비율은 대체적으로 24~26%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서울은 생산력보다 자금의 집중율이 2배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

[표 3-1] 지역별 GRDP 비중 (199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	대구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전국
1985	25.2	17.6	19.2	11.4	11.9	9.8	3.9	1.0	100
1990	26.3	20.4	18.7	10.9	10.9	8.8	3.0	1.0	100
1994	24.9	22.1	18.2	10.8	11.2	9.2	2.6	0.9	100

자료 : 통계청, 1996, 지역내총생산.

둘째는 서울의 대출금 비율이 '84년 61%에서 '95년 44%로 지속적으로 하락⁷⁾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점차적으로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대구권 역시 '84년 6.8%에서 '95년 9.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서울에서 자금조달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직접금융시장이나 해외로 자금조달원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⁸⁾이고, 둘째는 은행의 지방지점망이 확충됨에 따라 지방의 사금융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95년 현재까지도 서울에의 대출금 집중의 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6) 보다 자세한 분석은 3절의 1.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별성 검증에서 검토한다.
- 7) 물론 절대적인 금액은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승하고 있다.
- 8) 앞서 1절에서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초과수요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산업구조재편과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을 들었다. 이를 예금은행의 지역별 대출금 추이와 연관시켜 볼 때, 초과수요율의 변화가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수도권 외곽지역인 인천/경기지역의 대출금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대출금의 집중이 서울에서 수도권지역으로 광역화된다는 점이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대출금의 비율이 '84년 6.9%에서 '95년 14.5%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동 기간에 GRDP비율이 17.6%에서 22.9%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인천/경기지역으로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 전체를 볼 때에는 대출금의 점유비율은 1984년 71%에서 1995년 59%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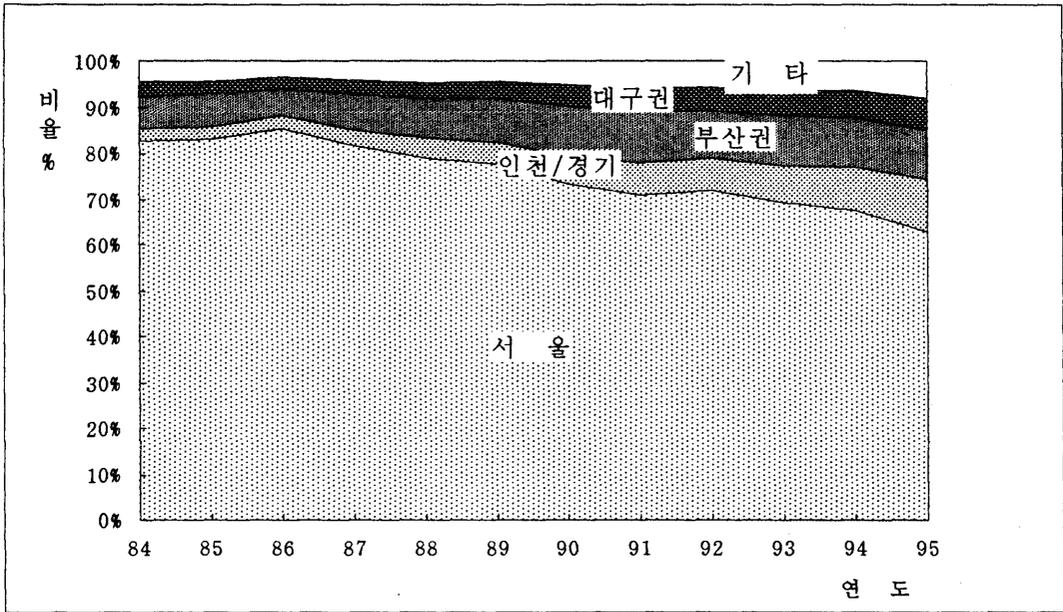
2.2. 은행유형별 추이

예금은행의 대출금의 지역적 구조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은행 유형별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으로 세분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유형별로 대출금의 지역별 추이 및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추이는 [그림 3-4]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지역별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의 대출금 비율이 '84년 82.7%에서 '95년 62.6%로 변화하고 있는데, 따라서 대출금의 서울 집중도가 예금은행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 서울의 대출금 비율의 하락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 비율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인천/경기 지역인데, 대구권을 포함한 나머지지역 역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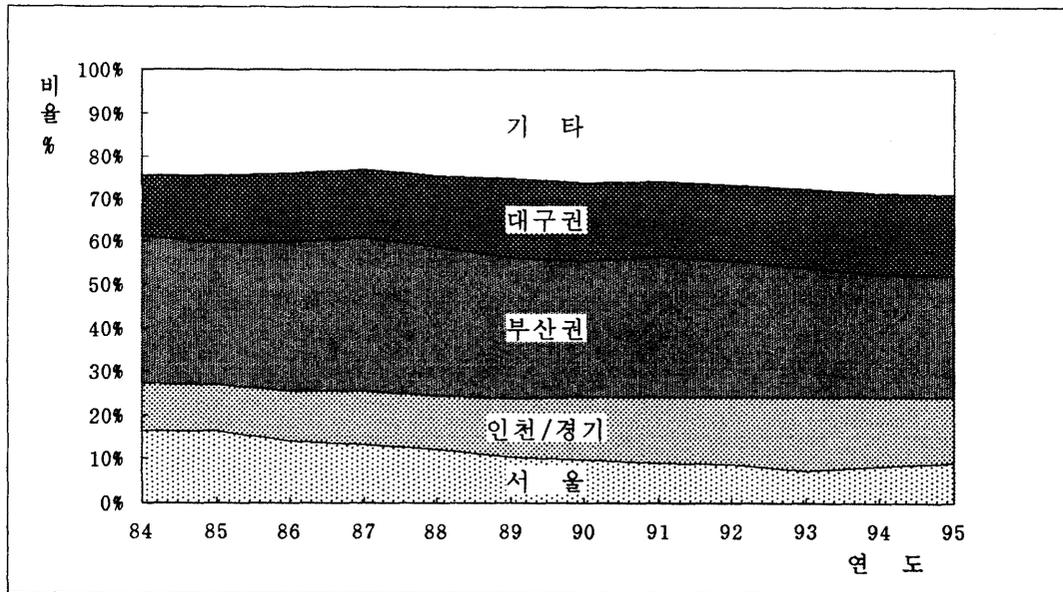
지방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추이는 [그림 3-5]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지역별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형 은행의 경우와 달리 지방은행 대출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권, 대구권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 지역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의 활동이 가장 큰 것⁹⁾을 반영하고 있다.

9) 부산권의 대출금 비율이 대구권보다 높는데, 이는 부산권에는 지방은행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2개소가 있는 반면, 대구권에는 대구은행 1개소만 있기 때문이다. 단일 지방은행으로는 대구은행의 대출금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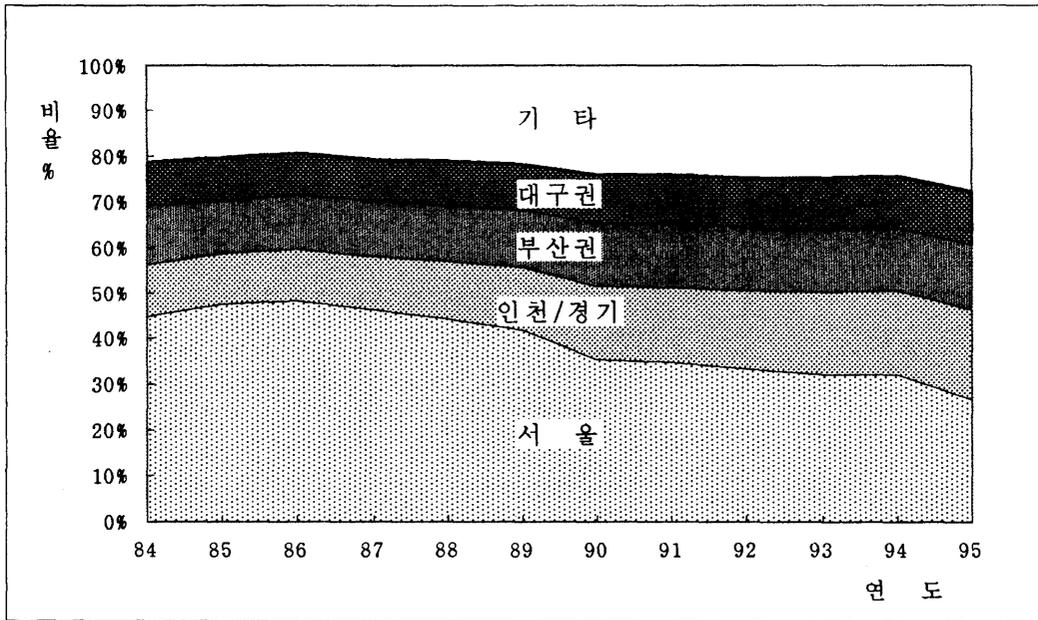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

[그림 3-4] 시중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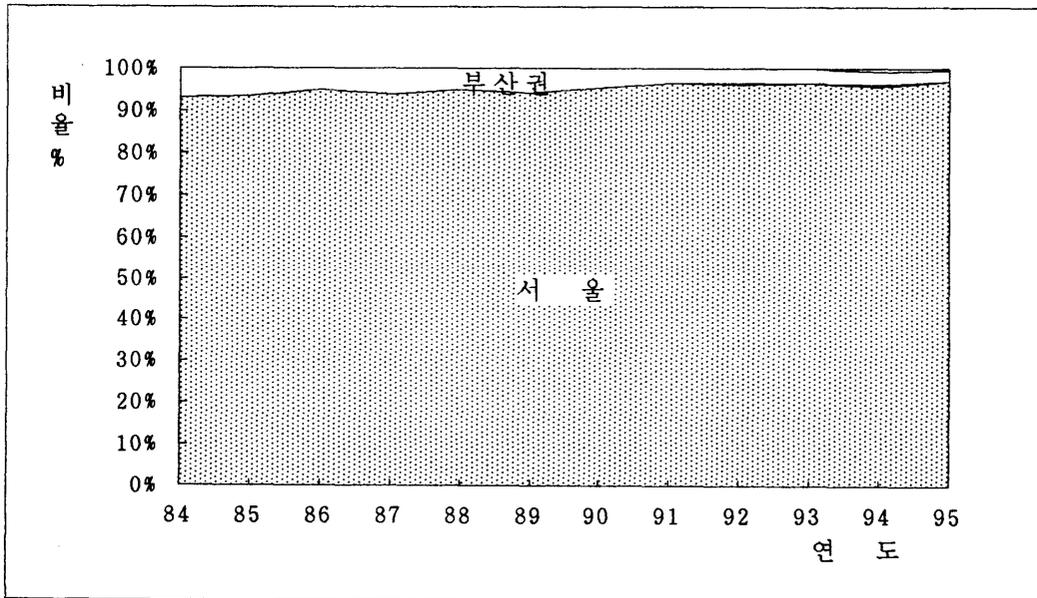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

[그림 3-5] 지방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

[그림 3-6] 특수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

[그림 3-7] 외국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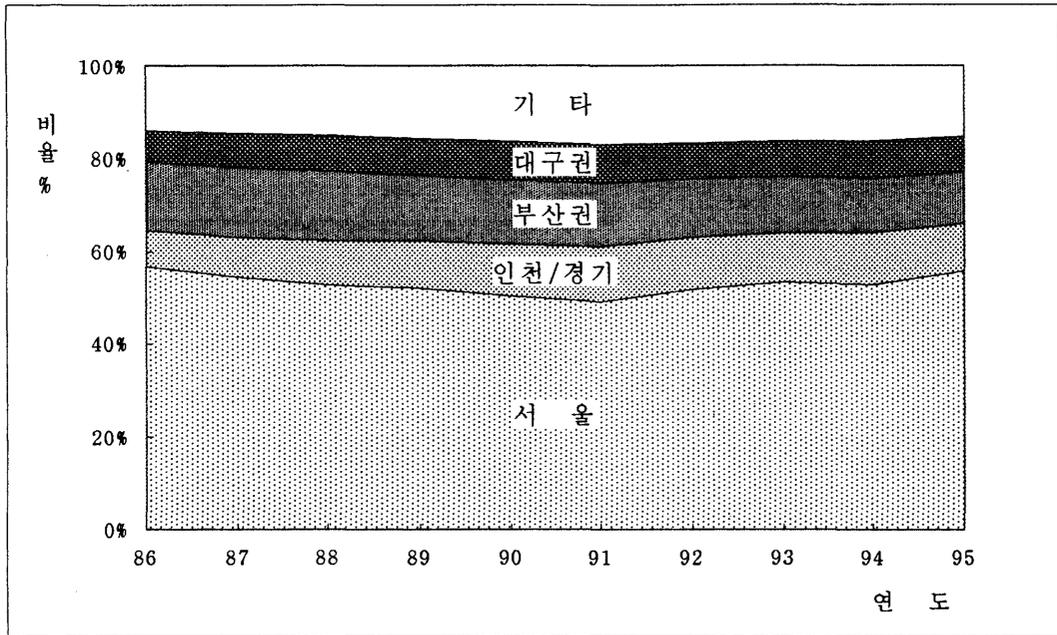
지역별 비율의 등락폭을 비교해 보면, 서울, 부산권, 제주지역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천/경기, 대구권 등 나머지 지역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구권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금에서 지방은행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 정도로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수은행에는 주택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는데, 특수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추이는 [그림 3-6]과 같다. 지역별 대출금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대출금 비율이 '84년 45%에서 '95년 27%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그 집중도가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비율의 하락폭도 상당하다. 나머지지역의 경우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인천/경기지역의 비율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외국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추이는 [그림 3-7]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역별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은행 대출금이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년 6%에서 '95년 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별 대출금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대출금 비율이 전 기간을 통하여 90%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뚜렷한 서울 집중현상을 볼 수 있다. 나머지지역의 경우, 부산권, 인천/경기, 대구권에서만 외국은행 대출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구권의 경우 94년에야 비로소 외국은행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비통화금융기관의 추이

비통화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금 분포추이는 [그림 3-8]과 같은데,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략적인 경향으로 볼 때 비통화금융기관의 추이는 앞서 예금은행에서 분석한 경향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그림 3-8]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첫째, 대출금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금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향이거나, 시계열적인 추이를 살펴볼 때 서울의 대출금 비율은 '90년대 초반까지는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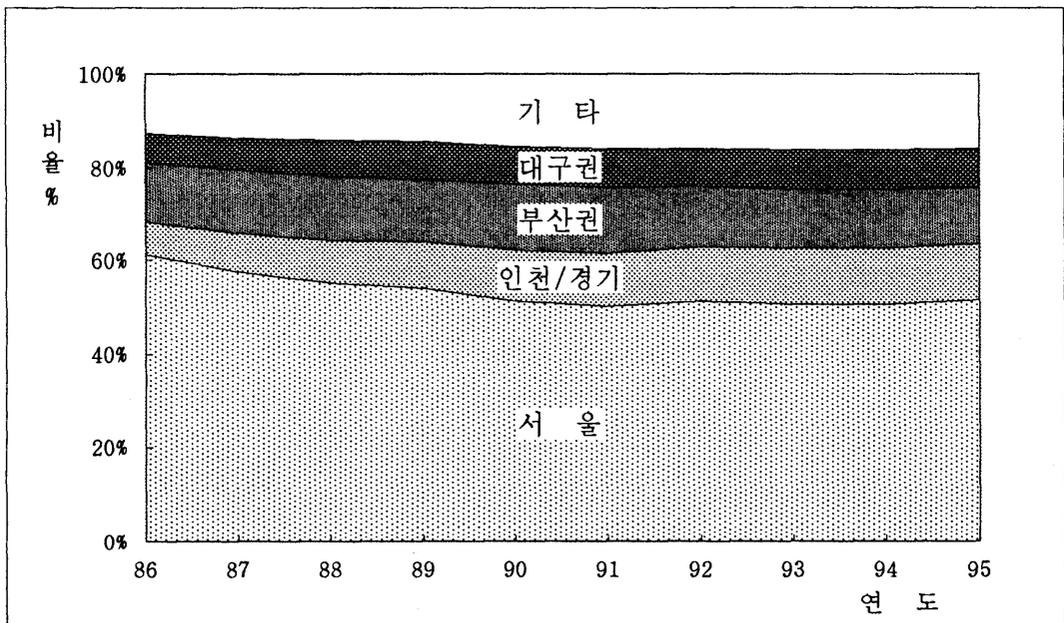
둘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예금은행의 경우처럼 대출금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없다. 다만 '86년과 '95년의 대출금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인천/경기, 대구권은 비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권, 충청권은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는 비율이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예금은행의 경우처럼 비율의 급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구권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는 비율이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한다.

한편, '95년도를 기준으로 예금은행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과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나머지지역은 예금은행 대출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은행 신탁, 투자신탁 등 신탁자금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2.4. 금융기관 전체 추이

예금은행의 대출금과 비통화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합한 금융기관 총 대출금의 지역별 추이는 [그림 3-9]와 같은데, 지역별 추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그림 3-9]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지역별 비율의 추이

금융기관 전체의 지역별 대출금 추이의 특징은 앞에서 분석한 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의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의 변화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비율의 변화 없이 5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표 3-1]의 GRDP의 지역별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자금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금의 지역별 집중도와 금융기관 본사의 분포 등을 통해서 볼 때,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사례 지역인 대구권의 경우를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 '90년 이후로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은 예금은행의 비율의 상승과 비통화금융기관 비율의 하락이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대출주체별 대출금의 지역별 분포

한편, 지역별 대출현황을 자금수요자인 차입자 즉 대출주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별 대출금 현황을 다시 대출주체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금융시장의 지역별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3절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출주체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대출금을 취합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취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 금융기관 내부에서 집계된 자료를 구득하여,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금융기관 유형은 크게 은행(전국형 은행,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보험회사) 각각 1개소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기관¹⁰⁾이다.

자료의 구조는 대출주체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기타로 구분하여, 이를 지역별로 취합하였다. 분석범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은 '94년, '95년 2개년간 자료

10) 시중은행의 사례로는 전국적 규모의 5대 시중은행 중의 하나를 선정하였고, 지방은행의 사례로는 연구의 사례지역이 대구권임을 감안하여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방은행을 선정하였고, 제2금융권의 사례로는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대표적인 보험회사를 선정하였다.

를, 보험회사는 '93년~'95년 3개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금융기관 유형별로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은 [표 3-2]~[표 3-4]와 같다.

여기서, 본 자료는 개별금융기관의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의 절대적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에 각 연도의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지역별 대출주체별로 이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하였다. [표 3-2]~[표 3-4]에서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지역별 대출주체별로 이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값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¹¹⁾값이다.

먼저 시중은행의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은 [표 3-2]와 같은데, 지역별 대출금 현황은 주로 입지계수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지역별 입지계수를 보면, 대기업 대출의 경우, 서울의 입지계수가 '94년, '95년 모두 1이상의 값이, 경기도는 '95년 1이상의 값이, 나머지지역은 1이하의 값이 도출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산권, 대구권, 경기, 호남권, 충청권 등 주로 지방에서 1이상의 값이 도출되었다. 가계의 경우, 강원, 제주, 전북 등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1이상의 값이 도출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주로 공공(정부)에 대한 대출인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타대출이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대출주체별로 볼 때 대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중소기업·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은행의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표 3-3]과 같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영업구역이 대구/경북지역과 특별시,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대출금은 대구/경북지역에 90% 가량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 인천, 부산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에 입지계수를 통하여 지역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입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LQ_{ij} = \frac{\frac{i\text{지역 } j\text{대출주체의 대출금}}{\text{전체지역 } j\text{대출주체의 대출금}}}{\frac{i\text{지역 총 대출금}}{\text{전체지역 총 대출금}}}$$

[표 3-2]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시중은행)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기타	계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기타	계
수도권	서울	1,912	2,520	847	50	5,329	1,409	2,760	902	37	5,108
		1.16	0.94	0.88	1.18	(53.3)	1.07	1.01	0.88	1.41	(51.1)
	인천	102	177	91	12	383	97	185	91	9	381
	경기	0.86	0.92	1.32	4.05	(3.8)	0.98	0.91	1.18	4.46	(3.8)
		246	492	145	0	883	294	630	173	0	1,097
	부산	0.90	1.11	0.90	0.00	(8.3)	1.04	1.07	0.78	0.00	(11.0)
		263	534	159	17	973	245	470	245	6	965
부산권	경남	0.88	1.09	0.90	2.23	(9.7)	0.98	0.91	1.26	1.14	(9.7)
		161	342	105	0	608	140	303	131	0	574
	대구	0.86	1.12	1.18	0.00	(6.1)	0.94	0.99	1.13	0.00	(5.7)
		121	256	82	0	459	118	249	91	0	457
대구권	경북	0.86	1.11	0.98	0.00	(4.6)	0.99	1.02	0.98	0.00	(4.6)
		73	183	70	0	327	79	189	79	0	347
	광주	0.73	1.12	1.18	0.00	(3.3)	0.88	1.02	1.13	0.00	(3.5)
		50	111	38	0	199	48	108	55	0	211
호남권	전남	0.81	1.11	1.06	0.00	(2.0)	0.88	0.96	1.28	0.00	(2.1)
		45	126	70	0	241	43	132	51	0	227
	전북	0.61	1.04	1.50	0.00	(2.4)	0.73	1.09	1.13	0.00	(2.3)
		23	57	59	0	139	22	54	41	0	116
	대전	0.54	0.82	2.33	0.00	(1.4)	0.72	0.87	1.74	0.00	(1.2)
		38	88	45	0	171	37	95	45	0	177
충청권	충남	0.72	1.03	1.45	0.00	(1.7)	0.82	1.00	1.25	0.00	(1.8)
		22	55	29	0	106	26	74	25	0	124
	충북	0.67	1.04	1.50	0.00	(1.1)	0.80	1.11	0.99	0.00	(1.2)
		15	38	23	0	75	17	50	35	0	102
	강원	0.63	1.00	1.68	0.00	(0.8)	0.65	0.92	1.68	0.00	(1.0)
		11	32	37	0	81	13	34	37	0	84
	제주	0.46	0.78	2.57	0.00	(0.8)	0.59	0.76	2.18	0.00	(0.8)
		4	10	12	0	26	4	11	18	0	32
	전국	0.47	0.77	2.58	0.00	(0.3)	0.45	0.63	2.71	0.00	(3.2)
		3,086	5,021	1,813	79	10,000	2,590	5,344	2,015	51	10,000
		(30.9)	(50.2)	(18.1)	(0.8)	(100)	(25.9)	(53.4)	(20.1)	(0.5)	(100)

주 :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것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값임.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 해당항목의 비율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표 3-3]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지방은행)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기타	계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기타	계
수도권	서울	113 3.27	393 0.90	35 0.70	0 0.00	540 (5.4)	182 5.08	461 0.79	70 1.03	0 0.00	713 (7.1)
	인천	2 1.44	19 1.07	1 0.40	0.00	22 (0.2)	8 1.98	75 1.07	2 0.23	0 0.00	86 (0.9)
	경기	-	-	-	-	-	-	-	-	-	-
부산권	부산	0 0.00	119 1.14	9 0.76	0 0.00	129 (1.3)	0 0.00	98 1.12	8 0.77	0 0.00	106 (1.1)
	경남	0 0.00	133 1.13	12 0.89	0 0.00	145 (1.5)	0 0.00	125 1.14	8 0.65	0 0.00	133 (1.3)
대구권	대구	356 0.76	5,958 1.01	690 1.01	288 1.19	7,292 (72.9)	184 0.50	6,177 1.03	691 1.00	242 1.02	7,294 (72.9)
	경북	170 1.41	1,489 0.98	168 0.98	45 0.72	1,872 (18.7)	127 1.52	1,284 0.94	173 1.09	84 1.09	1,668 (16.7)
전국		641 (6.4)	8,112 (81.1)	914 (9.1)	333 (3.3)	10,000 (100)	502 (5.0)	8,220 (82.2)	952 (9.5)	327 (3.3)	10,000 (100)

주 :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것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값임.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 해당항목의 비율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대기업의 경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구, 부산, 경남 등 지방에서 입지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시중은행의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론이다. 다만 경북지역에서 대기업의 입지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북지역에 대기업의 분공장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은 [표 3-4]와 같다. 사례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다만,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 대출은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대출은 100%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지방의 기업대출은

모두 중소기업 대출이다. 지역별 대출금 현황은 역시 입지계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지역별 입지계수를 보면, 기업대출의 경우, 서울의 입지계수가 1이상이고, 가계대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입지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의 대출금에 대기업 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의 비율이 높아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4]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 (보험회사)

	1993년			1994년			1995년		
	기업	가계	계	기업	가계	계	기업	가계	계
서울	2,734 1.05	2,166 0.94	4,900 (49.0)	1,344 1.17	3,358 0.94	4,701 (47.0)	1,126 1.27	3,406 0.93	4,172 (41.7)
인천	539 0.98	505 1.03	1,044 (10.4)	174 0.73	807 1.09	980 (9.8)	200 0.84	916 1.04	1,115 (11.2)
경기									
부산권	621 0.95	617 1.06	1,238 (12.4)	324 0.83	1,276 1.05	1,600 (16.0)	361 0.91	1,500 1.02	1,860 (18.6)
대구권	530 0.93	552 1.08	1,082 (10.8)	188 0.91	660 1.03	848 (8.5)	143 0.82	674 1.05	817 (8.2)
호남권	446 0.90	490 1.11	936 (9.4)	226 0.84	877 1.05	1,103 (11.0)	181 0.66	1,100 1.09	1,281 (12.8)
충청권	420 0.99	380 1.01	800 (8.0)	180 0.96	587 1.01	767 (7.7)	120 0.75	634 1.07	754 (7.5)
전국	5,291 (52.9)	4,709 (47.1)	10,000 (100)	2,435 (24.4)	7,565 (75.6)	10,000 (100)	2,132 (21.3)	7,868 (78.7)	10,000 (100)

주 :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것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값임.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 해당항목의 비율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보험회사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대략적으로 대기업 대출은 서울에, 중소기업·가계 대출은 지방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3절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에 이용될 것이다.

제3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지역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조개관 하에서, 3절에서는 첫번째 연구주제인,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한다. 2장의 연구분석의 틀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자금집중도, 이자율 스프레드, 신용할당, 이상 3가지를 채택하였으며,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선정된 검증지표를 가지고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3장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검증지표로 채택된 자료로는 주로 지역별로 집계한 통계자료와 사례 금융기관(시중은행, 지방은행, 보험회사)의 내부자료가 사용되었다.

1. 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별성 검증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자금집중도를 선정하였다. 자금집중도를 선정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지역별 자금배분(수량조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으로 자금량이 집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하여 지역간에 금융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지역별 자금집중도 지표와 금융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의 차이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자금의 지역별 비율'을 선정하였다.

대출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자금집중도를 보면, 서울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출자금의 50%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절의 [그림 3-2]~[그림 3-9]를 통하여 이미 분석한 바와 같다. 또한, 이를 통하여 서울과 나머지지역의 차입자 간에 금융시장 접근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

론한 바 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큰 지역에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에 대출자금의 집행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별 금융시장 접근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생산력)에 대비한 자금집중도에서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의 경제규모(생산력)를 나타내는 지표로 GRDP(지역내 총생산)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GRDP에 비해 대출자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입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GRDP대비 대출자금집중도에 대한 지역별 입지계수

		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	대구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예 금 은 행	1986	2.54	0.37	0.55	0.55	0.49	0.44	0.37	0.64
	1990	1.98	0.53	0.75	0.77	0.67	0.60	0.50	0.69
	1994	1.80	0.66	0.77	0.89	0.72	0.69	0.73	0.89
비 통 화 금 융 기 관	1986	2.22	0.43	0.78	0.60	0.51	0.60	0.43	0.69
	1990	1.92	0.55	0.75	0.76	0.67	0.67	0.60	0.92
	1994	2.23	0.48	0.61	0.70	0.64	0.64	0.69	1.04
전 체 금 융 기 관	1986	2.40	0.40	0.65	0.57	0.50	0.50	0.40	0.66
	1990	1.95	0.54	0.75	0.76	0.67	0.65	0.55	0.81
	1994	2.06	0.55	0.67	0.78	0.67	0.62	0.70	0.98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금융통계.
통계청, 1996, 지역내총생산.

[표 3-5]에서 지역별 입지계수를 비교하면,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서울은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모든 항목에서 입지계수가 1.8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제주에서 한 항목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계수가 1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은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대출자금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에 비해서도 대출자금이 2배이상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대출자금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금집중도(자금량)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의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인천/경기지역과 같은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 입지계수가 서울보다는 나머지 지방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자금의 집중도 관점에서 금융중심지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 한정되고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 검증

1절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수준은 정책당국이 강제적으로 결정하여 왔고, 정책당국의 이자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최근까지 표면적인 이자율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일부 실시되면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이 다른 개별 차입자에게 가산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의 지역별 스프레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의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지역간 이자율의 체계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각 사례 금융기관별로 지역별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표 3-6]와 같다.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 3-6]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연도별 전국평균이자율을 $P_1 \sim P_6$ ¹²⁾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스프레드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분석에 사용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실행한 이자율¹³⁾이다. 이에, 지역별로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참고적으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이자율인 $P_1 \sim P_4$ 는 10%대, 보험회사의 이자율인 $P_5 \sim P_6$ 는 14%대를 보이고 있다.

13) 여기서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이 설정한 기준금리(prime rate)에 개별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자산운용과정에서 실행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표 3-6] 지역별 금융기관별 이자율

[단위 : %]

		시중은행		지방은행		보험회사 (1995년)	
		1994년	1995년	1994년	1995년	기업	가계
수도권	서울	$P_1 - 0.05$	$P_2 - 0.05$	$P_3 - 0.02$	$P_4 - 0.02$	$P_5 + 0.04$	$P_6 - 0.01$
	인천	$P_1 + 0.02$	$P_2 + 0.03$	$P_3 - 0.01$	$P_4 - 0.01$	$P_5 + 0.13$	$P_6 + 0.01$
	경기	$P_1 + 0.01$	$P_2 + 0.04$	-	-		
부산권	부산	$P_1 + 0.04$	$P_2 + 0.02$	$P_3 - 0.01$	$P_4 - 0.01$	$P_5 - 0.19$	P_6
	경남	P_1	$P_2 + 0.07$	$P_3 + 0.01$	P_4		
대구권	대구	$P_1 + 0.01$	$P_2 + 0.09$	P_3	P_4	$P_5 - 0.23$	$P_6 - 0.02$
	경북	$P_1 + 0.06$	$P_2 + 0.12$	$P_3 + 0.01$	$P_4 + 0.01$		
호남권	광주	$P_1 + 0.02$	$P_2 + 0.06$	-	-	$P_5 - 0.08$	$P_6 + 0.03$
	전남	$P_1 + 0.07$	$P_2 + 0.13$	-	-		
	전북	$P_1 + 0.13$	$P_2 + 0.11$	-	-		
충청권	대전	$P_1 + 0.12$	$P_2 + 0.08$	-	-	$P_5 + 0.08$	$P_6 + 0.04$
	충남	$P_1 + 0.05$	$P_2 + 0.11$	-	-		
	충북	$P_1 + 0.08$	$P_2 + 0.09$	-	-		
강원		$P_1 + 0.11$	$P_2 + 0.09$	-	-	-	-
제주		$P_1 + 0.11$	$P_2 + 0.09$	-	-	-	-
전국		P_1	P_2	P_3	P_4	P_5	P_6

주 :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평균 이자율을 $P_1 \sim P_6$ 으로 표시하여, 지역별 스프레드를 계산하였다.

자료 : 각 금융기관 내부자료.

먼저 서울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보험회사의 가계부문에서 이자율이 전국평균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과 보험회사 사례에서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전국평균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대체적인 수준에서 서울지역의 실행이자율이 나머지 지방의 실행이자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행이자율의 차이를 보면, 작은 경우 0.01%에서 큰 경우 0.2%로, 매우 미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별 대출주체별 대출금 현황에서 보았듯이 서울에서 대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이자율이 전국평균 이자율보다 0.01%~0.05% 정도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규모요인을 감안할 경우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을 통해서 볼 때,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에 체계적인 이자율 스프레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4장의 사례 연구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이자율의 지역별 비교 결과와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 검증

금융시장 전체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국가금융시장에서 지역별로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용할당 현상은 1차적으로는 시장 균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은행대출시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2차적으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시장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행대출시장을 위주로 하여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부차적으로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검토한다.

신용할당을 검증하는 지표는 2장의 연구의 틀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자료 및 금융기관의 내부자료를 이용한 다음의 3가지 지표를 가지고 검토한다.

3.1. 지역별 은행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는 첫번째 지표로, 지역별 은행대출조건별 대출비율을 선정하였다. 즉, 은행의 대출조건에 있어서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율과 신용대출 비율의 지표를 통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데, 차입자의 담보제공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대출은 결과적으로 차입자에게는 신용할당의 방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의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은행의 사례를 통하여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표 3-7]과 같다. 대출조건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은 담보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하이고, 신용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상인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신용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하로 나타나, 같은 은행 내에서도 지방의 자금수요자들이 서울의 자금수요자들에 비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신용대출의 입지계수가 1.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서울에 대기업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미있는 수치로 판단된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사례은행에서 대출조건별 자료를 지역별로 구득할 수 없는 대신, 사례 시중은행의 전체적인 대출조건별 대출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표 3-8]과 같다. 여기서, 지방은행의 대출이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율이 35%인 반면,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비율은 27% 수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은행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특화되어 있는 서울 중소기업보다 신용할당을 많이 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례 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동일한 시중은행 내에서도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지방소재 중소기업보다 신용대출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지방은행, 1994년)

		담보	신용	신용보증	지급보증	기타	계
수도권	서울	219 0.69	277 1.85	24 0.41	18 1.82	2 1.22	540 (5.4)
	인천	12 0.91	7 1.23	3 1.05	0 0.18	0 0.61	22 (0.2)
	경기	-	-	-	-	-	-
부산권	부산	70 0.92	41 1.14	14 1.00	0 0.13	3 0.13	129 (1.3)
	경남	113 1.32	183 0.44	13 0.82	1 0.27	1 1.27	145 (1.5)
대구권	대구	4,286 0.99	1,938 0.96	913 1.15	140 1.06	15 0.73	7,292 (72.9)
	경북	1,220 1.10	499 0.96	123 0.61	22 0.65	8 1.42	1,872 (18.7)
전국		5,920 (59.2)	2,780 (27.8)	1,090 (10.9)	181 (1.8)	29 (0.3)	10,000 (100)

주 :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것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값임.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 해당항목의 비율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표 3-8]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1995년)

[단위 : %]

	담보	신용	신용보증	기타	계
대기업/가계	40.7	58.5	0.5	0.3	100
중소기업	56.5	35.1	7.2	1.2	100
계	49.1	46.0	4.1	0.8	100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이와 아울러, 또 다른 시중은행에서, 가계부문의 신탁자금 대출부문에 대한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을 지역별로 파악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9]와 같다. 여

기서 가계부문을 볼 때, 역시 서울은 신용대출의 비율이, 나머지 지역은 담보대출 비율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울의 가계부문 차입자보다 지방의 가계부문 차입자들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지역별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가계, 1995년) [단위 : %]

	담 보	신 용	계
서 울	50.0	50.0	100
나머지 지역	71.0	29.0	100
계	54.2	45.8	100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결과적으로 대출조건 지표를 통하여 볼 때, 지방의 차입자가 서울의 차입자보다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검토에 사용된 자료들이 지역별 집계자료이거나 간접적인 비교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4장의 세부적인 사례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내릴 것이다.

3.2. 지역별 은행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두번째 지표로 지역별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을 선정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신용할당의 방법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기자금의 대출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동성 선호도가 높고,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다고 판단¹⁴⁾할 수 있다.

14) 대은금융경제연구소에서 대구지역의 자금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금수요자들이 이자율이 좀 높더라도 상환기간이 길거나, 상환방법이 유리한 은행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다수의 자금수요자들은 장기자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기자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수요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금의 조기회수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은행의 사례를 통하여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표 3-10]과 같다. 서울은 장기자금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상이고, 단기자금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하인 반면, 대체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지방은 장기자금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하이고, 단기자금대출에 대한 입지계수가 1이상¹⁵⁾으로 나타나, 같은 은행 내에서 지방의 자금수요자들이 서울의 자금수요자들에 비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장기자금에 대한 입지계수가 1.02, 1.25 수준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3-10] 지역별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지방은행)

		1994년			1995년		
		단기자금	장기자금	계	단기자금	장기자금	계
수도권	서울	364 0.99	393 1.02	540 (5.4)	440 0.89	273 1.25	713 (7.1)
	인천	20 1.33	19 0.29	22 (0.2)	58 0.98	28 1.05	86 (0.9)
	경기	-	-	-	-	-	-
부산권	부산	103 1.17	119 0.63	129 (1.3)	80 1.09	26 0.79	106 (1.1)
	경남	114 1.15	133 0.68	145 (1.5)	98 1.06	35 0.85	133 (1.3)
대구권	대구	4,580 0.92	5,958 1.16	7,292 (72.9)	5,134 1.02	2,160 0.97	7,294 (72.9)
	경북	1,627 1.28	1,489 0.41	1,872 (18.7)	1,123 0.97	545 1.07	1,668 (16.7)
전국		6,807 (68.1)	3,193 (31.9)	10,000 (100)	6,934 (69.3)	3,066 (30.7)	10,000 (100)

주1 : 각 칸의 상단의 수치는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 총액을 10,000으로 표준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값을 계산한 것이고, 하단의 수치는 입지계수(LQ)값임.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 해당항목의 비율임.

주2 :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15) 여기에 대한 예외로, 1994년 대구의 경우와 1995년 경북의 경우가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역시 사례은행에서 대출기간별 대출금 자료를 지역별로 구득할 수 없었고, 은행 전체적인 대출기간별 대출금 현황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표 3-11]와 같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비교해 보면, 장기자금대출의 비율은 시중은행이 더 높게 나타나고, 단기자금대출의 비율은 지방은행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에 특화되어 있는 지방의 자금차입자들이 시중은행의 자금차입자보다 신용할당을 많이 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선호 지표를 통하여 볼 때, 지방 차입자가 서울 차입자보다 신용할당을 많이 받고 있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표 3-11] 대출기간별 대출금 비율 (시중은행) [단위 : %]

	단기자금	장기자금	계
1994년	48.0	52.0	100
1995년	48.0	52.0	100

주 :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임.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3.3. 지역별 대출금 비율과 실질시장금리와의 상관관계

세번째 지표로, 지역별 대출금 비율과 실질시장금리, 두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선정하였다. 이 지표는 신용할당의 動態的인 측면을 파악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금융중심부와 지방간에 지역별로 신용할당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어 자금의 초과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적게 나타나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의 초과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자금이 우선적으로 금융중심지에 배분되고, 따라서 지방은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①Harrigan and McGregor(1987)의 연구(그림 2-9, 그림 2-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가 안정적인 시기보다 불안정한 시기에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 ②Fishkind(1977)의 연구에서, 확대통화정책의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적지만, 긴축통화정책의 영향은 중심지와 주변부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한편, 시중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실질시장금리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데, 따라서 시장금리가 높다는 것은 은행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은행대출시장의 자금의 초과수요가 많고, 따라서 시중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사용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자금의 우선적 할당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지역별 대출금 비율¹⁶⁾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간(금융중심지와 지방간) 신용할당이 차별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금압박기(실질금리가 높을 때)에 금융중심지의 전국대비 대출금 비율이 상승하고, 지방의 대출금 비율은 하락하는데, 그 결과로 금융중심지는 대출금 비율과 실질금리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지방은 음의 상관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상관관계 분석은 ①지역별 대출금 비율변수와 ②시장의 실질금리변수에 대하여 '84년부터 '95년까지 12년간¹⁷⁾의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실시하였다. 대출금의 유형은 은행, 비통화금융기관, 금융기관 전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금리로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율을 사용하였는데, 실질금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를 GNP디플레이터로 할인하였다. 이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먼저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지역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에 차별적인 신용할

16) 대출금의 경우, 경상가격 대출금이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대출금 모두 비율을 구할 때는 동일한 값이 구해진다.

17) 비통화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에 대해서는 '86년부터 '95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당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를 보면, 서울은 유의수준이 0.18, 나머지 지방은 유의수준이 대부분 0.1~0.2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의수준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는 유의수준 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12] 지역별 대출금의 비율과 실질금리와의 상관계수

	은행				비통화 금융기관	전체
	은행전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서울	0.4124 (p=0.183)	0.4423 (p=0.150)	0.3845 (p=0.217)	0.4094 (p=0.186)	- 0.3904 (p=0.265)	0.0148 (p=0.968)
인천/경기	- 0.4548 (p=0.137)	- 0.4893 (p=0.106)	- 0.3872 (p=0.214)	- 0.4286 (p=0.165)	0.0847 (p=0.816)	- 0.1163 (p=0.749)
부산권	- 0.2938 (p=0.354)	- 0.3276 (p=0.299)	0.2630 (p=0.409)	- 0.3167 (p=0.316)	0.2553 (p=0.477)	0.3452 (p=0.329)
대구권	- 0.3682 (p=0.239)	- 0.3971 (p=0.201)	- 0.3273 (p=0.299)	- 0.3180 (p=0.314)	0.3549 (p=0.314)	0.0249 (p=0.946)
호남권	- 0.3660 (p=0.242)	- 0.4636 (p=0.129)	- 0.2304 (p=0.471)	- 0.3540 (p=0.259)	0.1906 (p=0.598)	- 0.0069 (p=0.985)
충청권	- 0.4604 (p=0.132)	- 0.4991 (p=0.099)	- 0.5141 (p=0.087)	- 0.4560 (p=0.136)	0.3482 (p=0.324)	- 0.0751 (p=0.837)
강원	- 0.5050 (p=0.094)	- 0.1550 (p=0.631)	- 0.5156 (p=0.086)	- 0.4834 (p=0.111)	0.0429 (p=0.906)	- 0.3057 (p=0.390)
제주	- 0.2514 (p=0.431)	0.0314 (p=0.923)	0.3885 (p=0.212)	- 0.4734 (p=0.120)	- 0.0119 (p=0.974)	- 0.1464 (p=0.687)

예금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은행 전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지방은 대체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인 유의수준 역시 서울을 포함한 상당수 지방에서

0.1~0.2로 나타나, 상관관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경우 제주에서,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권과 제주에서 예외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주의 경우는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내외로 큰 변수가 되지 못하지만, 부산의 경우를 보면 지방은행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은행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중심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의 경우를 보면, 은행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 제주지역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지역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할당을 많이 당한 지역의 자금차입자들이 차선택으로 이자율 수준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지역이 0.3 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부산권, 대구권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머지지역은 음의 상관관계를 약하게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은행의 경향과 비통화금융기관의 경향이 서로 상쇄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상관관계에 방향을 분석해 볼 때, 어음부도율 등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은 금융중심지, 나머지지역은 주변부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는 이러한 결과로,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지역간에 신용할당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3장에서는 이상의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에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할당 지표의 검증결과, ①은행에서의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지표와 ② 지역별 대출금비율과 실질시장금리와의 상관관계 지표에서, 서울지역보다 나머지 지방의 차입자들이 은행대출시장에서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지역별 대출금비율과 실질시장금리와의 상관관계 지표의 경우, 대체적인 유의수준이 10%~20%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 유의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유의수준 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등의 지표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결론적으로,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보다 나머지 지방이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3장에서 신용할당을 검증한 3가지 지표는 모두 집계자료이다. 때문에, 집계치의 통계적인 결과를 가지고 지역적 요인에 의해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4장의 검토결과와 종합하여 내릴 것이다.

4. 소결 -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자금집중도, ③신용할당, 이상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였는데,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율 스프레드에 대한 지표를 검증한 결과, 지역간 이자율의 체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자율의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금집중도에 대한 지표와 신용할당에 대한 지표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나머지지역간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신용할당에 대한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예금은행 대출시장에서 뚜렷하게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이 금융중심지의 위치를, 나머지 지역은 주변부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은 자금집중도와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역간 차이가 서울과 나머지지역 간의 차이로 이분된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에 '자금집중도' 및 '신용할당'의 형태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즉, 금융중심지인 서울의 기업보다 주변부인 나머지 지방의 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으며, 경제력에 비해 자금집중도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①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②신용할당지표에서 지역간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이 5%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 ③전국형 금융기관이 발달하여, 자금흐름이 단절될 정도의 지역간 분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정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만큼 금융시장이 완전분리된 정도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장에서 검토에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집계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결과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장의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장의 검토결과는 4장의 사례연구의 검토결과와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 4 장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3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에 자금집중도 및 신용할당의 기준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4장에서는 서울과 대구권(대구·경북)을 사례로 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차별성의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특성을 밝힌다. 여기서 서울은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대구권은 지방금융시장의 사례지역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4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설문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1절에서는 설문자료와 인터뷰자료의 개요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기업의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서울과 대구권기업의 기업 금융활동의 특성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연구주제 2>인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그 발생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3장의 검토결과와 종합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 1 절 자료의 개요

3장에서는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 반면, 4장에서는 집계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에, 4장의 사례연구는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분석자료로 사용¹⁾하였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히기 힘든 메카니즘을 해석하기 위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터뷰조사를 추가하였다.

1) 설문자료를 사용한 것은, 규모변수와 업종변수를 통제하고, 지역변수만 반영된 상태에서 차별성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1. 설문자료의 개요

1.1.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本社가 ①서울 및 ②대구권(대구·경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자금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업이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접점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의 자금조달활동이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류기준을 기업의 본사로 삼았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사와 별도의 지역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몇몇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먼저, ①자금조달기능이 본사와 별도의 지역에 있더라도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본사소재지역의 기업에 포함시켰다²⁾. 반면, ②형식적인 본사만 지방에 있고, 실질적인 본사기능 및 자금조달활동이 100% 서울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는 본사가 서울인 기업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4장의 사례연구는 본사가 서울인 기업과 본사가 대구권인 기업 간의 차별성을 비교검토하는 것을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안점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있는 만큼, 지역변수 외의 다른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설문대상 기업을 업종이 ①섬유/의류, ②전기/전자, ③건설업인 기업으로 제한하였다. 업종을 앞의 3가지로 선정한 것은 이들 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아니라, 산업구조상의 위치가 다르다³⁾는 점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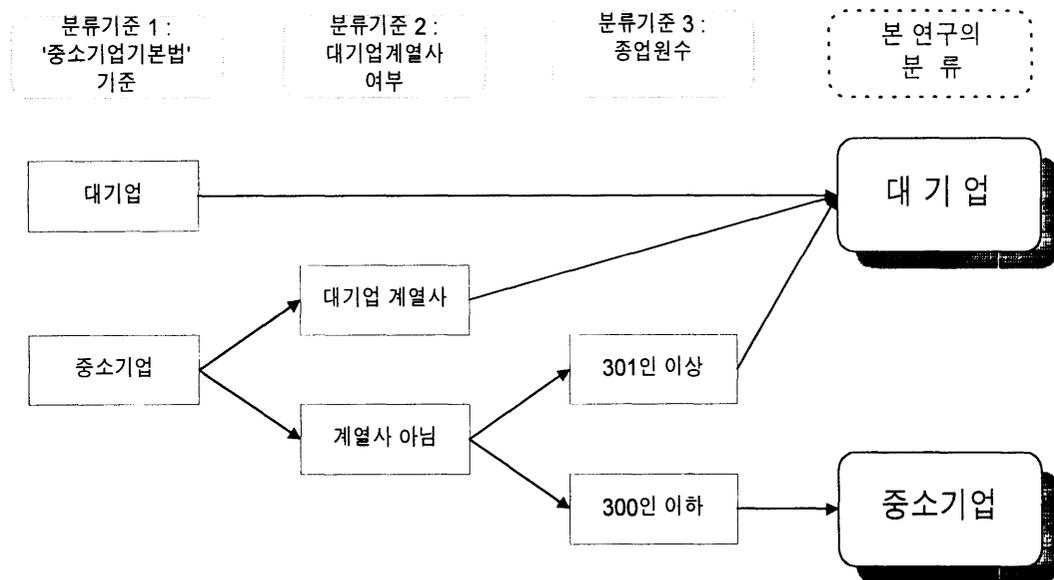
설문조사의 방법은 우편설문을 위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독촉전화와

2) 다시말하면, 복수의 지역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본사소재지역의 기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3)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사양제조업을,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제조업을, 건설업의 경우 비제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방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2차에 걸쳐 총 950부 정도를 발송하였는데, 그 결과 1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12%).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업종유형 등에서 본 설문대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켰는데, 이에 따라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된 것은 총 104부이다.

설문자료의 분석은 기업규모로 인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⁴⁾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그림 4-1]과 같다⁵⁾.



[그림 4-1] 대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종업원수 20인이하)'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본 설문분석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는 응답기업의 사례가 많지 않아 중소기업을 다시 분류하지는 않았다.
- 5) 먼저, 대기업계열사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모기업인 계열사에서 지분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동일한 신용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수 301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기본적으로 종업원수 301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업종별 특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거나 경과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므로, 이들 기업도 사실상 대기업의 신용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업종변수 요인도 통제하기 위하여, 다시 업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분석에서 주 통제변수는 『규모』이고, 부차적인 통제변수⁶⁾는 『업종』이다.

1.2. 설문응답기업의 성격

설문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응답기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1]을 보면, 분석에 사용된 총 104부의 설문 중, 지역별로는 서울 본사기업이 53개소, 대구권(대구/경북) 본사기업이 51개소이고, 업종별로는 섬유/의류가 31개소, 전기/전자⁷⁾가 41개소, 건설이 32개소이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1개소, 중소기업이 63개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1]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응답기업 현황

		섬유/의류	전기/전자	건설	계
대기업	서울	6	8	16	30
	대구권	6	3	2	11
중소기업	서울	9	11	3	23
	대구권	10	19	11	40
계		31	41	32	104

자료 : 설문조사.

6) 설문기업을 규모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업종별로 세분하여 지역간 차이를 분석할 경우, 12개의 범주로 세분되는데, 이 때는 각 범주의 사례기업수가 적어서 일반적인 통계적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규모변수를 주 통제변수로 하고, 다시 업종별로 세분한 변수를 부차적인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7) 이하, '섬유/의류'는 '섬유'로, '전기/전자'는 '전자'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응답기업 중 대기업은 서울에, 중소기업은 대구권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설문자료의 분석방법이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모별로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통제 가능하다.

다음으로, 법인형태별로 응답기업의 현황을 보면 [표 4-2]와 같다. 법인형태별로 볼 때 대체적으로 상장법인 → 등록법인 → 외감법인 → 일반법인 순으로 기업의 규모 및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기업의 재무자료가 외부에 더 많이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설문에서 상장법인 20개, 등록법인 29개로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법인에 대한 상장법인, 등록법인의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수치이다. 따라서 본 설문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평균수준보다는 재무구조나 금융활동면에서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법인형태별 응답기업 현황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계
대기업	서울	18	10	2			30
	대구권	2	4	5			11
중소기업	서울		8	1	14		23
	대구권		7	10	15	8	40
계		20	29	18	29	8	104

자료 : 설문조사.

이러한 경향은 종업원수별 응답업체 현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표 4-3]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고려할 때, 설문 응답기업은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서울기업, 대구권기업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본 분석의 주안점인 서울과 대구권의 지역별 차별성 검토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종업원수별 응답기업 현황

		20인 이하	21인 ~50인	51인 ~100인	101인 ~300인	301인 ~500인	500인 ~1000인	1001인 이상	계
대 기 업	서 울			1	1	11	6	11	30
	대구권				2	4	4	1	11
중소 기업	서 울	2	6	3	12				23
	대구권	6	10	7	17				40
계		8	16	11	32	15	10	12	104

자료 :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대표자 출신지별로 응답업체를 보면 [표 4-4]와 같다. 본사가 서울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출신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본사가 대구권인 기업 경우, 대표자 출신지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권기업은 연고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4-4] 대표자 출신지별 응답기업 현황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북한	계
대 기 업	서 울	8	3	9	4	1	3	2		30
	대구권			1	10					11
중소 기업	서 울	9	3	3	3	1	2		2	23
	대구권	3		6	29	2				40
계		20	6	19	46	4	5	2	2	104

자료 : 설문조사.

2. 인터뷰자료의 개요

2.1. 기업 인터뷰자료의 개요

설문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 및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본사가 서울과 대구권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의 대상기업은 기업규모, 업종, 공장입지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본사가 서울인 기업 4개소, 본사가 대구권인 기업 4개소 등, 총 8개 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는데, 인터뷰 조사기업의 개요⁸⁾를 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 인터뷰조사 기업의 개요

구 분		기업규모	종업원수 (명)	업 종	공장 소재지
본사 서울	A기업	대기업	10,000	전기/전자	구미, 청주
	B기업	대기업	400	섬유/의류	서울, 해외
	C기업	대기업	350	건설	-
	D기업	중소기업	200	섬유/의류	대구
본사 대구	E기업	대기업	900	섬유/의류	대구
	F기업	대기업	350	전기/전자	대구
	G기업	중소기업	200	건설	-
	H기업	중소기업	70	건설	-

주1 : C기업과 F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기업에 포함시켰다(중견기업적 성격).

주2 : A, B, E기업은 그룹계열사이다.

8) A기업의 경우 본사가 지방에 있지만, 1절의 조사개요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본사만 지방에 있고, 실질적인 본사기능 및 자금조달기능, 활동이 100% 서울에서 일어나는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사가 서울인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기업인터뷰의 대상은, 주로 사례기업의 자금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설문지 작성 직전에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설문조사에 대한 잠정적인 분석결과가 나온 직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2.2. 금융기관 인터뷰자료의 개요

기업 인터뷰조사와 함께,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3개소, 지방은행 1개소, 제2금융권(보험회사) 1개소인데, 그 개요는 [표 4-6]과 같다. 금융기관의 인터뷰조사 역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의 경우는 연구의 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 초기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조사의 경우는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인터뷰조사를 하였다.

[표 4-6] 인터뷰조사 금융기관의 개요

구 분	금융기관	인터뷰 대상
시중은행	A은행	· 서울본사 여신담당부서 · 서울소재 지점 · 대구본부 여신담당부서
	B은행	· 서울본사 여신담당부서
	C은행	· 서울소재지점 여신담당부서
지방은행	대구은행	· 대구본사 여신담당부서 · 대은금융경제연구소
제2금융권	보험회사	· 서울본사 여신담당부서

특히, 3장의 사례 시중은행으로 선정된 A은행의 경우, 서울본사, 서울지점, 대

구본부 등 은행내에서 여신업무와 관계된 조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였다. 금융기관의 인터뷰조사는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담당자를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절 기업 금융활동의 특성에 대한 지역별 비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에 앞서, 2절에서는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과 대구권기업 간의 기업 금융활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본 설문조사는 기업의 재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기업이 외부에 유출하기를 꺼리는 정보 중 하나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비밀을 보장하고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액과 이자율을 응답하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치를 요구하지 않고, 표준적인 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에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금액을 묻는 질문의 경우, 직접적인 수치보다는 전체 금액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응답하게 하였는데, 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12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되는 구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자율의 경우도 직접적인 수치보다는 1%단위로 구간화하여 해당되는 구간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현실적인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8%에서 17%사이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1% 간격으로, 8%미만과 17%이상은 각각 1구간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설문분석에서는 각 구간의 중간값(medium)을 구간값으로 하여, 이를 지역별 평균을 계산하는데 이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액비율과 이자율의 구간 및 구간값⁹⁾을 보면 [표 4-7]과 같다. 이에 따라 설문분석의 주안점은 구간값의 지역

9) 이자율 '8%미만' 구간의 구간값은 7.5%, '17%이상' 구간의 구간값은 17.5%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것은 '95년 당시의 현실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이들 구간은 시장금리수준과 상당한 편차가 있는 異狀數值(outlier)이기 때문에 구간내의 편차를 무시하고 구간값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다른 구간의 구간값과의 등간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앞의 구간값을 설정한 것

별 평균에 대한 t통계량 검정을 통해 지역적 차별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표 4-7] 금액비율과 이자율의 구간 및 구간값

금 액 비 율		이 자 율	
구 간	구간값	구 간	구간값
① 없 음	0	① 8% 미만	7.5
② 0% 초과 ~ 10% 미만	5	② 8% ~ 9% 미만	8.5
③ 10% ~ 20% 미만	15	③ 9% ~ 10% 미만	9.5
④ 20% ~ 30% 미만	25	④ 10% ~ 11% 미만	10.5
⑤ 30% ~ 40% 미만	35	⑤ 11% ~ 12% 미만	11.5
⑥ 40% ~ 50% 미만	45	⑥ 12% ~ 13% 미만	12.5
⑦ 50% ~ 60% 미만	55	⑦ 13% ~ 14% 미만	13.5
⑧ 60% ~ 70% 미만	65	⑧ 14% ~ 15% 미만	14.5
⑨ 70% ~ 80% 미만	75	⑨ 15% ~ 16% 미만	15.5
⑩ 80% ~ 90% 미만	85	⑩ 16% ~ 17% 미만	16.5
⑪ 90% ~ 100% 미만	95	⑪ 17% 이상	17.5
⑫ 100%	100	-	

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 유형별로 ①1995년말의 차입금 비율과 ②1995년 한해 동안의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1995년말의 차입금 비율을 파악한 것은, 1995년말의 차입금 구조에는 1995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자금조달구조가 반영되어 있어서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개

이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정책자금대출, 사채대출, 해외자금조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자율이 8%에 못미치거나 17%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략적으로 분류하면, [표 4-8]과 같다. 여기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외부자금조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본 설문조사에서는 외부자금조달의 유형을 [표 4-8]의 분류와 같이 『①정책자금대출』, 『②은행 일반대출』, 『③지방은행 일반대출』, 『④제2금융권 일반대출』, 『⑤해외차관/해외증권』, 『⑥채권(회사채)발행』, 『⑦주식발행』, 『⑧사채대출』, 이상 8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8]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구 분		자금조달 유형	비 고
내부자금조달		-	• 유보이익, 준비금, 각종충당금
외부자금조달	국내 금융	① 정책자금대출	• 금융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정책자금대출은 모두 포함
		② 은행 일반대출	• 시중은행/특수은행/외국은행 일반대출 포함
		③ 지방은행 일반대출	
		④ 제2금융권 일반대출	
	직접 금융	⑤ 채권발행	• 회사채발행
		⑥ 주식발행	• 주식공모, 증자, 출자
		⑦ 私債대출	• 사채업자, 친지, 거래기업 등 비공식적 금융시장에서 조달
	해외금융	⑧ 해외차관/해외증권	• 해외증권 발행 • 해외차관 도입, 현지금융

여기서 『정책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든지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정책자금대출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는 정책자금대출의 이자율 수준이나 자금공급과정이 일반적인 대출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도항목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대출에 대하여는 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은행 일반대출』에는 지방은행을 제외한 여타은행을 모두 포함시켰다. 2장의 문헌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형 은행과 지방은행은 지역의 신용정보에 대한 구득가능성이나 대출행태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외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채권(회사채)발행과 주식발행으로 분류하였는데, 주식발행의 경우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유형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었다. 해외차관/해외증권 등 해외자금조달은 이자율이나 자금조달과정이 국내자금조달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유형별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비교하면 [표 4-9], [표 4-10]과 같다. [표 4-9]는 '95년말의 차입금 유형별 조달액 비율을, [표 4-10]은 '95년 1년동안의 외부자금조달 유형별 조달액 비율을 나타낸다.

[표 4-9] 차입금 유형별 조달액 비율의 평균 (1995년말 기준)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정책자금대출	9.5	19.5	11.1	24.1
은행 일반대출	39.5	36.5	66.6	36.4
지방은행 일반대출	1.7	10.0	2.5	21.8
제2금융권 일반대출	19.7	24.0	12.5	10.0
채권발행	22.2	10.0	4.5	0.8
해외차관/해외증권	3.0	2.5	0	0
사채대출	0.8	0	2.5	2.2
총 응답수	30	10	22	38

자료 : 설문조사.

[표 4-10] 자금조달 유형별 조달액 비율의 평균 (1995년 1년 기준)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정책자금대출	7.5	15.5	9.0	20.4
은행 일반대출	34.2	33.6	67.4	34.9
지방은행 일반대출	3.8	6.4	2.1	23.2
제2금융권 일반대출	25.0	32.3	14.5	10.5
채권발행	16.0	8.2	2.4	0.8
주식발행	4.0	3.2	0	0
해외차관/해외증권	3.3	2.3	0	0
사채대출	0	0	3.1	3.8
총 응답수	30	11	21	37

자료 :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에서 외부자금조달이 전혀 없는 기업은 서울에서 중소기업 1개소, 대구권에서 중소기업 2개소이며, 외부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의 경우, 90%이상이 은행권과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금조달 유형별로 대출금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자금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 만큼, 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서 정책자금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는 대구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정책자금 외에도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공업지원자금 등이 있어 정책자금의 수혜범위가 넓다는 점, 둘째는 대구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대출 외에는 이렇다 할 외부자금 조달수단이 없는 기

업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¹⁰⁾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책자금대출의 조달금융기관의 유형을 보면 [표 4-1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정책자금 중에서 대부분을 은행권(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통하여 조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기업은 특수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구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11] 정책자금대출의 조달금융기관 비율의 평균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특수은행	43.5	43.1	29.3	10.8
시중은행	32.5	36.9	59.3	50.3
지방은행	0	16.3	2.1	22.5
제2금융권	12.5	0	7.1	5.3
기 타	13.5	0.6	0	5.0
총 응답수 (개)	10	8	7	20

자료 : 설문조사.

은행 일반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규모별 비교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은행 일반대출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주식, 해외증권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서울기업에서 은행일반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방은행 일반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규모별 비교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10) 대구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대출의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자금조달의 경우 5개, 차입금의 경우 7개나 되는데, 이러한 기업은 재무구조가 매우 튼튼하여 정책자금 외에는 외부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제한된 정책자금 이외에는 외부자금조달수단이 없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는 금융시장에의 접근도가 낮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 무대출 비율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기업의 경우 차이가 적은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은행 일반대출의 경우와 대비되는 결과인데, 즉 서울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 대구권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 전체¹¹⁾로 보았을 때는 중소기업 역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다.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 비교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요인으로, ①대기업은 은행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조달원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②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과의 금리차가 적다는 점¹²⁾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 대구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기업이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금융권 일반대출을 조달받은 금융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대기업은 보험회사등 자금조달 규모도 크고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은 상호신용금고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회사채 등의 채권발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규모별 비교에서는 대기업의 비율이 일방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법인¹³⁾이어

11) 은행권 전체에는 은행 일반대출, 지방은행 일반대출, 정책자금대출 중 은행대출분이 포함된다.

12) 이는 이자율 스프레드 검증에서 밝혀진다.

13) 등록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 자기자본,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부채비율, 수익가치, 자산가치 등 재무구조가 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법인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신용이 외부에 공

[표 4-12]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조달금융기관 비율의 평균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보험 / 단자 / 중금 리스 / 투신	95.0	90.0	75.0	73.5
상호신용금고 신협 / 새마을금고	1.4	0.5	23.3	20.8
기 타	3.2	9.5	1.7	6.2
총 응답수 (개)	28	11	9	17

자료 : 설문조사.

야 하는데,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법인 및 상장법인¹⁴⁾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서울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의 비율에서 서울기업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며, 결국 서울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더 높은 것을 반영한다.

주식발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로 볼 때, 주식발행이 대기업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법인이 대기업에만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대기업은 8개 기업에서, 대구권 대기업은 1개 기업에서 1995년 한해 동안 주식발행으로 외부자금조달을 하였고, 전체 비율의 평균은 서울 대기업이 약간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차관도입 및 해외증권발행 등 해외자금조달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로 볼 때, 해외자금조달이 대기업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하려면 국제적으로 기업의 공신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

개되고 공신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상장기업의 요건은 등록기업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등록기업이다.

면, 서울 대기업은 8개 기업에서, 대구권 대기업은 1개 기업에서 해외차관/해외증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비율의 평균은 서울 대기업이 약간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채자금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 비교에서는 대기업은 서울기업 1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채를 조달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략 20% 정도의 기업이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액비율로는 전체 자금조달액의 3%가 사채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은행 조사 등 여타 조사와 비슷한 수치¹⁵⁾를 보이는 것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중소기업은 5개 기업에서, 대구권 중소기업은 6개 기업에서 사채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채조달방법별로 조달비율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중소기업의 경우 친지→사채업자→기타 순으로, 대구권 중소기업

[표 4-13] 사채의 조달방법별 비율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사 채 업 자	-	-	16.2	10.0
거 래 기 업	-	-	0	23.3
친 지	-	-	75.0	44.7
기 타	-	-	6.3	20.8
총 응답수 (개)	-	-	4	6

자료 : 설문조사.

15) 연구에서 사채자금 조달의 비율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고, 사채를 쓰는 이유도 단기적인 급전이 많기 때문에, 사채는 자금규모면에서는 적으나,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체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사채자금조달은 기업내에서도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채자금을 많이 쓰는 기업이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답한 경우에도 이를 축소하였을 경우가 있다. 국민은행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인지하고 있다.

의 경우 친지→거래기업→사채업자→기타 순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서울기업은 친지, 대구권 기업은 거래기업에서 사채를 조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자금조달 유형별로 지역별 자금조달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전체적인 구조에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의 차입금 구조와 [표 4-10]의 자금조달구조를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정책자금대출, 은행일반대출은 줄어들고, 제2금융권 일반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자금조달구조에서 지역별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항목은 은행권 내부에서 서울 중소기업이 전국형 은행에, 대구권 중소기업이 지방은행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기업이 대구권기업보다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그 조달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구권지역의 기업들이 대출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의 분리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자금조달구조와 비교하면 [표 4-14]와 같다.

[표 4-14] 기업의 자금조달구조에 관한 기존의 조사결과

조사기관	조사대상	자 금 조 달 구 조
국민은행	• 전국 중소기업 • '94년 차입금	• 은행 78.9% • 제2금융권 11.9% • 회사채 6.7% • 사채 1.6% • 기타 0.9%
대구상공회의소	• 대구지역 기업 • '92년 외부자금조달	• 은행 80.8% • 제2금융권 9.8% • 기타 9.4%

자료 : 국민은행, 1994,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대구상공회의소, 1992, 대구지역기업 금융자금실태 및 개선방안.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금조달 구조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사

용된 표본기업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

다음으로, 서울과 대구권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지역의 범위를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지역으로,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는 서울을,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는 대구권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여, 사례지역의 설정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2장에서 국가하위의 공간적 범위의 차원에서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지역금융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대체적으로 금융활동권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살펴본 바 있다. 또한, 2장에서 연구주제를 구체화하면서, 사례지역을 서울과 대구권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들 지역범위가 하나의 금융활동권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적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서울과 대구권이 각각 금융중심지와 지방금융권으로서의 독자적인 금융권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 사례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지역금융시장의 검토를 위한 범위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수요자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자금조달 유형별로 응답기업이 자금조달을 받은 금융기관(支店)의 소재지역을 살펴 보았고, 자금공급자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기업의 본사소재지역을 파악하여 자금유출입의 지역적 범위를 살펴보았다.

2.1. 기업의 자금조달의 지역적 범위

먼저,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별 자금조달지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일반대출의 경우, 자금을 조달받은 支店의 소재지역을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여기서 대부분(90%)의 기업은 본사소재지역에서 금융활동(자금조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몇몇 기업의 경우 예외가 나타난다. 예외 기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공장이 있는 지역 또는 대표자의 연고지에서 자금조달하는 경우(4개기업)이다. 둘째는 대구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서울에서 자금조달하는 경우(1개기업)인데, 이 기업은 자금조달기능이 사실상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은행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단위 : 개(%)]

구 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조달지역				
서 울	25 (89.3)	1 (10.0)	18 (85.7)	-
인천/경기	1 (3.6)	-	1 (4.8)	-
대구/경북	2 (7.1)	9 (90.0)	2 (9.5)	33 (100)
계	28 (100)	10 (100)	21 (100)	33 (100)

자료 : 설문조사.

한편, 지방은행 일반대출을 조달받은 주요 支店의 소재지역을 살펴보면 [표 4-16]과 같다. 은행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은 본사소재지역에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기업의 일부에서 예외가 있다.

[표 4-16] 지방은행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단위 : 개(%)]

구 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조달지역				
서 울	5 (71.4)	1 (10.0)	3 (100)	-
부산/경남	1 (14.3)	-	-	-
대구/경북	-	9 (90.0)	-	25 (100)
충 청 권	1 (14.3)	-	-	-
계	7 (100)	10 (100)	3 (100)	25 (100)

자료 : 설문조사.

예외 기업은 역시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본사 대기업이 지방(대구/경북)에서 자금조달하는 경우(2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그 연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방은행의 지방지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이들 기업은 대표자의 출신지와 지방은행 조달지점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대구권기업이 서울에서 자금조달하는 경우(1개 기업)이다.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자금조달지역을 보면 [표 4-17]과 같다. 은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기업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몇몇 기업의 예외가 보인다.

예외 기업의 유형을 보면, 은행권과는 달리, 서울기업이 타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없는 반면, 대구권기업이 서울지역에서 보험회사 등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우가 뚜렷한데, 이는 3장에서 사례 보험회사의 경우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서울본사에서만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점, 대구권 대기업이 대구권지역의 제2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제2금융권 일반대출 자금조달지역 [단위 : 개(%)]

구 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조달지역	서 울	28 (100)	3 (30.0)	7 (100)	1 (8.3)
	대구/경북	-	7 (70.0)	-	11 (91.7)
	계	28 (100)	10 (100)	7 (100)	12 (100)
보험 / 단자 / 종금 리스 / 투신	서 울	2 (100)	-	3 (100)	-
	대구/경북	-	1 (100)	-	4 (100)
	계	2 (100)	1 (100)	3 (100)	4 (100)
상호신용금고 신협 / 새마을금고	서 울	4 (100)	1 (100)	1 (100)	-
	대구/경북	-	-	-	2 (100)
	계	4 (100)	1 (100)	1 (100)	2 (100)
기 타	서 울	4 (100)	1 (100)	1 (100)	-
	대구/경북	-	-	-	2 (100)
	계	4 (100)	1 (100)	1 (100)	2 (100)

자료 : 설문조사.

사채 조달방법별로 조달지역을 보면 [표 4-18]과 같다. 대부분의 기업은 본사 소재지역에서 사채를 조달하고 있는데, 예외로는 서울기업이 대구친지에게 조달하는 유형, 대구기업이 서울에서 기타방법으로 조달하는 유형이 있다.

[표 4-18] 사채조달방법별 자금조달지역 (중소기업) [단위 : 개(%)]

조달지역	구 분	서 울	대구권
	사채업자	서 울	1 (100)
대구/경북		-	2 (100)
계		1 (100)	2 (100)
거래기업	서 울	-	-
	대구/경북	-	2 (100)
	계	0	2 (100)
친 지	서 울	1 (50.0)	-
	대구/경북	1 (50.0)	5 (100)
	계	2 (100)	5 (100)
기 타	서 울	1 (100)	1 (33.3)
	대구/경북	-	2 (66.7)
	계	1 (100)	3 (100)

자료 : 설문조사.

이상과 같이, 자금조달 유형별로 자금조달지역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본사가 입지한 지역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기업의 경우, 공장이나 기업주의 연고지를 통하여 지역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기업 중에서 예외 기업의 경우 모두 서울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과 대구권은 대부분의 지역내 기업이 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혀진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서울은 지방의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조달활동을 하는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시장의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유출의 지역적 범위를 살펴봄으로, 보다 완결된 의

미에서 금융활동권의 지역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2.2.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유출의 지역적 범위

다음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소재지역에서 거래기업의 본사소재지역을 기준으로 자금유출입 범위를 파악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금융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자금유출입 지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형 금융기관이 지배적인 만큼, 전국이 하나의 금융활동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국형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단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점의 대출규모는 예금규모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만큼, 기업이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접점인 각 본·지점의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금융활동권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금융활동권의 범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지점단위를 대상으로 자금 유출입의 지역적 범위를 파악하였다.

먼저, 사례 A시중은행에서 서울본점, 서울지점, 대구본부를 대상으로 각각 거래기업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다. 첫째로, 서울본점에서 대출금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점과 직접 대출거래를 하는 기업의 유형은 ①여신규모가 큰 서울본사기업과 ②누계기준으로 대출금이 100억을 초과하는 지방기업의 경우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본점의 경우, 대출금 거래의 공간적 범위가 전국적임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서울소재지점 1개소에서 거래기업 본사소재지역별 예금과 대출금을 조사하여, 사례 시중은행의 서울소재 지점의 자금유출입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80~90%)의 예금과 대출금이 서울지역 내의 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기업의 경우 본사가 대부분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기업은 원래는 서울소재 기업이었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시중은행 서울소재지점의 자금유출입지역의 비율 [단위 : %]

조달지역 \ 구분	예 금		대 출 금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서울	85.7	93.7	99.4	78.8
인천/경기	14.3	5.0	0.6	20.0
충청권	-	1.3	-	1.2
계	100	100	100	100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셋째로, 사례 시중은행의 대구본부에서 대출기업의 본사 소재지역을 조사하여 대출금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였다. 먼저, A은행 대구본부의 경우 관찰구역이 대구·경북지역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구본부에서 여신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출기업 본사소재지역의 경우, '95년 기준으로 대구본부내에서 10억이상의 대출을 제공받은 150개의 기업 중 1개 기업¹⁶⁾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례 지방은행(대구은행)의 경우를 보면, [표 3-3]의 사례 지방은행의 지역별 대출금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90%)의 대출자금이 대구권 내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담당자와의 인터뷰결과를 통해서도 역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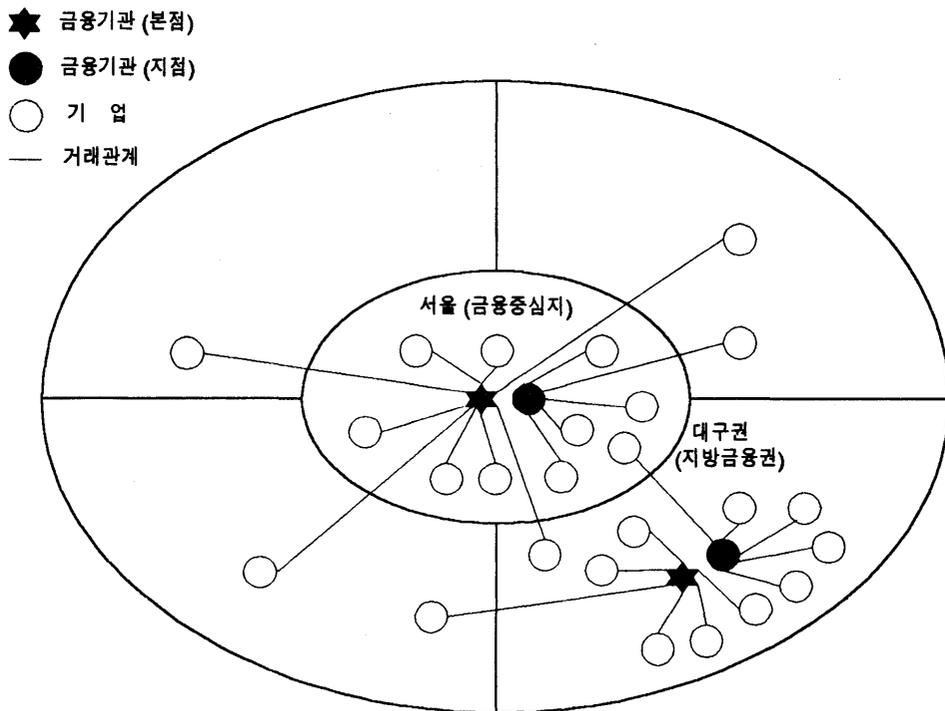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금유출입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한 결과에서도 서울과 대구권은 내부의 거래응집도가 강한 금융활동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은 전국의 기업(차입자)들이 대규모 자금조달활동을 하는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1개의 예외기업의 경우, 본래는 대구권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었으나,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금융활동권의 범위설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기업의 자금조달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금융기관의 자금유출입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한 결과, 서울은 금융중심지로서의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대구권은 지방금융권으로서의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각각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을 국가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대구권을 지역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방금융권으로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4-2]는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 의해,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가지는 금융중심지(서울)와 지방금융권(대구권)을 도식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림 4-2] 금융활동권에 대한 도식적 모형 (금융중심지와 지방금융권 비교)

3. 자금조달 우선순위

앞에서 분류한 8가지의 자금조달유형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1~8까지 우선순위를 매기게 하였다. 현재 조달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우선순위를 매기게 하였으며, 따라서 1~8까지의 순위를 모두 매긴 응답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 4-20]은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자금조달 우선순위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

[표 4-20] 자금조달 우선순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1위	은행 일반대출 (2.556)	은행 일반대출 (2.500)	은행 일반대출 (2.000)	정책자금대출 (2.208)
2위	정책자금대출 (3.296)	정책자금대출 (2.900)	정책자금대출 (2.083)	은행 일반대출 (2.333)
3위	채권발행 (3.704)	지방은행 일반대출 (3.400)	지방은행 일반대출 (3.833)	지방은행 일반대출 (2.958)
4위	제2금융권 대출 (4.037)	제2금융권 대출 (3.700)	제2금융권 대출 (4.083)	제2금융권 대출 (4.542)
5위	주식발행 (4.148)	채권발행 (4.000)	채권발행 (5.333)	주식발행 (5.375)
6위	해외차관/증권 (5.037)	해외차관/증권 (5.700)	주식발행 (5.417)	채권발행 (5.625)
7위	지방은행 일반대출 (5.667)	주식발행 (6.000)	해외차관/증권 (6.250)	해외차관/증권 (5.708)
8위	사채 대출 (7.519)	사채 대출 (7.800)	사채 대출 (7.000)	사채 대출 (7.250)
응답수	27	10	12	24

주 : ()안의 수치는 순위의 평균값임.

자료 : 설문조사.

4.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자금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을 6가지 선정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개별기업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애로의 정도를 1~5까지의 척도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애로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1점, 전혀 어렵지 않을 경우 5점을 매기게 하였다. 자금조달 애로사항의 척도분석 결과를 보면 [표 4-21]과 같은데,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애로정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척도의 평균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양건성예금/취기 등 요구 심함	2.571 (1)	2.091 (1)	2.773 (2)	2.429 (2)
t 유의도	p = 0.141		p = 0.255	
담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	2.821 (2)	3.273 (3)	2.636 (1)	1.944 (1)
t 유의도	p = 0.327		p = 0.034	
자사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안함	3.347 (4)	3.546 (4)	3.182 (5)	2.694 (4)
t 유의도	p = 0.570		p = 0.074	
지방에서 기업운영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방법/금액에 제한	-	3.091 (2)	-	2.919 (5)
t 유의도	-		-	
금융기관에 잘 아는 사람 없음	4.240 (5)	4.182 (6)	2.952 (3)	3.556 (6)
t 유의도	p = 0.827		p = 0.046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요건이 까다로움	3.115 (3)	3.546 (4)	3.050 (4)	2.444 (3)
t 유의도	p = 0.301		p = 0.065	

주 : 각 칸 상단의 수치는 척도점수의 평균값임. 하단의 ()안의 수치는 순위임.

자료 : 설문조사.

4.1. 대기업

먼저 대기업의 경우 서울기업은 ‘담보 많이 요구’, ‘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 ‘직접금융시장 요건’ 항목에서, 대구권기업은 ‘양건성예금 요구’, ‘금융기관 인맥 없음’ 항목에서 애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간에 지역별 편차를 보면,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의 지역별 애로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애로도 순위를 볼 때, ①‘양건성예금 요구’ → ②‘담보 많이 요구’ → ③‘직접금융시장 요건’ 순으로 지역간에 비슷하게 나타나,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양건성예금 등으로 인한 실세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방기업 운영어려움’ 항목은 대구권기업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는데, 응답결과, 애로정도가 전체 항목에서 2순위를 차지해 상대적 순위가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기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3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애로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애로도의 순위가 대체적으로 ①‘담보 많이 요구’ → ②‘양건성예금 요구’ → ③‘직접금융시장 요건’ → ④‘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 중소기업은 금리문제보다는 담보가 없음으로 인한 신용할당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애로척도점수를 볼 때 대부분 수치가 3미만으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도는 대기업에 비해 훨씬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구권기업은 서울기업에 비해 ‘금융기관 인맥없음’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에서 애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차이의 정도를 보면, ‘담보 많이 요구’ 항목은 유의수준 5%에서, ‘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 ‘직접금융시장 요건’ 항목은 유의수준 10%에서 대구권기업의 애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시장인맥 항목은 유의수준 5%에서 서울기업의 애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구권 중소기업에서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의 정도는 서울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기업이 ‘금융기관 인맥없음’ 항목에서 대구권기업에 비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애로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구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출신지가 대부분 대구·경북지역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주와 금융기관 간에 인맥을 형성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 서울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기업 운영 어려움’ 항목은 대구권 중소기업 애로도의 5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애로를 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대구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애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구매연계 및 판매연계를 통한 지역간 자금·신용의 흐름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자금이 흘러간다. 기업의 구매연계, 판매연계는 물자의 흐름인 동시에 반대방향은 자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기업거래의 자금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업어음 발행 등의 신용거래가 일반적¹⁸⁾인데, 이런 의미에서 구매연계, 판매연계는 자금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신용의 흐름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간 구매연계, 판매연계를 밝히는 것은 지역간 자금 및 신용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간 구매연계, 판매연계를 밝히기 위해 기업의 원료(부품/반제품 포함) 구매금액 및 제품 판매금액의 지역별 비율을 응답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구매연계와 판매연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금결제방법을 보면, 구매대금의 경우 현금 34.7%, 외상 17.2%, 어음 48.1%로 신용거래가 66%에 달하고, 판매대금의 경우 현금 28.2%, 외상 15.2%, 어음 56.6%로 신용거래가 72%에 달한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신용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구매대금에서 68%, 판매대금에서 76%로 전국평균보다 신용거래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최용호, 박상우(1996)).

5.1. 구매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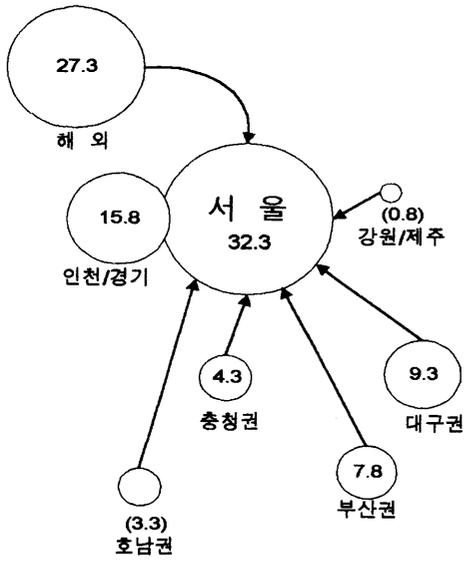
구매연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4-3], [그림 4-4]와 같다. 먼저 대기업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그림 4-3), 서울기업, 대구권기업 모두 본사소재지역에서 구매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구매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기업이 대구권기업에 비해 비율이 조금씩 높게 나타나는데, 따라서 서울기업의 구매연계가 다소 분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그림 4-4), 역시 본사소재지역에서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집중도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매연계는 대기업에 비해 훨씬 지역밀착형이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본사소재지역의 구매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해외연계 비율에 있어서는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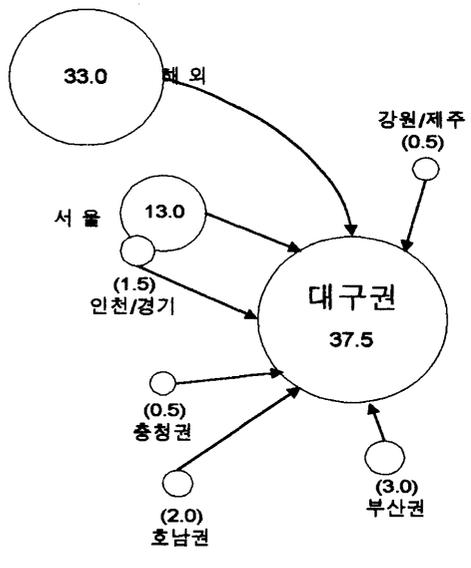
여기서, 구매연계에 따라 응답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물자가 들어오고, 구매연계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과 신용이 흘러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응답기업의 도산으로 어음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역과는 구매연계가 있는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기업 도산시의 파급효과가 대기업 및 서울 중소기업의 경우는 본사소재지역 및 해외에, 대구권 중소기업의 경우는 본사소재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5.2. 판매연계

판매연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4-5], [그림 4-6]과 같다. 대기업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그림 4-5), 서울기업, 대구권기업 모두 해외지역의 판매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사소재지역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면(그림 4-6), 서울기업은 본사소재지역에서 구매비율이 가장 높으나 해외판매비율도 상당히 높은 반면, 대구권기업은 대구/경북지역의 판매비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해외판매비율은 3%대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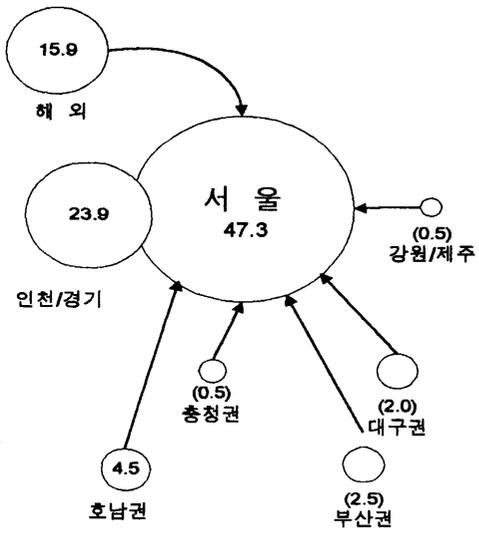


(a) 서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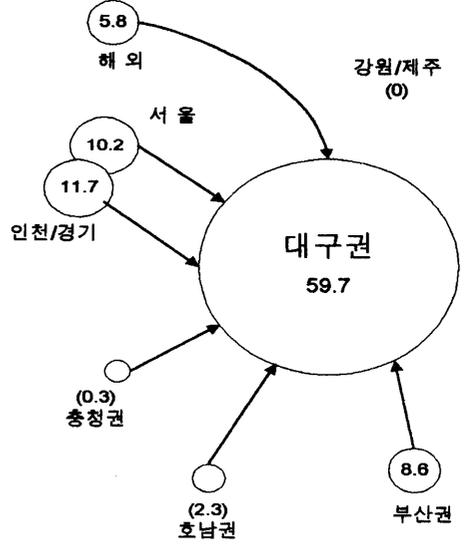


(b) 대구권 기업

[그림 4-3] 원료 구매지역 비율의 평균(%)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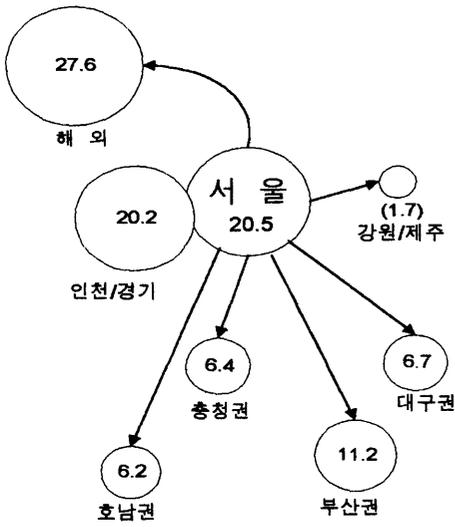


(a) 서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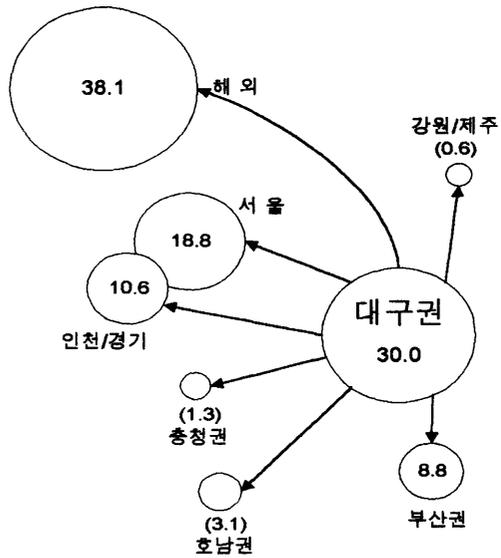


(b) 대구권 기업

[그림 4-4] 원료 구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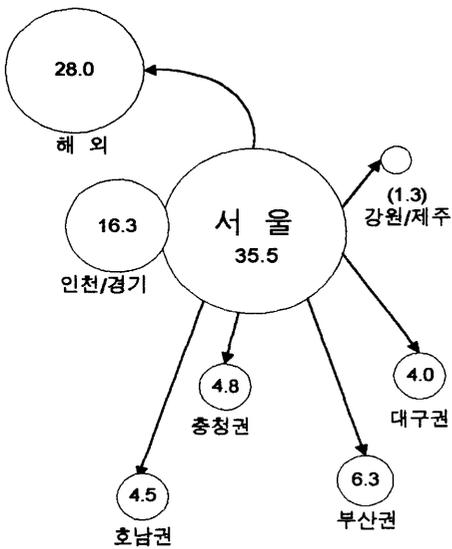


(a) 서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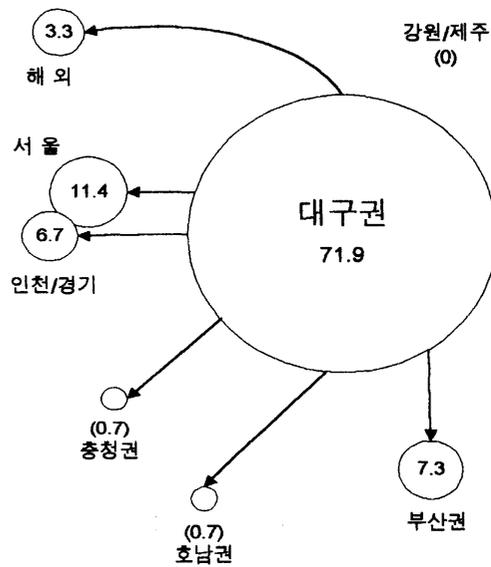


(b) 대구권 기업

[그림 4-5] 제품 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대기업]



(a) 서울 기업



(b) 대구권 기업

[그림 4-6] 제품 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따라서 구매연계와 비교해 볼 때, 대기업 및 서울중소기업에서는 판매연계의 지리적 집중도가 더 분산적으로 나타나지만, 대구권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대구·경북지역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연계를 따라 응답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자금과 신용이 들어오고, 판매연계가 있는 지역으로 물자가 흘러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받을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도산으로 어음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판매연계가 있는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특히 대구권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부도율이 상승할 경우 판매연계를 통한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제3절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

3절에서는 서울과 대구권을 사례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다. 차별성을 검토하는 기준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율 스프레드와 신용할당이다. 4장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지표를 검증하는 자료로는 주로 기업의 설문자료,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정량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여,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다.

1.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 검증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는 2장에서 설정한 바와 같

이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와 기업의 자금조달유형별 실질부담금리, 이상 2가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 지표를 통하여,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경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별 실질부담금리 비교를 통하여, 실제로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각각의 지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1.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

첫번째 지표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개별 차입자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이자율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금리산정 기준을 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보험회사 모두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표 4-22]와 같다. 먼저 금리 산정공식으로는 우대금리인 기준금리(Prime Rate)에 가산금리와 차등금리를 더하여 실행금리를 산출하고 있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는 8%~9%대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가산금리는 6%내에서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가산금리 및 차등금리를 부과하는 중요한 기준을 보면, [표 4-22]와 같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은행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①금융기관 간에 가산금리, 차등금리 부과기준이 다를 경우, ②금융기관 내에서도 산업구조나 신용상태가 다른 지역간에 가산금리, 차등금리가 다르게 부과될 경우에는 지역간 스프레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은 금리결정에 있어서 개별지점에 대해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지점장의 재량권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례 금융기관에서는 대략 은행에서 정한 금리결정 기준에서 2% 정도의 재량권이 있었다. 따라서 지점의 재량권이 지역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2%의 스프레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점의 경영자가 보수적으로 행동할 경우, 금융

중심지보다 지방에서 이자율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4-22] 금융기관의 금리산정 기준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기준금리	최고 우대금리		지역간 균일
가산금리	차입자의 업종, 대출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 업종(제조업/비제조업) • 담보비율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간에 차별화
차등금리	고객평점 등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신용평가 	신용평가 결과가 다른 지역간에 차별화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를 볼 때, 제한적이지만 금리산정 기준과 지점의 재량권 행사의 차원에서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양건성예금 등의 금리이면계약이 개입될 경우, 지역간 스프레드가 발생할 개연성은 더욱 더 높다고 하겠다. 이에, 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을 비교함으로써, 서울과 대구권 지역간에 이자율 스프레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1.2. 자금조달유형별 실질부담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 비교

두번째 지표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의 실질부담금리를 선정하였다. 앞에서 분류한 자금조달 유형¹⁹⁾별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서 부담한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를 검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자율은 표면계약에서 금융기관이 부과한 실행이자율에 양건성예금, 꺾기, 회사채리턴 등을 감안한 실질부담이자율로 응답²⁰⁾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양건성예금 등의 관행이 일반

19) 주식발행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20) 따라서 5장에서 조사한 기업의 실제금리는 4장에서 조사한 금융기관의 실행금리에 양건성 예금 등으로 인한 금리상승분 만큼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적이었던 만큼 기업의 실질부담금리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금조달 유형별로 실질부담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3], [표 4-24]와 같다. [표 4-23]은 '95년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평균을, [표 4-24]는 '95년 한해 동안의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검토의 방법은 지역별 이자율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정을 위주로 하였는데, 규모로 인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표 4-23] 차입금 유형별 이자율의 평균 (1995년말 기준)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정책자금대출	9.17	8.36	8.42	8.40
t 유의도	p = 0.227		p = 0.965	
은행 일반대출	12.07	12.61	12.78	12.46
t 유의도	p = 0.236		p = 0.388	
지방은행 일반대출	12.75	12.83	12.50	12.69
t 유의도	p = 0.841		p = 0.809	
제2금융권 일반대출	12.78	13.00	13.88	14.04
t 유의도	p = 0.707		p = 0.844	
채권발행	11.95	12.50	12.30	13.00
t 유의도	p = 0.104		p = 0.350	
해외차관/해외증권	7.5	7.5	-	-
t 유의도	-		-	
사채 대출	12.50	-	17.50	16.17
t 유의도	-		p = 0.270	

자료 : 설문조사.

[표 4-24] 자금조달 유형별 이자율의 평균 (1995년 1년기준) [단위 :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정책자금대출	8.86	8.75	8.50	8.34
t 유의도	p = 0.878		p = 0.776	
은행 일반대출	12.42	12.50	12.97	12.50
t 유의도	p = 0.857		p = 0.262	
지방은행 일반대출	12.79	12.50	12.50	12.76
t 유의도	p = 0.691		p = 0.744	
제2금융권 일반대출	13.08	13.14	14.36	14.25
t 유의도	p = 0.936		p = 0.894	
채권발행	12.07	12.50	12.50	12.50
t 유의도	p = 0.306		-	
해외차관/해외증권	7.5	7.5	-	-
t 유의도	-		-	
사채 대출	-	-	17.50	16.50
t 유의도	-		p = 0.286	

자료 : 설문조사.

전체적으로 자금조달 유형별로 이자율 수준을 보면 대체적으로 '95년말의 차입금 이자율, '95년 1년동안의 자금조달 이자율 모두 해외차관/해외증권→정책자금대출→은행권 일반대출(채권발행)→제2금융권 일반대출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기업의 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12%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95년도 은행의 대출우대금리(prime rate)가 8.75%~9%, 평균대출이자율이 10%~11%대인 점에 비춰 볼 때,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양건성 예금 등을 통해 1~2% 정도의 이자율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²¹⁾할

21) 이러한 사실은 앞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분석에서, 대기업의 경우 {양건성예금요구}항목이 가장 애로도가 높다는 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다. 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수준이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채권발행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점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양건성 예금의 부과는 이자율을 균형이자율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3장의 실행금리가 14%인 점에 비춰볼 때, 금융기관의 실행금리와 실질부담금리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시장금리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부담금리와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실질부담금리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비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

대기업 간의 실질부담금리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95년말 현재의 차입금 이자율을 비교하면(표 4-23), 은행일반대출, 지방은행 일반대출, 제2금융권 일반대출, 채권발행에서는 서울기업이 대구권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반면, 정책자금대출에서는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지역간 이자율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정결과를 보면, 채권발행, 정책자금대출에서 비교적 유의도가 높지만,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95년 1년동안의 자금조달 이자율을 비교하면(표 4-24), 은행 일반대출, 제2금융권 일반대출, 채권발행에서는 서울기업이, 정책자금대출, 지방은행 일반대출에서는 대구권기업이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간 이자율 평균의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정결과를 보면, 채권발행을 제외하면 유의도는 모두 0.6이상으로 지역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차입금 이자율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자금조달 이자율의 지역간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나,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업종별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표 4-23], [표 4-24]의 대기업의 자금조달 유형별 평균이자율을 업종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경우에도 섬유, 전자, 건설업 모두

어느 한 지역의 이자율이 일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기업 간의 이자율 스프레드 비교에서는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 간에 이자율의 체계적인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실질부담금리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5년말 현재의 차입금 이자율(표 4-23) 및 '95년 1년동안의 자금조달 이자율(표 4-24) 비교 결과, 지방은행 일반대출, 제2금융권 일반대출, 채권발행에서는 서울기업이 대구권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반면, 정책자금대출, 은행 일반대출, 사채대출에서는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지역의 이자율이 일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체계적인 경향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지역 간 이자율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정결과를 보면, 역시 유의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표 4-23], [표 4-24]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유형별 평균이자율을 업종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경우에도 역시, 섬유, 전자, 건설업 모두 어느 한 지역의 이자율이 일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도 역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 간에 이자율의 체계적인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에 대하여, 규모변수와 업종변수를 통제하여, 자금조달 유형별로 기업의 실질부담금리를 비교한 결과, 금융기관의 실행금리에 비해서 기업의 실질부담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추가금리 부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이자율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채권시장의 경우, 서울기업의 채권발행 이자율이 대구권기업의 이자율보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3.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3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 비교를 통하여, 4장에서는 기업의 실질부담이자율 비교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 서울과 대구권 간의 이자율 스프레드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보면, 금융기관의 실행이자율 비교에서도, 기업의 실질부담이자율 비교에서도 지역간에 체계적인 이자율 스프레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4장의 경우, 규모요인과 업종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체계적인(일방향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 지역간의 체계적인 이자율 스프레드는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자율 스프레드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이자율 결정경로분석에서 보았듯이, 금리산정기준과 지점의 금리결정 재량권 사용을 통하여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나타날 수 있는 경로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 검증결과에서 지역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경로가 지역간 이자율의 체계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소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 검증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검증하는 지표는 2장의 연구의 틀에서 설정한 바와 같은데, 4장에서는 기업의 설문자료와 기업·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를 중심으로 다음의 5가지 지표를 가지고 검토한다. 여기서의 검토결과는 3장의 검토결과와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3장의 검토결과에서, 신용할당이 은행대출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만큼, 4장의 지표는 은행대출시장과 관련한 지표를 주로 선정하였다.

2.1. 은행 대출신청에 대한 실제조달비율 (대출제약 여부)

(1) 은행대출신청에 대한 실제 조달비율

첫번째 지표로, 개별기업이 '95년 1년동안 은행(은행, 지방은행 모두 포함)에 대출을 신청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조달할 수 있었던 금액의 비율을 선정하였다. 이 지표는 은행 대출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실제로 조달한 자금이 필요한 자금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그리하여 대출과정에서 대출제약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조달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서 신용할당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에, 기업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간의 실제조달비율의 지역간 차별성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5]와 같다.

지역별 비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대기업의 경우 서울기업보다 대구권기업의 실제조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t통계량 검증결과를 보면,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가 0.6 대로 나타나,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업종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비교를 다시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섬유는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에 차이가 없고, 전자와 건설은 대구권기업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구권기업보다 서울기업의 실제조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평균의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증결과를 보면, 유의도가 0.27로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차이지만, 그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차이로 판단된다. 업종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비교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섬유, 전자, 건설 모든 업종에서 서울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도 체계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22) 그러나, 뒤에서 '은행에서 100%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이유'의 분석에서 보듯이, 기업이 은행대출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표 4-25] 은행대출신청에 대한 실제조달비율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조달비율 평균	89.1	92.0	87.1	80.3
평균의 t 유의도	p = 0.605		p = 0.273	
응답수	27 (100)	10 (100)	19 (100)	35 (100)

자료 : 설문조사.

(2) 은행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이유 및 전체적 결론

그런데, 실제조달비율 지표를 가지고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는 데는 좀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조달비율이 낮은 것이 은행에 의한 신용할당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제약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이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100%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7개 항목을 제시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각각 [표 4-26], [표 4-27]과 같다.

7개의 항목 중에서 ‘양건성예금 등의 요구로 실세금리가 높음’ 항목은 기업이 금리가 높아서 은행대출시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 이는 은행에 의한 신용할당과는 거리가 있다. 또 ‘기타’ 항목을 응답한 기업은 대부분 그 이유를 ‘동일인 여신한도계약’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완전히 해 주지 못하는 경우로 역시 은행에 의한 자발적 신용할당은 아니다²³⁾.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대기업의 경우(표 4-26), ‘실세금리 높음’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서 대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볼 때는 서울기업, 대구권기업 간에 ‘실세금리 높음’, ‘기타’

23) 이는 은행에 의한 자발적 신용할당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타율적 신용할당이다.

를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순위로 응답한 항목만을 놓고 볼 때, 서울기업은 '실세금리 높음', '기타'의 비율이 대구권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요인 비교에서는, 은행에 의한 실질적인 신용할당 항목의 비율이 대구권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표 4-25]의 실제조달비율 비교에서는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조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표 4-26]의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요인을 감안하여, 은행에서 실질적인 신용할당의 결과로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서울 대기업과 대구권 대기업 간에는 은행대출 실질조달비율 지표를 통한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은행자금조달 받지 못한 이유 (대기업) [단위 : 개(%)]

	서 울				대 구 권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신용평가결과 안 좋음	-	-	3 (37.5)	3 (18.8)	1 (20.0)	1 (25.0)	-	2 (40.0)
은행거래 불가능	-	-	-	0 (0.0)	-	-	-	0 (0.0)
담보 없음	5 (31.3)	2 (22.2)	-	7 (43.8)	2 (40.0)	-	-	2 (40.0)
실세금리 높음	7 (43.8)	1 (11.1)	3 (37.5)	11 (68.8)	-	1 (25.0)	2 (50.0)	3 (60.0)
지방에서 기업 운영	-	-	-	0 (0.0)	1 (20.0)	-	-	1 (20.0)
업종의 경기전망	2 (12.5)	5 (55.6)	-	7 (43.8)	-	2 (50.0)	1 (25.0)	3 (60.0)
기 타	2 (12.5)	1 (11.1)	2 (25.0)	5 (31.3)	1 (20.0)	-	1 (25.0)	2 (40.0)
계	16 (100)	9 (100)	8 (100)	16 (100)	5 (100)	4 (100)	4 (100)	5 (100)

주* : '계'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 각 해당항목을 지정한 기업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표 4-27] 은행자금조달 받지못한 이유 (중소기업) [단위 : 개(%)]

	서 울				대 구 권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신용평가결과 안좋음	-	3 (30.0)	5 (83.3)	8 (66.7)	1 (4.5)	2 (11.8)	5 (35.7)	8 (36.4)
은행거래 불가능	-	1 (10.0)	-	1 (8.3)	1 (4.5)	2 (11.8)	1 (7.1)	4 (18.2)
담보 없음	12 (100)	-	-	12 (100)	19 (86.4)	2 (11.8)	-	21 (95.5)
실세금리 높음	-	5 (50.0)	1 (16.7)	6 (50.0)	-	7 (41.2)	3 (21.4)	10 (45.5)
지방에서 기업 운영	-	-	-	0 (0.0)	1 (4.5)	-	2 (14.3)	3 (13.6)
업종의 경기전망	-	1 (10.0)	-	1 (8.3)	-	4 (23.5)	3 (21.4)	7 (31.8)
기 타	-	-	-	0 (0.0)	-	-	-	0 (0.0)
계	12 (100)	10 (100)	6 (100)	12 (100)	22 (100)	17 (100)	14 (100)	22 (100)

주* : '계'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 각 해당항목을 지적한 기업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중소기업의 경우(표 4-27), 전체적으로 보면 '담보 없음'의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실제적인 신용할당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기업의 자발적 이탈 정도를 보는 '실세금리 높음' 항목 비교에서, 서울기업이 50%, 대구권기업이 45%로 서울기업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 4-25]의 결과와 [표 4-27]의 결과를 종합하여 은행에서 실질적인 신용할당의 결과로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은행대출 실질조달비율 지표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의 경우는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구권기업은 서울기업보다 신용할

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2.2. 은행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두번째 지표로, 은행 일반대출에 대한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을 선정하였다. 현재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조건으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보증대출 등이 있는데, 이 중,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은 은행에서 신용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차입자)의 경우, 담보나 신용보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원하는 만큼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수단은 결과적으로 신용할당의 방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대출²⁴⁾ 비율의 합이 높을수록 차입자는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신용대출 비율이 낮을수록 차입자는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간 은행대출조건별 대출비율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8]와 같다. 먼저,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신용대출, 중소기업은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3장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24)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다른 경제주체와의 신용거래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서,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진수, 1993, pp.69~70)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보증대출이다.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부담하는데, 이 때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출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대출조건별로 볼 때, 신용보증대출은 담보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표 4-28] 은행대출조건별 비율의 평균

[단위: %]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구권	서 울	대구권
담보대출(지급보증포함)	48.5	63.6	68.3	70.3
t 유의도	p = 0.294		p = 0.828	
신용대출	39.1	23.2	21.0	13.4
t 유의도	p = 0.214		p = 0.298	
신용보증대출	9.6	12.7	11.0	16.3
t 유의도	p = 0.743		p = 0.348	
기 타	0.6	0.5	0.5	3.2
t 유의도	p = 0.859		p = 0.444	
총 응답수	27	11	21	34

자료 : 설문조사.

지역별로 비교²⁵⁾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서울기업은 신용대출의 비율이, 대구권기업은 담보대출, 신용보증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t 통계량 검정결과를 통해 신용대출비율의 지역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보면, 유의도가 0.21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그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신용대출의 비율이 섬유, 건설업에서는 서울기업이 높으나, 전자산업에서는 대구권기업이 높다. 이에, 업종별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대구권 대기업은 서울 대기업에 비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기업은 신용대출의 비율이, 대구기업은 담보대출, 신용보증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t 통계량 검정결과를 통해 신용대출비율의 지

25) 대구상공회의소(1992)에서 대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담보(지급보증포함)대출의 비율이 83%, 신용보증대출이 10%, 신용대출이 8%, 기타 1%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보다 다소 담보대출의 비율이 높고 신용대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역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는 0.29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그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신용대출비율이 전자, 건설업에서는 서울기업이 높으나, 섬유산업에서는 대구기업이 높다. 건설업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서울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업종별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대구권 중소기업은 서울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은행 대출조건 지표를 통해 볼 때,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에 비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애로사항 척도

세번째 지표로, 기업자금조달시의 애로사항 척도를 선정하였다. 앞서 2절에서 분석한 기업 자금조달시의 애로사항 중에서, 금융기관의 신용할당에 의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는 『담보 많이 요구』, 『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의 애로척도점수를 비교하여 기업(차입자)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검정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항목에 대한 애로사항 척도의 지역별 비교결과는 [표 4-21]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서울기업이 대구권기업보다 두 항목 모두 애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두 항목 모두 애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t통계량 검정결과를 통하여 지역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보아도, 『담보 많이 요구』항목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항목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전 업종의 모든 항목에서 대구권 중소기업의 애로도가 서울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용 제대로 평가 안함』항목은 전자산업이 유의수준 5%에서, 건설업이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담보 많이 요구』항목은 전자산업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상대적인 애로도 체감도를 통해 보았을 때, 중소기업에 있어서, 대구권기업이 서울기업보다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난다.

대구권 기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에서 인터뷰대상 기업 중에서 대구권기업 만을 대상으로 대구지역의 자금조달 사항 및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29]와 같다.

[표 4-29] 지방에서 기업운영시 애로사항

구 분		지방에서 기업운영시 애로사항
본사 대구권	E기업	•상장대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정보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다.
	F기업	•시중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시 본점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지점근무자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대구지역에는 섬유산업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연쇄부도사태를 우려하여 업종이 다르더라도 덩달아 자금대출을 꺼린다.
	G기업	•현재 자금조달규모에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나, 향후 자금조달규모를 확대시킬 시에는 현재보다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때가 문제다.
	H기업	•시중은행의 지점의 경우, 간부급직원이 대부분 타지사람이라, 지역 회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지방기업의 경우 업종의 경기에 민감하다.

자료 : 기업 인터뷰조사.

애로사항을 보면, 대구지역의 산업구조가 취약함에 따른 문제, 기업연계상에 국지적 연계가 강함에 따른 문제, 전국형 은행의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신용할당 경로분석을 통하여 논의한다.

2.4. 금융시장에의 접근 경로

앞서 3가지 지표는 기업 설문자료를 가지고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

정하였는데, 그 결과 적어도 은행대출시장에서 중소기업 간에는 일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간의 차이를 통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나타나는 요인 및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수치상의 지역간 차이가 단순히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네번째 지표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경로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간에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하는가를 파악한다. 검토를 위한 자료는 기업 설문조사, 금융기관의 내부자료,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 기업의 금융기관 거래현황 (금융시장 접근가능성)

차입자(기업)가 공식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접점은 결국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에 금융기관의 거래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접근가능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거래현황을 보면, 2절의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서울기업, 대구권기업 모두 ①설문응답기업의 90%이상이 은행권(지방은행 포함)과 대출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②은행권, 제2금융권 등 공식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비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사례기업들의 금융기관의 거래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30]과 같다. 사례기업들은 모두 은행, 제2금융권과 거래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공식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특히 대구권기업의 경우, 모두 전국형 금융기관(시중은행), 지방금융기관(지방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비교를 통하여 기업의 금

용기관 접근성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주변 부지역이 공식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의 완전 분리된 정도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30] 사례기업의 거래금융기관 현황

구 분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본사 서울	A기업	10개소 이상	없음	종금사, 리스사
	B기업	4개소	없음	종금사
	C기업	3개소	1개소	종금사
	D기업	3개소	1개소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본사 대구권	E기업	3개소	1개소	리스사
	F기업	3개소	1개소	할부금융
	G기업	4개소	1개소	종금사
	H기업	4개소	1개소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자료 : 기업 인터뷰조사.

(2) 기업의 자금조달조직

다음으로, 기업 내부에서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기업의 자금조달 조직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조달행태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주로 기업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4-31]과 같다.

4장의 2절에서 기업설문자료를 통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소재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터뷰 기업의 경우에서도 대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인 A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본사는 지방이지만 자금조달활동이 100%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C기업, E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본사나 자금조달조직을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방(대구권)기업이 서울에서 자금을 조달

하는 이유를 E기업의 자금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우리 그룹은 대구에서 창업하여, 성장한 기업이다. 따라서 창업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사를 계속 대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조직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과 무역거래의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두고 있다. 서울에는 자금팀이 있어 자금조달 및 집행을 하고 있는데, 80~90%의 자금을 서울에서 조달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일부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 및 집행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는 일부의 자금조달기능과 자금집행내역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경리기능이 주가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접근가능성은 유사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금융중심지인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대구권)기업은 기업내부의 자금조달조직이나 본사의 입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31] 기업내 자금조달 조직

구 분		기업내 자금조달 조직
본사 서울	A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 자금조달 부서있음 (100% 서울에서 자금조달). • 지방의 공장에서는 경리기능만 있음.
	B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100% 자금조달.
	C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90% 자금조달. • 기업연고지인 대전에서 지방은행을 통해 10% 자금조달
	D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대부분의 자금조달 • 공장이 있는 대구에서는 지방은행을 통해 자금조달
본사 대구권	E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사무소에 자금조달부서 있음 (서울에서 80~90% 자금조달). • 본사와 공장이 있는 대구에서 일부 자금조달도 하나, 주로 경리기능만 담당.
	F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공장 단일기업으로, 대구에서 100% 자금조달
	G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100% 자금조달
	H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100% 자금조달

자료 : 기업 인터뷰조사.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지방기업이 금융시장의 접근 통로를 지방에서 서울로 변경하여 결국은 서울본사기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메카니즘의 순환작용은 지방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

다음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경로에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간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메카니즘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은행대출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은행대출시장에 접근하는 메카니즘을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은행의 유형을 Moore and Hill(1982)의 연구와 같이 전국형 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전국적인 지점은행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국형 은행은 다시 Dow (1987)의 연구와 같이, 서울본점과 대구권지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업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사례기업의 주거래은행 및 그 선정, 변경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4-32]와 같다.

사례기업의 현재 주거래은행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기업의 경우 전국형 은행의 서울본점 또는 서울지점을, 대구권기업의 경우, 전국형 은행의 대구지점 또는 지방은행의 대구권 본·지점을 주거래은행²⁶⁾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E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서울에서 조달하고 있어서 전국형 은행의 본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지점이 아닌 본점과 직접 거래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8개 사례기업 중에서 주거래은행을 변경시킨 경우는 서울과 대구권에서 각각 1개기업씩(C·H기업) 나타나는데, 그 변경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기업의 경우, 대구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로, 자금담당자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사

26) 이러한 사실은 기업재무총람 자료 및 금융기관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기업은 약 40년전에 설립하였는데, 처음에는 사업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시중은행 지점과 거래하였다. 그동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여 대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작년에 연대보증을 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이에 팩토링을 이용해서 받을어음을 할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30년이상이나 거래해온 시중은행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팩토링거래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사정에 비교적 밝아 우리기업이 그동안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형 은행 지점과 지방은행 간의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과 전국형 기업의 보수성이 지방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에 영향을 미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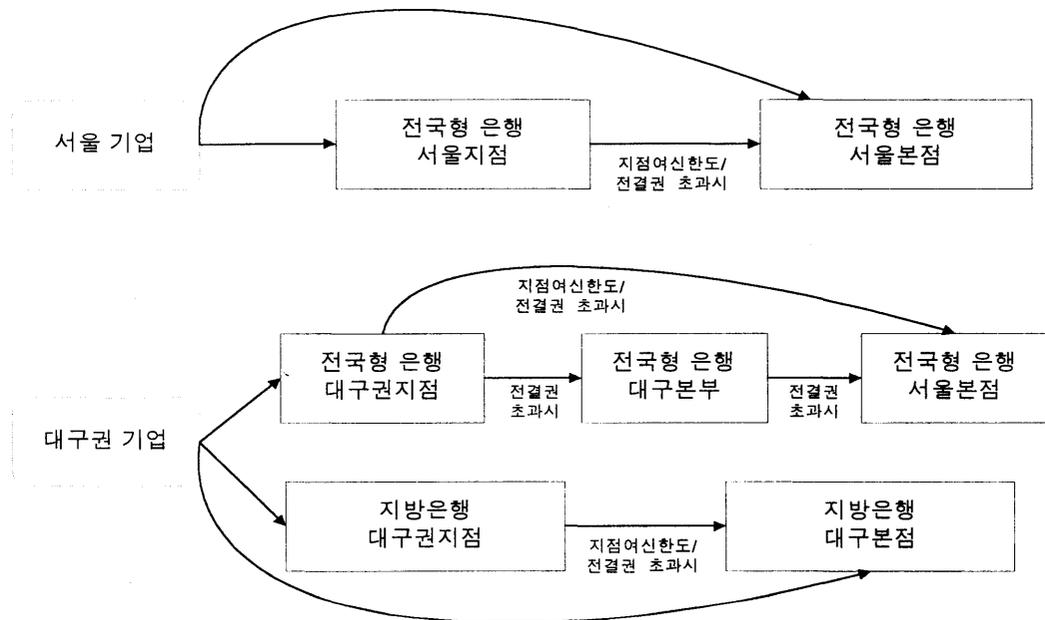
[표 4-32] 주거래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정

구 분		설립시 주거래은행	현 재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 변경여부	주거래은행 변경사유
본사 서울	A기업	시중은행 서울지점	시중은행 서울지점	없다 (지점변경)	회사이전에 따라 지점변경
	B기업	시중은행 서울지점	시중은행 서울본점	없다 (지점변경)	기업성장에 따른 여신증대로 지점에서 본사로 변경
	C기업	지방은행 대전본점	시중은행 서울본점	있다	기업여신증대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
	D기업	특수은행 서울지점	특수은행 서울지점	없다	-
본사 대구권	E기업	시중은행 서울본점	시중은행 서울본점	없다	-
	F기업	특수은행 대구지점	특수은행 대구지점	없다	-
	G기업	지방은행 대구본점	지방은행 대구본점	없다	-
	H기업	시중은행 대구지점	지방은행 대구지점	있다	팩토링개설을 조건으로 지방은행으로 변경

자료 : 기업 인터뷰조사.

라 하겠다. 한편, C기업의 경우, 지방(대전)에서 건설업을 시작하여 서울로 진출한 기업으로, 처음에는 지방은행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기업이 성장하여 자금 조달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전국형 은행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이에, [표 4-32]의 기업의 주거래은행 선정과정 내용과 은행인터뷰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서울기업과 대구권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대구권기업 간에 금융기관에 접근경로에 있어서 차별성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메카니즘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지역별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

먼저, 서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접점은 전국형 은행의 서울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어진다. 자금 조달금액이 큰 대기업의 경우 본점과 직접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여기서 서울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대출금액이 지점의 전결권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점의 총여신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접근창구가 서울본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자금조달 활동이 금융중심지인 서울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대구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접점은 전국형 은행의 대구권지점과 지방은행의 대구권 본·지점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은행의 대구권 본·지점을 통하여 접근하게 되고, 모든 자금조달이 대구권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국형 은행의 대구권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경우, 대출금액이 지점의 전결권 한도나 지점의 총 여신한도를 초과할 시에, 지역본부가 있는 은행은 대구지역본부로, 지역본부가 없는 은행의 경우 서울본점으로 접근창구가 이관된다. 여기서 대출금액이 대구지역본부의 전결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 접근창구가 서울 본점으로 이관된다.

(4)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분석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에는 금융시장의 접근가능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조직의 구성과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금융기관 접근경로에 있어서 우회성과 복잡성에 의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림 4-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대구권)기업이 전국형 은행²⁷⁾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권지점을 접점으로 하는데, 대출금액이 지점의 전결권을 초과할 경우, 대구권지점→대구본부→서울본점으로 접근창구를 변경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지점과 서울본점간의 업무

27) 이러한 우회성과 복잡성은 주로 전국형 은행의 접근경로를 통해 나타는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형 은행의 대출금 비율이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의 90%(대구권의 경우 80%)를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차입자가 이러한 메카니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대출처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²⁸⁾이 크다. 여기서 대구본부가 있는 은행의 경우, 상당부분 대구본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지역본부를 두지 않은 은행의 경우, 지점전결권을 초과할 경우, 작은 여신규모라도 서울본점으로 접근창구가 이관되므로 대구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성과 복잡성은 대구권기업에게는 일종의 거래비용·기회비용으로 작용하게 되고, 각 접점에서 지점경영자의 보수성이 개입될 경우, 결국 대구권 차입자(기업)가 서울 차입자(기업)보다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권 기업과의 인터뷰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총여신한도의 제약으로 동일한 금액을 조달하더라도 서울보다 대구권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 대출금액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먼저, 전국형 은행의 경우, 지점의 총여신한도는 일반적으로 지점의 총수신금액과 연동되기 때문에, 영업규모가 큰 서울소재지점의 총여신한도가 대구권지점의 총여신한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신한도제약으로 서울본·지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서울기업보다 대구권지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구권기업이 대출신청을 한 만큼의 대출자금 공급을 100%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국형 은행의 여신담당자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백만장자의 돈 1만원과 가난한 사람의 돈 1만원이 그 값어치가 틀리듯이,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대출금이더라도 서울의 대형지점의 경우와 지방지점의 경우 그 가치와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지방지점의 경우 대출한도액이 적은 만큼, 같은 금액이더라도 대출의사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차입자의 경우, 대출경로에서는 차별성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구권에서 예금은행 총 대출금 중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에

28) 대구권기업의 접근창구가 서울본점으로 이관될 경우, 대구권기업의 자금담당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울과 대구권을 옮겨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업무이시에 신용조사나 여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서울본점의 여신심사역이 지방기업을 평가하는데는 절차나 처리기간에 있어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출규모가 작아서 모든 대구권의 차입자가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기는 힘들며,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커질 경우, 역시 신용할당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앞의 3가지 신용할당의 지표 검증결과에서 서울 중소기업과 대구권 중소기업간에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러한 금융기관 접근경로에서 차별성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구권에서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종합적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5. 여신심사·신용평가의 경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역내부의 금융기관과 지역외부의 금융기관 간에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할당의 차별성은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신용평가과정을 통하여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섯번째 지표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신용평가의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에, 현재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경로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를 위한 자료는 금융기관의 내부자료 및 금융기관·기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의 내부자료 및 인터뷰자료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에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파악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4-33]과 같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여신심사·신용평가시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업종의 성장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도 양호해야 하지만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성장업종이어야 신용평가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출한 자금의 회수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기업의 재무구조, ②수익성, ③담보의 가치, ④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의 회수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금융기관은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시에 ①기업의 재무구조 등 기업자체의 신용의 우량성은 물론, ②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전망 및 ③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우량성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우량성을 동시에 평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33] 금융기관의 주요 여신심사·신용평가 기준

주요 여신심사·신용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의 성장가능성 •은행에 대한 기여도(예금) •여신의 회수가능성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담보가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의 회수가능성

자료 : 금융기관 내부자료 및 인터뷰조사.

이러한 사실은 자금수요자인 기업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신용평가·여신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4-34]는 기업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개별기업이 신용평가·여신심사시에 평가를 잘 받는 항목과 못 받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기업에서 지적한 중요한 신용평가 항목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 사업의 수익성, 업종의 경기전망 등이 있고, 부차적인 평가항목으로는 경영자 능력, 기업의 기술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서, 기업이 신용평가를 못 받는 항목을 보면, 먼저, 섬유·건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업종』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는 금융기관의 인터뷰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대구권의 F기업, H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못 받는 항목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업종, 받을어음 발행기업의 신용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우량성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업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구권기업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²⁹⁾.

[표 4-34] 기업의 신용평가 현황

		신용평가를 잘 받는 항목	신용평가를 못받는 항목
본사 서울	A기업	• 모두 잘받음	-
	B기업	• 재무구조 • 경영자 능력	• 대기업 치고는 규모적음
	C기업	• 수익성 • 경영자 능력	• 재무구조 • 업종(건설업)
	D기업	• 수익성	• 재무구조 • 업종(섬유)
본사 대구권	E기업	• 재무구조 • 수익성	• 업종(섬유)
	F기업	• 연구개발능력 • 특허권	• 자사보유 타사 받을어음
	G기업	• 경영자 능력	• 업종(건설업)
	H기업	• 재무구조	• 업종(건설업) • 자사보유 타사 받을어음

자료 : 기업 인터뷰조사.

지금까지의 신용평가·여신심사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용평가·여신심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재무구조, 산업전망 등과 같은 부문적 요인이 반영되지만,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역적 요인이 개입되어,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에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지역연계의 경로

앞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기준에는 대상기업의 재무구조의 우량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지역산업구조와 지역연계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29) 이러한 사실은 대구권의 4개기업에서 인터뷰한 결과이지만, 자금담당자의 응답에서 대구권의 다른 기업 역시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경제환경이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산업전망에 따라 평가가 차별적인 경우, 산업구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³⁰⁾할 수 있는데, ①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이 산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②'업종'이 가장 중요한 신용평가 기준이 된다는 인터뷰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역 산업구조의 차별성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권지역,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보다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산업구조의 차이에 의한 지역간 차별성은 산업부문의 위험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통합된 금융시장에서도 지역간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통하여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의 3가지 신용할당지표에서는 업종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업종별로 세분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중소기업간에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 업종 내에서의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의 신용할당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지역간 산업구조와 연계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 방법으로 대부분 받을어음을 수취³¹⁾한다. 이러한 기업간의 거래는 구매 및 판매연계로 표현될 수 있는데, 대금결제 방법이 대부분 신용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구매·판매연계는 결국 기업간 자금 및 신용의 흐름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받을어음을 할인하든지,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기업의 대출

30) 이러한 지역산업구조의 차이는 2장의 기존의 연구동향 검토에서도 지역금융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31) 4장 2절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금결제방법으로 신용거래가 대략 70%대임을 밝힌 바 있다.

금 회수 가능성은 받을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받을어음을 발행한 거래기업의 신용이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는 (1)개별기업의 신용 뿐만아니라 (2)구매·판매연계 즉 신용흐름상에 있는 기업 집단의 신용(신용연쇄(credit chain))이 함께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절의 구매·판매연계의 지역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그림 4-3~그림 4-6)를 보면, 대기업 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 중소기업이 대구권 중소기업보다 구매·판매연계에서 모두 해외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수출대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 많이 있으므로,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을어음의 지불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권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의 서울 기업과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용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지불불이행 위험의 최소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에 반영되게 되어, 서울 중소기업보다 신용할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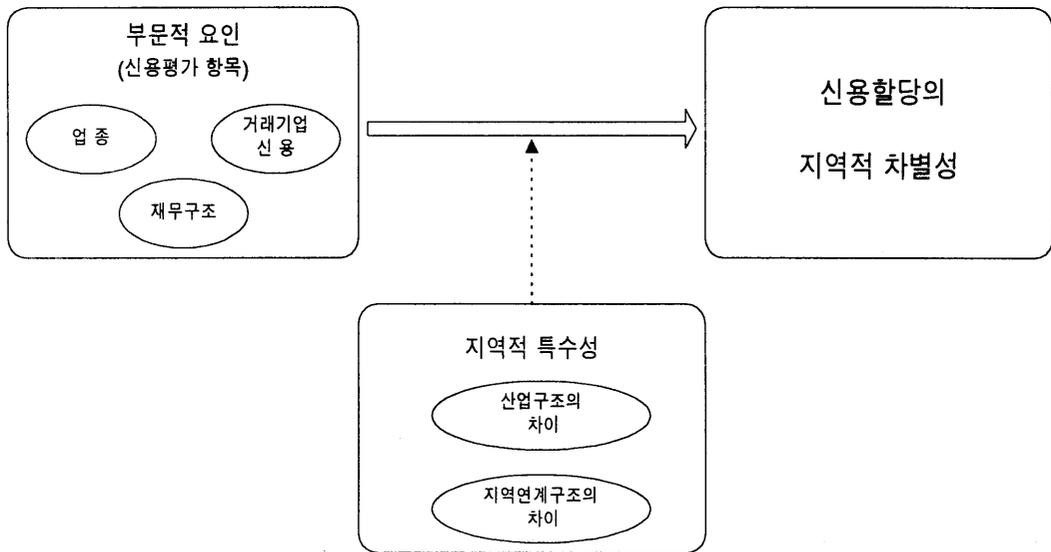
또한 위의 구매·판매연계 분석을 통하여,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판매연계에서 권역내(대구·경북지역) 집중도가 훨씬 높게³²⁾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지역내에서 판매연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은 지역내 기업이 발행한 받을어음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산업에 특화된 대구권(특히 대구)의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내 판매연계 비율이 높을수록 사양산업에 특화된 국지적인 산업·경제환경의 등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내의 연쇄부도의 위험³³⁾이 높아지게 되고,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

32) 2절의 구매-판매연계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기업 및 서울중소기업은 구매연계에 비해 판매연계의 지리적 집중도가 분산적인 반면, 대구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여기서 [표 1-2]의 지역별 어음부도를 자료에서 보듯이 대구권의 어음부도는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보다 신용할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부문적인 요인에 의한 차별적인 신용할당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연계구조가 복합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환경에 투영³⁴⁾되어, 지역적 요인에 의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³⁵⁾가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 여신심사과정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

34) 필자는 각 금융기관 인터뷰조사에서 기업의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시에 지역적 요인이 평가항목이 되는가, 다시말하면 지방소재기업이 서울소재기업에 비해 신용평가의 불리한 점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결과는 모두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업종이나 거래기업이 중요한 평가요인이라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업종과 거래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구의 섬유산업이다'라는 답변을 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표면적으로는 지역변수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 및 기업연계의 경로를 통해 지역의 경제환경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5) 여기에 대한 논의는 5장의 종합적 검토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2)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경로

다음으로, 전국형 은행의 신용평가·여신심사 과정에서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의 신용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³⁶⁾가 확인된다. 이러한 경로는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수집과 평가라는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신용정보의 수집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가 확인된다. 본점이 서울인 전국형 은행의 경우, 영업범위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지점의 경영자들은 대체적으로 2년 단위로 발령을 받아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방지점의 경우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점의 고위 경영자일수록 지역과의 밀착도가 떨어진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객관적인 재무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소문이나 직감에 의한 심사가 많이 이루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형 은행의 지점은 지방은행에 비해 신용정보가 떨어진다는 점³⁷⁾이다.

그 결과, 전국형 은행의 지점은 지방은행의 움직임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방기업에 대한 평가를 보수적으로 하여, 신용공급을 제한하든지 하는 경향³⁸⁾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대구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신용정보의 평가과정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확인된다. [그림 4-7]의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경로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구권기업이 전국형 은행에서 지점의 전결권이나 지점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36) 정보의 비대칭성은 2장의 기존 연구동향 검토에서 지역금융시장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37) 전국형 은행의 대구권지점이 대구은행보다 대구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구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와의 인터뷰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38) 이러한 점은 [표 4-35]의 지방에서 기업운영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기업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대구권지점과 서울본점에서 이중적인 여신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과정에서의 보수성이 서울기업보다 대구권기업에 차별성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먼저, 지점의 승인과정에서는 지점경영자의 행태가 이윤극대화보다는 부실채권 최소화라는 보수적인 행태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 4-29]에서 대구권기업이 자금조달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인터뷰기업의 절반인 F기업, H기업에서 지점경영자의 보수적 행태를 지적한데서 잘 나타난다. 한편, 본점 승인과정에서는 본점의 여신심사역이 해당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이 가지고 있는 받을어음 발행기업의 재무구조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데, 대구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연쇄상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 대구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기업의 신용정보는 서울 중소기업의 신용연쇄상의 기업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대구권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대구권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³⁹⁾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여신심사·신용평가경로 지표의 검토결과, ①산업구조·지역연계의 경로와 ②신용정보의 비대칭성 경로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인 서울 중소기업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 중소기업 간에 지역적 요인에 의한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의 3가지 신용할당의 3가지 지표 검증결과에서 서울 중소기업과 대구권 중소기업간에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러한 금융기관 접근경로에서 차별성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구권에서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종합적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9) 이러한 사실은, 대구권기업인 F기업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F기업은 전국형 은행의 지방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인데, F기업의 담당자는 은행에서 당해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받을어음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시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6.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4장에서는 기업 설문자료 및 인터뷰자료와 관련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간에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자료를 이용한 ①은행대출 실제조달비율, ②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 ③애로사항 척도 지표의 검증결과를 보면, 대기업 간의 비교에서는 서울 대기업과 대구권 대기업 간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 간의 비교에서는 위의 3가지 지표 모두에서 서울 중소기업보다 대구권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체계적인 경향⁴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지역적 차이의 정도에 대한 t통계량 검정결과를 보면, 애로사항 척도 지표에서는 유의수준 5%($\alpha=0.05$)에서 지역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은행대출 실제조달비율지표와 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지표에서는 유의도가 0.2 대로, $\alpha=0.05$ 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 두 지표의 경우, 유의도가 $\alpha=0.05$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3가지 지표에서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이가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3장에서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에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밝힌 검토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즉, 3장에서는 집계자료를 가지고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구조에서의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힌 반면, 4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범위를 대구권으로 좁히고, 규모변수와 업종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구권

40)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중소기업간에만 나타나고 대기업간에는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보면, 3번째 지표의 기업 자금조달조직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지방 대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중심지인 서울로 본사나 자금조달조직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차별성을 회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지방 대기업은 서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서울 대기업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부문이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중소기업부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지표에서 나타나는 지역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이 단순히 집계된 데서 비롯된 차이인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①금융시장에의 접근경로와 ②여신심사·신용평가의 경로 등 2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적 요인⁴¹⁾에 의해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경로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①금융기관 접점의 여신한도의 차이, ②산업구조·지역연계의 차이, ③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3가지 지역적 요인이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3장 <연구주제 1>의 3가지 지표와 4장 <연구주제 2>의 5가지 지표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의 '중소기업부문 간에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성은 통계자료의 검증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경로분석에서도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는 지역간 기업의 건전성(재무구조), 산업전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소결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와 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3.1.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3장의 <연구주제 1>에서는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을 대

41) 신용할당에 지역적 요인이 개입된다는 의미는, 동일한 조건의 기업이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지역변수의 차이에 의해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으로, 4장의 <연구주제 2>에서는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을 사례지역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율 스프레드에 대한 지표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연구주제 1>의 금융기관 실행이자율 비교와 <연구주제 2>의 기업 실질부담이자율 비교에서 모두 체계적인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금집중도와 신용할당에 대한 지표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연구주제 1>의 자금집중도 지표검증 결과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로의 절대적·상대적인 자금의 집중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용할당에 대한 지표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연구주제 1>의 3가지 지표와 <연구주제 2>의 5가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은행대출시장에서 서울 중소기업보다 대구권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지표의 검증을 통하여 지역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대구권(또는 지방)의 『중소기업부문』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며, 그 형태를 보면 가격조정에 의한 차이(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보다는 『수량조정』에 의한 차이(지역간 자금집중도의 차이,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간 이자율 스프레드는 발생하지 않고,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이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⁴²⁾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초과 수요 구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치금융 하에서 금리가 시장실세금리 이하에서 강제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 수요초과 현상을 보여왔으

42) 4장에서 여신심사·신용평가경로를 통하여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차등금리를 부과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신심사경로를 통하여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며, 이러한 자금의 초과수요 구조 하에서, 금융기관은 수신부문에서 적극적인 영업행태를 보인 반면, 여신부문에서는 보수적·방어적 경영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은 신용평가·여신심사과정에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차등금리 부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신용할당의 방법으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서울과 대구권 차입자 간의 신용위험의 차이를 이자율의 차등부과로 반영하기 보다는 담보대출이나 대출제약 등 신용할당 방법으로 반영하여 왔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형 금융기관이 발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예금은행 대출금의 90%가량이 전국형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Dow(1987)의 연구에서 보듯이 이러한 전국형 은행의 경우, 본점에서 전국의 자금을 취합하고 지점간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적은 거래비용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裁定附加金(arbitrage surcharge)의 부담없이 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지역간 재정거래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역간 재정거래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지점은행체제가 발달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⁴³⁾은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금융시장의 관치금융적, 중앙집권적, 보수적 성격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은 고정가격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지역간 신용위험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제약, 담보대출요구 등 신용할당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치금융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동기로 인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향후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진전되더라도 이러한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3) 사실상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역간 이자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卞정부 영업을 제한하여 지점은행체도가 상당한 제약을 받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2.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와 그 특성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에,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지역 간에,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신용할당 지표에서의 지역간 차이가 통합된 금융시장에서 지역간 매개변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 요인에 의해 차별성이 나타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대구권에서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지역요인이 내생변수가 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변수가 금융시장에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변수)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요인(변수)에 의하여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장에서는 규모변수와 업종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의 중소기업부문 간에 신용할당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도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접근경로 지표와 여신심사·신용평가경로 지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①금융기관 접점의 여신한도, ②산업구조·지역연계, ③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3가지 지역요인이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구권에서는 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규모변수와 업종변수를 통제하여 지역적 차별성을 이끌어냈지만, 이는 큰 범주를 가지고 통제된 것인 만큼, 같은 범주 내에서의 기업간의 차이는 역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지역적 차별성의 결과에는 여전히 기업의 건전성(채무구조·기술력) 등의 요인⁴⁴⁾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합된 금융시장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확인한 만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지역간 차이 중에서 통합된 금융시장에서의 개별기업의 신용위험 등 부문적인 요인의 지역간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을 비교해 볼 때, 『대구권지역』의 『중소기업부문』에서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의 형태』로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는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장의 연구의 틀에서 유형화한 지역금융시장 모델 중 <유형 3>의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을 우리나라 지역금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구권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정도를 보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완전히 분리된 수준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리·이탈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형 금융기관이 발달해 있어, 자금의 흐름이 단절된 정도로 완전고립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구권 지역에서는 자금흐름의 단절로 인해 지역 전체가 지역금융시장으로 분리될 만큼의 완전한 분리는 발생하지 않고, 일부분인 중소기업부문에서만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4장 2절의 우리나라 자금조달 구조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권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식금융시장에의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 서울 중소기업과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신용할당의 지표에서 지역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한 4가지 지표 중에서 $\alpha=0.05$ 에서 유의할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1가지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지역적 차별성의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44) 설문 및 인터뷰결과에서, 지방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서울에 자금부서를 설치하여 서울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서울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는 것이다.

지역금융시장이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는 2장의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utchinson and McKillop(1990)의 북아일랜드의 사례연구, Porteous(1995)의 캐나다의 사례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arrigan and McGregor(1987)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금융시장은 국가금융시장과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금융시장의 균형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금융시장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시장간의 차이만큼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경제지리·지역경제연구에서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인식의 수준을 확대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5장 종합적 검토 및 결론

제 1절 종합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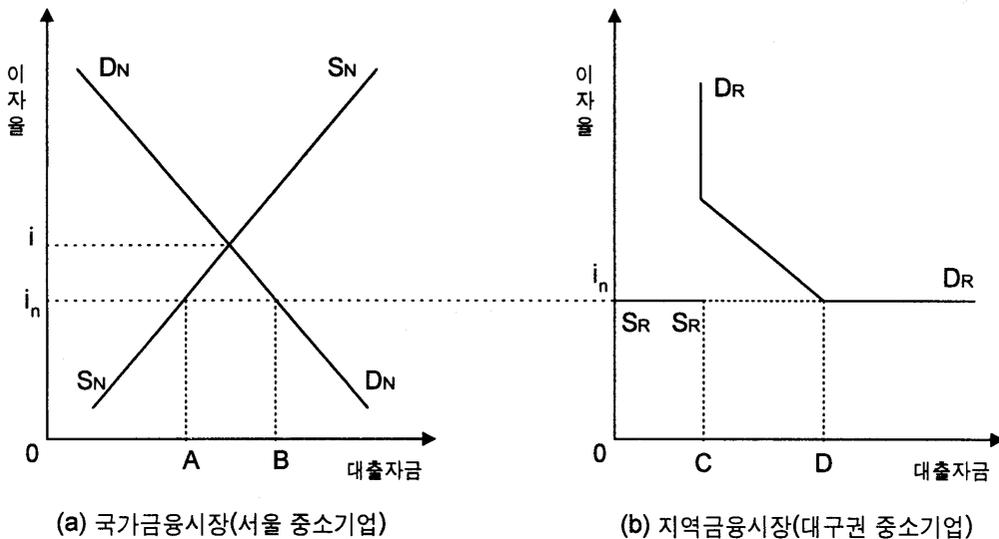
1.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와 그 특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장의 <연구주제 1>에서는 금융기관의 집계자료를 가지고 서울과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4장의 <연구주제 2>에서는 기업 설문자료 및 기업·금융기관 인터뷰자료를 가지고 서울과 대구권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은행대출시장』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의 『중소기업부문』 간에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확인하여, 『대구권지역의 중소기업부문』에서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의 형태』로 부분적인 수준에서 분리되는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장의 연구의 틀에서 유형화한 지역금융시장 모델 중 <유형 3>의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이 대구권 지역금융시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 역시 검토하였다.

그런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국가금융시장 전반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금융중심지(서울)와 지방(대구권)의 중소기업 부문간에 다시 신용할당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지역금융시장이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의 균

형을 그래프화한 것이 [그림 5-1]이다. [그림 5-1]은 2장의 <유형 3>의 신용할당형 지역금융시장모델(그림 2-13)에서, 국가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상황을 추가하여 모델화한 것이다.



[그림 5-1] 우리나라에서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

먼저 (a)국가금융시장(서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신용할당이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의 자금수요곡선($D_N D_N$)과 공급곡선($S_N S_N$)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은 i 수준이 적절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할당으로 국가금융시장의 이자율은 i_n 수준에서 형성되고, 그에 따라 실제 자금공급은 $O \sim A$ 수준에서 제한되며, $A \sim B$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b)지역금융시장(대구권)은 국가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지역간에 다시 차별적인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금융시장(서울)과 지역금융시장(대구권)간에 이자율 스프레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가금융시장에서 주어진 이자율 i_n 수준에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신용할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공급이 $O \sim C$ 수준에서 제한되고, $C \sim D$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림에서, 초과수요율 혹은 신용할당율은 (a)국가금융시장의 경우 $\frac{AB}{OB}$, (b)지역금융시장의 경우 $\frac{CD}{OD}$ 인데, 여기서 $\frac{AB}{OB} < \frac{CD}{OD}$ 이다. 이것은 대구권지역이 서울보다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2.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논의의 확대

2.1. 지역금융시장 논의의 시공간적 확대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보면,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이 서울과 대구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범위를 보면, 설문자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95년 한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논의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가능성을 추론하고 향후의 추이에 대하여 예측하는 등 논의의 범위를 시계열적으로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있어서의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자금집중도와 신용할당 지표의 검토결과, 서울과 나머지 지역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지역간에는 지표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4장에서 대구권의 중소기업부문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방금융권에도 대체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지방금융권 간에는 자금수급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 ②지역산업구조, 지역연계와 같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경제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른 지방금융권에 대하여도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추론해 보고, 향후의 추이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95년 한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자율 스프레드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자금집중도와 신용할당의 형태에서 지역간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3장에서 과거 10여년간의 대출시장의 추이를 보면, ①은행권을 중심으로 서울로의 자금집중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점, ②금융시장 전반에서 자금의 초과수요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점, ③금융시장의 성장율이 GRDP의 성장율을 훨씬 상회하여 자금이 공식금융시장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에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과거에는 ①서울로의 자금집중도가 더 높았다는 점, ②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초과수요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중심지로 자금의 우선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③공식금융시장의 자금흡수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에 지역적 차이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공식금융부문의 성장은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능케 하고, 그리하여 투자수익의 지역간, 산업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가설(김기영, 1993, p.65)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가 과거에는 공식금융시장에서 양건성예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개별지역 범위의 비공식금융시장(私債市場)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의 추이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과거의 추이 분석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경향을 추론해 본 바 있는데, ①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더욱더 줄어들고, ②정보망의 발달, 신용사회의 정착 등으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개선된다면, 향후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장의 소결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①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담보대출관행, 여신한도제약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차별성의 수단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산업구조·지역연계와 같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들은 향후에도 상쇄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향후에 금융시장이 자율화되더라도 신용할당 형태의 지역적 차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금집중도(자금량)의 기준에서 보면, ①3장의 금융기관 전체의 대출금 추이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로의 자금집중비율이 50%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②직접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지방에서 조성된 신탁자금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로의 상대적인 자금집중에 의한 금융시장의 차별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전체 금융시장으로의 논의의 확대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출시장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를 감안하여, 대출시장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직접금융시장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그 경제적 여파가 큰 사금융시장(사채시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대출시장 이외의 여타 금융시장 유형으로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시장 등의 직접금융시장으로 논의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간에 채권발행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를 검토(표 4-23, 4-24)한 바 있다. 검토 결과,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이자율에서 지역간 스프레드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발행의 경우 대출자금에 비해 이자율의 지역간 스프레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채권시장의 경우 이자율 결정이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적 차별성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론은 채권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채시장으로 논의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식금융시장에서의 지역적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채시장의 경우,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유연성이 크며, 자금 흐름의 범위가 국지적이기 때문에, 공식금융시장에 비해 지역적 차별성이 더 뚜렷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에, [표 1-2]와 같이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 어음부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서울과 지방간의 사채시장에서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결론은 역시 사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논의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이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는 추세를 볼 때, 향후 지역적인 정보에 기초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 금융상품의 거래범위가 일정 지역에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금융상품의 시장에서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Clark and O'Connor(1995)의 연구에서 『불투명상품(opaque products)』으로 분류한 ‘특정 지역의 자산 및 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설계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동산 증권화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REIT, 일본의 抵當證券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또는 저당권을 금융상품화(유동화)한 예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재 저당권을 증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특히, SOC투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개발사업의 증권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생금융상품들이 개발될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유통되는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lark and O'Connor(1995)의 분류기준을 따를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대출시장(대출상품)은 지역차원의 불투명상품의 성격에서 국가차원의 반투명상품의 성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금융시장으로서의 대구권의 특성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권 간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과, 그 경로와 요인이 무엇이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4장의 연구에서 대구권 중소기업부문에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지역금융시장으로서의 대구권의 특성을 고찰한다. 즉, 대구권지역의 고유한 경제환경·경제지리가 금융시장의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결되며, 그 결과 대구권의 금융활동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3.1. 대구권 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연계

4장의 검토에서 대구권지역의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기업의 지역연계가 국지적인 점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여신심사과정에 반영되어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지역연계와 금융시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여, 대구권지역의 지역환경·경제지리가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적 차별성이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변수만으로도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모와 업종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부문간에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은 지역의 경제환경, 경제지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적 요인으로 평가되는 신용평가의 항목은 산업, 거래기업 등의 요인이 있는데, 이는 부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적 요인들은 개별지역의 차원에서 조망할 경우,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지역연계(linkage)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환경·경제지리 요소로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연계를 들 수 있다.

먼저, 지역연계의 경우, 4장의 신용할당의 지표검증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

이, 대구권 중소기업과 서울 중소기업간에 해외지역연계 비율의 차이가 크고, 이것이 신용할당의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경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업종을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여 구매·판매연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1], [표 5-2]와 같다.

[표 5-1] 업종별 원료구매지역 비율의 평균(중소기업) [단위 : %]

구 분		연계지역	서 울	대구권	해 외
섬유/의류	서 울		65.6	2.5	10.6
	대구권		16.7	43.9	0
전기/전자	서 울		33.2	0.5	24.1
	대구권		10.0	50.7	12.7
건 설	서 울		50.0	6.7	0
	대구권		3.9	90.6	0

자료 : 설문조사.

[표 5-2] 업종별 제품판매지역 비율의 평균 (중소기업) [단위 : %]

구 분		연계지역	서 울	대구권	해 외
섬유/의류	서 울		26.4	2.1	52.9
	대구권		36.1	47.2	6.7
전기/전자	서 울		39.1	5.5	17.3
	대구권		4.4	73.4	3.4
건 설	서 울		47.5	2.5	0
	대구권		0.5	91.5	0

자료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표 5-1]의 구매연계, [표 5-2]의 판매연계 비교에서, 섬유·전자 모두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해외지역연계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업종별 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서울 중소기업과 대구권 중소기업

간에 해외지역연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서울 중소기업에서 해외 연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출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더라도 서울 중소기업과 대구권 중소기업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의 경제환경이 기업의 자금활동은 물론 자금결제수단인 무역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구권 중소기업이 서울로 진출할 경우, 자금활동권의 변화는 물론 지역연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신용을 다르게 평가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지리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가져오는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구조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구권지역, 그 중에서도 대구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산업이 특화¹⁾되어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산업구조는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신용위험이 다른 개별산업의 집계치일 뿐만 아니라, 그 '산업구성의 다양성의 정도'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사양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을 경우, 그 지역은 산업경기의 위협에 노출될 경향이 크고, 그 영향은 당해 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전체 산업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글래스고우지방과 같이 조선산업에 특화되어, 한 때 유망한 지역이었다가 조선경기의 하락으로 지역경제 자체가 침체된 사례(Hall, 1985)는 단적인 예²⁾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 연계구조가 국지적으로 나타날 경우 신용위험의 상승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구조가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판매연계에서 국지적 연계가 강한 대구권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산업구조의 단순·취약성과 지역연계의 국지성이라는 경제지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융시

1) 사업체수 및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지역에서 섬유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다.

2) 물론, 실리콘벨리와 같이,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장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구에서 기업운영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인터뷰결과(표 4-29)에서, 대구에서 전자산업을 운영하는 F기업 자금담당자의 '대구에는 섬유산업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연쇄부도사태를 우려하여 업종이 전자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금대출을 꺼린다'는 답변은 이러한 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지역연계의 단순성이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재무이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포트폴리오효과³⁾가 발생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다변화된 산업구조·연계구조를 가진 지역의 기업은 국지적인 경기의 등락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사양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와 국지적인 연계구조가 복잡된 지역의 기업은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효과가 지역간에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지역포트폴리오효과(regional portfolio effect)』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지역연계와 같은 경제지리·경제환경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진전되는 상황하에서도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2. 대구권 지역금융시장의 축소지향적 성향

4장의 신용할당 지표검토 결과에서 대구권 중소기업과 서울 중소기업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보면, ①은행대출 실제조달비율, ②대출조건별 대출금 비율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기업이 느끼는 자금조달 애로사항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에서는 $\alpha=0.05$ 에서 유의한

3) 포트폴리오효과(portfolio effect)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종목수가 많을수록, 투자종목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박정식, 1993, p.220).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에
서 대구권 중소기업이 받는 신용할당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대구권의 기업자금조달활동의 축소
지향적 성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대구권 자금조달활동의 축소지향적 성향은 대구권지역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사정에 대한 대구권기업과의 인터뷰과정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답변으로
G기업의 자금담당자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금조달과정에서 대구지역 기업들의 행태는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적이다, 따라
서 사업확장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구지역에서 비교적
사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도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도 은
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처음부터 대출신청을 포기
해 버린다.

이러한 대구권 기업의 축소지향적 성향은 또한 기업설문조사에서 은행자금조
달을 100%할 수 없었을 경우의 대응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응답결과는 [표 5-3], [표 5-4]와 같다. [표 5-3]은 대기업, [표 5-4]는
중소기업의 응답결과인데, 먼저, 대구권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사
업계획을 축소·포기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대구권 중
소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포기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55%나 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기업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이자
율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대구권기업의 경영자들은 은행권에
서 대출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다른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유지적인 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된다. 따라서 축소지향적인 자금조달 행태가 개입될 경우, 대구권 중소기
업들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자금조달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체감하더라도, 이것이 이자율의 차이나 신용할당의 차이 등의 객관적인 지표에
서는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표 5-3] 은행자금조달 받지 못한 경우 대응방식 (대기업) [단위 : 개(%)]

	서 울			대 구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계*
사업계획 축소·포기	2 (11.8)	1 (7.7)	3 (17.6)	2 (33.3)	1 (16.7)	3 (50.0)
제2금융권 대출	9 (52.9)	8 (61.5)	17 (100)	1 (16.7)	1 (16.7)	2 (33.3)
사채대출	-	-	0 (0.0)	-	-	0 (0.0)
주식/회사채 발행	5 (29.4)	3 (23.1)	8 (47.1)	2 (33.3)	1 (16.7)	3 (50.0)
기 타	1 (5.9)	1 (7.7)	2 (11.8)	1 (16.7)	2 (33.3)	3 (50.0)
계	17 (100)	13 (100)	17 (100)	6 (100)	5 (100)	6 (100)

주 : '계'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에서 각 해당항목을 지정한 기업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표 5-4] 은행자금조달 받지 못한 경우 대응방식 (중소기업) [단위 : 개(%)]

	서 울			대 구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계*
사업계획 축소·포기	2 (16.7)	-	2 (16.7)	9 (45.0)	2 (15.4)	11 (55.0)
제2금융권 대출	6 (50.0)	2 (28.6)	8 (66.7)	9 (45.0)	4 (30.8)	13 (65.0)
사채대출	2 (16.7)	1 (14.3)	3 (52.0)	-	6 (60.2)	6 (30.0)
주식/회사채 발행	1 (8.3)	3 (42.9)	4 (33.3)	1 (5.0)	1 (7.7)	2 (10.0)
기 타	1 (8.3)	1 (14.3)	2 (16.7)	1 (5.0)	-	1 (5.0)
계	12 (100)	7 (100)	12 (100)	20 (100)	13 (100)	20 (100)

주 : '계'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에서 각 해당항목을 지정한 기업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3.3. 지역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역할

2장의 지역금융시장에 관한 기존문헌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형 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행태의 차이가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제도

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은행의 역할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구권의 금융활동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권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우리나라 지방은행 중에서도 여수신규모가 가장 크며, 지역 밀착형으로 영업성과도 좋은 것⁴⁾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은행과 대구기업간의 관계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대구기업 중 50%이상이 대구은행을 통하여 대출자금을 공급받고 있었다. 여기서, 인터뷰 결과⁵⁾ 및 대구의 금융현황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대구지역에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은행은 전국형 은행의 대구권지점에 비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인 대구권기업들이 간편한 대출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2장의 문헌검토에서 파악하였듯이,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전국형 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다는 가설이 대구권 지역에서도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담보대출 관행 등에서 지역차입자에게 더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대구권에서 조성된 자금을 제대로 대구권지역 차입자를 위해 풀지 않고 신용조건이 더 좋은 서울지역으로 유출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⁶⁾이다.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유출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는 가설은 Moore and Hill(1982)의 [그림 2-5]의 경우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⁷⁾. 이러한 지방은행의 보수적 성향은 대구권 전반의 축소지향적

4)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영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다.

5) 이러한 인터뷰 대상으로는 기업외에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등이 있다.

6)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들은 '대구은행의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은 그 만큼 대구권지역의 경제주체들에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그림 2-5]의 모델은 국가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이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전제하는 만큼, 지역간 이자율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할당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데에도 지방은행 행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로, 지방은행은 대구금융권에서 기업신용에 대한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기법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기업신용을 개인적인 정보나 소문에 의해 주로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지방은행(장충식, 1994 p.151)의 기업신용평가 결과가 여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대해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대구금융권에서 지방은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권 지역에서 지방은행은 단일금융기관으로는 여신규모가 가장 많지만, 대구권지역에서 은행전체 여신의 20% 수준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역할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제2절 지방의 금융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에 차별성이 발생하고, 나아가 대구권의 중소기업부문에서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은 결국, 지방의 금융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의 금융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의 형태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면, 국가에서 동일한 금융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개시장조작이나 지준금확대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려

할 때, 정책수단이 집행되는 경로인 은행창구에서 지역간에 차별적으로 신용을 할당하면, 그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로 경기부양의 속도나 체감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역금융시장의 초기의 논의들을 보면, 과연 금융정책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동질적인가, 차별적인가 하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었고, 그 만큼 금융정책의 지역적 파급효과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그 전달경로를 통하여 지역간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 격차가 심화된다는지, 국지적인 지역에서 파산(연쇄부도)이 급증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대구권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서울에 비해 높을 뿐만아니라, 그 등락폭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차별성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의 변화가 국지적인 지역에서 확대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금융정책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금융정책을 사용할 시에 정책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 지역균형개발정책에의 시사점

한편,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는 작업을 통하여 대기업 본사의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 지방의 자금조달규모, 수단은 한계가 있고 조달조건도 불리하므로, 지방의 기업은 ①보수적으로 성장을 포기하든지, ②적극적인 성장을 원할 경우,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든지, 자금조달기능을 서울로 이전하는 탈지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줄이려는

방안은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탈지방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다양성의 양상을 나타낸다면, 여기에 정책이 개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특정지역 경제주체들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한 원론적인 정책방편은 지방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자금조달수단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정책자금지원과 같은 시장의 자율적 메카니즘을 무시한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지방기업이 다양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하부구조 등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구금융권과 관련하여 볼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지방기업의 신용정보를 공신력있게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업들이 자율적 시장 메카니즘하에서 직·간접금융시장에 접근하는데 근간이 되며,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하부구조이다(장충식, 1994, p.129). 따라서 지방기업이 안고 있는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지적인 지역연계를 가진 지방기업의 신용연쇄를 공신력있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방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은 줄어들 것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감소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수준을 하락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대구권기업의 접근성이 취약한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들 수 있다. 4장의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비교(표 4-10, 표 4-11)에서 보았듯이 서울기업과 대구권기업 간에 접근성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주식발행, 회사채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시장 부분이다. 특히 자금

8) 지방기업을 전담하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필요성은 기업인터뷰조사과정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우수한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조달 애로사항 비교(표 4-22)에서 보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요건이 까다롭다'는 항목에서 대구권 중소기업은 서울 중소기업보다 유의수준 10%에서 더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서 금융기관별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를 보면 [표 5-5]와 같은데, 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은행신탁, 투자신탁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탁부분은 회사채나 주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된 서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주로 은행대출시장에서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그 해결 방안을 자금조달측면에서 은행대출시장과 대체관계에 있는 직접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증권거래소의 설립(이동준, 1996, p.12), 지방공사채시장의 육성(이동준, 1996, p.9 ; 권상장, 1995, p.25 ; 대구상공회의소, 1993, p.51) 등이 있다.

[표 5-5]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 ('95년 11월말 기준)
[단위 : 10억원(%)]

금 용 기 관		예 금 (A)	대출금 (B)	예대차 (B-A)
예 금 은 행		11,674	14,661	2,987
비 통 화 금융기관	은 행 신탁	7,730	3,230	- 4,499
	투 자 신탁	4,928	225	- 4,730
	기 타	19,491	14,707	- 4,784
합 계		43,823	32,823	- 10,999

자료 : 대은금융경제연구소, 1996,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대응방안.

3. 금융시장개방에의 시사점

'90년대 들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가입으로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시장 개방

이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더욱 더 벌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하여는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가상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 및 금융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창구가 금융중심지인 서울에만 일방적으로 집중⁹⁾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기업간의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계속 존재한다면, 금융시장의 서울집중도는 더욱더 심화되고, 지역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저리의 자금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서 신용할당현상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에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별성이 줄어들 수 있다.

위의 두 시나리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어느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따라서 지방의 금융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맺음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9) 이러한 사실은 4장의 외국은행 대출금이 90% 이상 서울에 집중된 사실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차별성이 나타날 경우 그 발생요인 및 경로를 분석하여,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2장에서는 관련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먼저, 연구목적과의 관련성 하에서, ①포괄적으로, 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의 개념과 ②국가금융시장과 분리되는 내생적인 금융시장 균형결정 메카니즘이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형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①완전통합형, ②이자율 스프레드형, ③신용할당형, ④이자율 스프레드-신용할당 동시발생형으로 유형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자금집중도, ③신용할당을 채택하였고,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①이자율 스프레드, ②신용할당을 채택하였다.

이에, 3장에서는 첫번째 연구주제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통계자료와 사례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내부 집계자료이다. 연구방법으로, 통계자료분석, t통계량 검정 등의 정량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주제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고, 그 차별성의 발생요인 및 경로를 분석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 및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금융시장의 자금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와 기업·금융기관의 인터뷰자료이다. 연구방법으로, t통계량 검정 등의 정량적인 방법과 인터뷰조사를 통한 경로파악 등의 정성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먼

저, 우리나라에서의 국가금융시장과 지역금융시장의 균형을 모델화하였으며, 지역 금융시장으로서의 대구권 금융활동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금융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으로, 본 연구가 금융정책과 지역균형개발정책 및 금융시장 개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대출금 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서울은 금융중심지의 위치를, 나머지 지방은 주변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의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 '이자율 스프레드'기준에서는 지역간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자금집중도'기준에서는 생산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서울에 집중하며, '신용할당'기준에서는 금융중심지인 서울의 차입자보다 주변부인 나머지 지방의 차입자가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주변부인 나머지 지방간에, '자금집중도' 및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지방금융권인 대구권(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조달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여, 서울과 대구권이 독자적인 금융활동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 설정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검토결과를 보면, '이자율 스프레드'기준에서는 지역간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신용할당'기준에서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서울 중소기업보다 대구권 중소기업이 신용할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용할당 경로지표의 검토결과, ①금융시장 접점의 여신한도의 차이, ②산업구조·지역연계의 차이, ③정보의 비대칭성 등 3가지 지역요인이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구권지역』의 『중소기업

부문』에서,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의 형태로 국가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역금융시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①전국형 금융기관이 발달로, 자금흐름이 단절될 정도의 완전고립된 지역금융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②지역간 차이에 대한 t통계량 검증을 한 지표 중에서,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많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국가금융시장에서 분리된 정도는 부분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힌 연구가 없었다는 점,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연구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용할당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힘으로서, 관련연구 및 정책분야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금융시장 연구를 통해 금융정책 및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화의 유형과 차별화가 발생하는 경로의 해석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금융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요한 관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경제지리학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인 지역연계연구를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주제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 동안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연계 연구는 구매연계와 판매연계를 통한 물자연계 및 그 반대방향으로의 자금의 흐름을 통하여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된 흐름이었다. 여기서, 본 연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자금결제과정이 대부분 신용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지역연계를 신용의 흐름으로 연결시켰으며, 이를 통해 지역연계의 차이가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경로 및 요인이 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금융시장 연구는 물론 지역연계 연구분야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역별 거시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보편적인 설명력을 가진 계량모형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할당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역수요곡선을 추정하여 지역의 초과자금수요를 도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작업은 통계자료의 한계로 사실상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어진 자료의 제약하에서 가장 적절한 자료와 방법론을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둘째로, 지역금융시장의 공간적 범위의 설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지역적 단위로 서울과 대구권을 먼저 설정하고, 이후에 이러한 공간적 범위설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적절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연구는 앞으로 지역금융시장과 관련하여 밝혀져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로 판단된다.

셋째로, 금융시장과 실물부문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을 해석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금융시장의 차별성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 역시 향후에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는 주로 대출시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이나 사채시장에서의 지역간 차별성에 대한 문제에는 상세하게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종합적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접금융시장, 사채시장 역시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후속적으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 내 문 헌

- 강병수, 1995, “지역사회의 특성과 공공지출과의 관련성 분석”, 『국토계획』, 통권 7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강병호, 1994, 『금융제도론』, 박영사.
- 국민은행, 1994,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
- 권상장, 1995,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의 활성화방안』, 한국은행 대구지점.
- 김규형, 1992, “불균형정보의 관점에서 본 정책금융”, 『금융연구』, 6권, 2호.
- 김극수, 1996, “지방금융자금의 역외유출과 대응방향”, 한국은행.
- 김기영, 1993, 금융시장의 이중성하의 환율 및 금리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민, 이은모, 1990,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분석”, 『조사통계월보』, 3월호, 한국은행.
- 김응진, 1992, “우리나라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신용배분”,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 김중용, 1986, “산업발전과 정책금융”, 『한국개발연구』, 봄호.
- 김현의, 1993,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통화와 신용의 역할”, 『금융경제연구』, 제55호, 한국은행.
- 노기성, 1988, “준비금 유출입의 불확실성과 은행신용창조”, 『금융경제연구』, 제1권, 제3호, 한국은행.
- 대구상공회의소, 1992, 『대구지역기업 금융조달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
- 박삼욱, 1994, 『중소기업 창업/도산 현황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 박삼욱, 1996, 한국 첨단산업의 지방화와 세계적 연계망, 『국토계획』, 제31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영철, 1988, 『금융발전의 과제와 정책-학술연구총서 27』,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 1986,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1985-2000』, 한국개발연구원.
- 박원석, 1990, “공간적 분업과 지방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구미공업단지 섬유·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지역학회.
- 박정식, 1993,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 서병한, 1993,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변수 선택 - 통화, 이자율 및 신용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52호, 한국은행.
- 성정호, 최운규, 1991, “우리나라의 금리결정요인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6호, 한국은행.
- 손동진, 1993, 신용할당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일, 1992, 제조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연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철, 1988, 1965년 한국의 금리현실화조치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상선, 1989,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은행”, 『금융환경변화와 지방은행』, 전북은행.
- 이덕훈, 최범수, 정승우, 1994,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새마을금고의 발전』, 한국개발연구원.
- 이동준, 1996,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대구·경북 경제리뷰』, 9-10월호, 대은금융경제연구소.
- 이명훈, 1994, “가계소비의 변동과 유동성제약”, 『금융경제연구』, 제71호, 한국은행.
- 이헌재, 1987, 『신용평가제도의 확립과 금융시장의 건전화』, 대한상공회의소.
- 장덕주, 유진방, 1991, “금리자유화와 사금융시장”, 『금융경제연구』, 제22호, 한국은행.
- 장재우, 1989, “금융환경변화와 지방은행”, 『금융환경변화와 지방은행』, 전북은행.
- 장충식, 1994, 『금융자율화와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
- 전성인, 1996,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 정운찬, 1991,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
- 정익준, 1994, “미시적 관점에서 본 대출금리 행태와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제69호, 한국은행.
- 조성제 외, 1994, “일반은행 대출구조의 변화 추이”,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 조순철, 1994,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재성, 유찬우, 1996, “1995년도 일반은행의 경영실적 분석”, 『조사통계월보』, 4월호, 한국은행.
- 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 1996, 『지역소재기업 '95년중 직접금융 조달실태 분석』.
- 최성환, 1991, “정보가 불완전한 환경하에서의 금융기관 신용할당현상에 대한 연구 :

- 도의적 이탈과 상반적 선택의 이론적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3호, 한국은행.
- 최용호, 박상우, 1996, “지역산업발전과 지방은행의 역할-중소기업금융 원활화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학회 발표문.
- 최장봉, 1990, “불균형대출시장모형에서의 은행의 대출공급행태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권, 제4호, 한국은행.
- 통계청, 1996, 『지역내총생산』.
-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5, 『프로젝트 금융의 유형, 자원 및 기법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 1994, 『국민계정』.
- 한국은행, 각년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각년도, 『은행경영통계』.
- 한국은행, 각년도, 『지역경제통계』.
- 한국은행, 각년도 각월호, 『지역금융통계』.
- 한국은행, 각년도 각월호, 『통화금융』.
- 한국은행 대구지점, 1995, 『역내 자금사정 및 금융이용실태 조사 결과』.
- 한진수, 1993, 『금융자유화와 산업금융의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 해외건설협회, 1987, 『국제개발금융의 실태와 활용방안』.
- 홍기용, 1990, 『지역경제론』, 박영사.

2. 외 국 문 헌

- Amos O. M., Wingender J. R., 1993, “A model of the interaction between regional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growt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3.
- Anne H., 1991, “Four Types of Investment in Land and Prop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3)
- Barr D. G. and Cuthbertson K., 1991, “The Flow of Funds : Construction and Uses,” in C. J. Green and D. T. Llewellyn, *Surveys in Monetary Economics : vol.2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Blackwell.
- Beare J. B., 1976, “A Monetarist Model of Regional Business Cycl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6(1).

- Bias P. V., 1992, "Regional Financial Seg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3).
- Bolton R., 1985, "Regional Economic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5(4).
- Bond P., 1993, "Economic Origins of Black Township in Zimbabwe : Contradictions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in the 1950s and 1960s," *Economic Geography*, 69(1).
- Boyne G. A., 1992, "Regional Influences on Local Policies : The Case of the Welsh Effect," *Regional Studies*, 26(6).
- Brueggeman W. D. and Fisher J. D., 1993. *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 IRWIN.
- Chick V., 1992, "The Evolution of Banking System and the Theory of Saving, Investment and Interest," in P. Arestis and S. C. Dow, *On Money, Method and Keynes*, St. Martin's Press.
- Choi J. H., 1993, "Spatial Analysis of Financial Activities in the Korean Urban System," 『대한지리학회지』, 제28권 제4호.
- Clark G. L., 1993, "Global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development : business linkag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a world of financial risk,"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8.
- Clark G. L. and O'Connor K., 1995, "The Informational Content of Financial Products and the Spatial Logic of Global Finance,"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Colloquium 발표문.
- Coakley J., 1994, "The integration of property and financial marke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 Coast J. S., Eilson R. W. and Martin R. C., 1987, "Public Capital, Regional Output, and Development :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3).
- Coffey W. J. and Polese M., 1987, "Trade and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2.
- Conway R. S., 1980, "Changes in Regional Input-Output Coefficients and Regional Forecastin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0.
- Conzen M. P., 1975, "Capital Flows and the Developing Urban Hierachy : Stage Bank Capital in the U. S.," *Economic Geography*, 51.
- Cosci S., 1993, *Credit Rationing and Asymmetric Information*, Dartmouth.

- Davis R. C. and Banks L., 1965, "Interregional Interest Rates Differentials : An Emprical Note," *Monthley Reviews*, Federal Reserve Bank of NewYork, August.
- Dendrinos D. S., 1982, "On the Dynamic Stability of Interurban/Regional Labor and Capital Movem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4).
- Dicken P., 1976, "The Multiplant Business and Geographical Space : Some Issues in the Study of External Control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10.
- Doling J., 1990, "Mortgage default : why Finland is not like Britai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2.
- Dow, S. C., 1987, "The treatment of money in regional economic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1).
- Dow, S. C., 1990,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ower Publishing Group
- Dow S. C., 1992, "The Regional Financial Sector : A Scottish Case Study," *Regional Studies*, 26(7).
- Dow S. C., 1994,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Credit Availability," in S. Corbridge, R. Martin and N. Thrift, *Money, Power and Space*, Blackwell.
- Fagan R. H., 1990, "Elders IXI : Finance capital and the geography of corporate restrutur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22.
- Fishkind H., 1977, "The Regional Impact of Monetary Policy : An Economic Simualtion Study of Indiana 1958-1973,"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7(1).
- Garrison C. B. and Kort J. R., 1983, "Regional Impact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 A Com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2).
- Gertler, M. S. 1987,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regional investment and technical change in canada,"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62.
- Gertler M. S., 1984, "The dynamics of Regional capital accumulation," *Economic Geography*, 60(2).
- Goldberg M. A., Helsley R. W. and Levi, 1989, "The Loc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ies," *Regional Studies*, 23(1).
- Greenwald B. C., Levinson A. and Stiglitz J. E., 1993,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 Giovannini(ed.),

Finance and Development : Issues and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gorio J. D. and Sturzenegger F., 1994, "Credit Markets and the Welfare Costs of Inflation,"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Hajdu J. G., 1994, "Recent cycles of foreign property investment in central Sydney and Melbourne," *Urban Geography*, 15(3).
- Hall P., 1985, "The geography of the Fifth Kondratieff," in P. Hall and A. Markusen (eds.), *Silicon Landscape*, Allen & Unwin.
- Harrigan F. J. and McGregor, 1987, "Internat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 A Model of Intermediate Financial Capital Mobil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3).
- Harrison R. T. and Mason C. M., "The Regional Impact of the 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 in the United Kingdom," *Regional Studies*, 20(6).
- Hendershott P. H. and Van Order R. 1989, "Intergration of mortgage and capital markets and the accumulation of residential capital,"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
- Henning C. N., Pigott W. and Scott R. H., 1975, *Financial Markets and the Economy*, Prentice-Hall.
- Hicks, D. and Lee, S. K., 1994, "Regional Economic Impact of Fedral R&D by Funding Source and Performer Type," *Regional Studies*, 28(6).
- Hughes, M. 1991, "General Equilibrium of a Regional Economy with a Financial Sector - Part I : An Accounting Framework with Budget and Balance Sheet Linkag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1(4).
- Hughes, M. 1992, "General Equilibrium of a Regional Economy with a Financial Sector - Part II : A Simple Behavioral Mode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1).
- Hutchinson R. W. and McKillop D. C., 1990, "Regional Financial Sector Models : An Application to the Northern Ireland Financial Sector," *Regional Studies*, 24(5).
- Hutchinson R. W. and McKillop D. C., 1991,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Financial Markets : A United Kingdom Regional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25(6).
- Inman R. P., 1989, "New research in local public financ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

- Ito T. and Ueda K., 1991, "Tests of the Equilibrium Hypothesis in disequilibrium Econometric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redit Rationing,"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2(3)
- Jackson J. E., 1995, "Bank structure and new business creation lessons from an earlier tim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5.
- Jones R. and Whalley J., 1990, "Regional balance sheets of gains and losses from national polic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
- Karaska G. J., Moore C. M. and Susman P., 1983, "The Regional Industrial System," in F. E. Hamilton and G. J. R. Linge, *Spatial Analysis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3, Regional Economics and Industrial Systems*, John Wiley and Sons.
- Killpatrick J. A., 1991, *Financing Development and Constriction in the 90s*, Home Builder Press.
- Kirwan R. M., 1989, "Finance for urban public infrastructure," *Urban Studies*, 26(3).
- Krmenec A. J., 1990, "The Impact of an Investment Incentive : Differential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Revenue Bond," *Regional Studies*, 24(2).
- Lee R. and Schmidt-Marwede U., 1993, "Interurban competition? Financial centres and the geography of financial 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7.
- Leyshon A., 1996, "Dissolving deference? - Money, disembedding and the creation of global financial space," in P. W. Deniels and W. F. Lever (eds.), *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 Longman.
- Li D. D. and Li S., 1996, A Theory of Corporate Scope and Financial Structure," *The Journal of Finance*, 51(2).
- Lord J. D., 1987, "Interstate banking and the relocation of economic control points," *Urban Geography*, 8.
- Lord J. D., 1992, "Geographic deregulation of the U.S. banking industry and spatial transfers of corporate control, *Urban Geography*, 13(1).
- Lo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Malhotra D. M. and Garofalo G. A. 1988, "Analysis of regional productivity with capital as a quasi-fixed factor,"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8.

- Martin, R. and Minns, R., 1995, "Undermining the Financial Basis of Regions : The Spatial Structure and Implications of the UK Pension Fund System," *Regional Studies*, 29(2).
- Marz D. F. and Semple R. K., 1985, "Hierarchical corporate decision making structure within the Canadian urban system : The case of banking," *Urban Geography*, 6.
- Mattesini F., 1993, *Financial Markets,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croeconomics Equilibrium*, Dartmouth.
- Merriman D., 1990, "Public capital and regional outpu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
- Meyer P. A., 1967, "Price Discrimination, Regional Loan Rates, and the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Finance*, 22.
- Moore C. L., Karaska G. J. and Hill J. M., 1985, "The impact of the banking system on regional analysis," *Regional Studies*, 19(1).
- Moore C. L. and Hill J. M., 1982, "Internat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4).
- Nevitt P. K., 1989, *Project Financing*, Euromoney Press.
- Noe T. H. and Rebello M. J., 1996, "Asymmetric Information, Managerial Opportunism, Financing, and Payout Policies," *The Journal of Finance*, 51(2).
- Oizumi E., 1994, "Property finance in Japan : expansion and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 Park S. O., 1991,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Korea : Spatial Linkages and Policy Implications," *Geoforum*, 22(4).
- Park S. O., 1993,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 the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25.
- Park S. O., 1994,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 major triggers an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 Park S. O., 1995, "Seoul, Korea : City and Suburbs," *Asian NIEs and Global Econom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rk S. O., 1996, "Networks and embeddedness in the dynamic types of new industrial distric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1).
- Park S. O. and Markusen A., 1993, "The State as Industrial Locator and District

- Builder : The Case of Changwon, South Korea," *Economic Geography*, 69(2).
- Park S. O. and Markusen A., 1995,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 a theoretical agenda and an application from a non-Wester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 Park Y. C., 1994, "Korea: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Financial System," in H. T. Patrick and Y. C. Park (eds.),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Japan, Korea, and Taiwan*,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Y. C., 1993, "The role of fi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in A. Giovannini(ed.), *Finance and Development : Issues and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Y. C. and Kim D. W. 1994, "Korea: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Banking System," in H. T. Patrick and Y. C. Park (eds.),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Japan, Korea, and Taiwan*, Oxford University Press.
- Pinch P. L., 1995, "Governing urban finance : changing budgetary strategies in British govern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Avebury.
- Roberts R. B. and Fishkind H., 1979, "The Role of Monetary Forces in Regional Economic Activity : An Econometric Simulation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9(1).
- Roberts S. M., 1995, "Small place, Big money: The Cayman Island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Economic Geography*, 71(3).
- Rose, A. Z. and Stevens, B. H. 1991, "Transboundary income and expenditure flows in 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1(3).
- Schulze P. M., 1987, "Once Again : Testing for Regional Homogene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1).
- Smith H. C., 1968, "Structural Changes in Mortgage Fund Flows : Institutional Aspects of Interregional Mortgage Investment," *Journal of Finance*, 23.
- Stohr W. B. and Ponighaus R., 1992, "Towards a Data-based Evaluation of the Japanese Technopolis Policy : The Effect of New Technological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o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26(7).
- Struyk R. J., 1990, "The Impact of a Housing-Linked Contract Savings Scheme on Households' Holdings of Financial Assets in Indi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

- Sussman O., 1993, "A theory of financial development," in A. Giovannini(ed.), *Finance and Development : Issues and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M. J. and Thrift N., 1983, "The role of finance in the evolution and functioning of industrial systems," in F. E. Haimlton and G. J. R. Linge, *Spatial Analysis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3, Regional Economics and Industrial Systems*, John Wiley and Sons.
- Temple, J., 1994, "The Debt/Tax Choice in the Financing of State and Local Capital Expendi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4(4).
- Thurston T. B., 1976, Regional Interaction and the Reserve Adjustment Lag within the Commercial Banking Sector," *The Journal of Finance*, 31(5).
- Tsiang S. C., 1956, "Liquidity Preference and Loanable Funds Theories, Multiplier and Velocity Analysis : A Synthesi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2(3)
- Turnbull G. K., 1988, "The Effect of Local Taxes and Public Services on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8(4).
- Warf B., 1994, "Vicious Circle : Financial Markets and Commercial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in S. Corbridge, R. Martin and N. Thrift, *Money, Power and Space*, Blackwell.
- Wheeler J. O., 1986, "Corporate spatial link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 the role of the metropolitan hierac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76.
- Wiedermer J. P., 1994, *Real Estate Investment*, Regents/Prentice Hall.
- Yinger J., 1982, "Capitalization and the Theory of Local Public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4.

金子榮作 外, 1990, 不動産の証券化, 東洋經濟新報社.

都市開發証券化研究會 編, 1991, 都市開發事業と証券化, ぎょうせい.

[부 록]

1. 부록 1 - 설문지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경제지리학 전공)에서, 『지역금융시장의 명성과 특성』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연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지역별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점을 파악하고, 지역 개발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인 결과만 이용되며,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개별기업의 사항을 한층더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방법에서 직접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방식은 모두 배제시키고 개략적인 비율만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은 동봉한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래의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내용에 대해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박원석
우) 151 - 742

(Tel : 880 - 6322, 880-6445 Fax : 877-7656)

9. 각 차입금 유형별로 '1995년말 현재' 부담하고 있는 **평균 실세금리(年)**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실세금리는 명목금리에 양건성 예금, 꺾기, 회사채리턴 등을 감안한 수준을 말합니다)

(1)정책자금 대출	(2)은 행 일반대출	(3)지방은행 일반대출	(4)제2금융권 일반대출	(5)해외차관 해외채권	(6)채권발행 (국 내)	(7)사 채
()	()	()	()	()	()	()
< 보 기 > ① 8%미만 ② 8%~9%미만 ③ 9%~10%미만 ④ 10%~11%미만 ⑤ 11%~12%미만 ⑥ 12%~13%미만 ⑦ 13%~14%미만 ⑧ 14%~15%미만 ⑨ 15%~16%미만 ⑩ 16%~17%미만 ⑪ 17%이상						

**III. 귀사의 1995년 1년 동안의 외부자금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10~18)에 응답해 주십시오.**

10. '1995년 1년 동안' 조달한 외부자금의 각 유형별 금액비율은 대략 어떠합니까?
외부자금조달 중액을 100%로 놓고, 유형별 금액비율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정책자금 대출	(2)은 행 일반대출	(3)지방은행 일반대출	(4)제2금융권 일반대출	(5)해외차관 해외증권	(6)채권발행 (국 내)	(7)주식발행 (국 내)	(8)사 채
()	()	()	()	()	()	()	()
<보 기 >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11. 위의 1995년의 각 자금조달 유형별 금액비율은 5년전(1991년)과 비교해 볼 때 대략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해당사항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991년 이후에 창업하신 경우에는 창업년도 이듬해와 비교해 주십시오.)

(1)정책자금 대출	(2)은 행 일반대출	(3)지방은행 일반대출	(4)제2금융권 일반대출	(5)해외차관 해외증권	(6)채권발행 (국 내)	(7)주식발행 (국 내)	(8)사 채
()	()	()	()	()	()	()	()
<보 기 > ① 5년전에 비해 금액비율이 증가하였다 ② 5년전에 비해 금액비율이 감소하였다 ③ 5년전과 변함없다.							

12. '1995년 1년 동안' 조달한 외부자금유형별 **평균 실세금리(年)**는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정책자금 대출	(2)은 행 일반대출	(3)지방은행 일반대출	(4)제2금융권 일반대출	(5)해외차관 해외증권	(6)채권발행 (국 내)	(7)주식발행 (국 내)	(8)사 채
()	()	()	()	()	()	-	()

<보 기> ① 8%미만 ② 8%~9%미만 ③ 9%~10%미만 ④ 10%~11%미만
 ⑤ 11%~12%미만 ⑥ 12%~13%미만 ⑦ 13%~14%미만 ⑧ 14%~15%미만
 ⑨ 15%~16%미만 ⑩ 16%~17%미만 ⑪ 17%이상

13. 자금유형별로 **조달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실제로 조달하지 않았던 유형도 포함
 해서, 귀사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①~⑧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정책자금 대출	(2)은 행 일반대출	(3)지방은행 일반대출	(4)제2금융권 대출	(5)해외차관 해외증권	(6)채권발행 (국 내)	(7)주식발행 (국 내)	(8)사 채
()	()	()	()	()	()	()	()

14. '1995년 1년 동안', 필요하였던 자금의 대략 몇 %를 **실제로 조달**하셨습니까?
 () %

15. '1995년 1년 동안' 조달한 정책자금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받았습니까?
정책자금 대출 중액을 100%로 놓고 각 금융기관 **유형별 금액비율**을 보기에서 선택
 해 주십시오. (¹⁵ 정책자금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16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 특수은행	(2) 시중은행	(3) 지방은행	(4) 제2금융권	(5) 기 타
()	()	()	()	()

<보 기>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16. '1995년 1년 동안'의 **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일반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응
 답 해 주십시오. (¹⁶ 은행일반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17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6-1) 은행(지방은행 제외) 일반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支店은 어느지역에 있습니까?
 ()시/도

16-2) 지방은행 일반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支店은 어느지역에 있습니까? ()시/도

16-3) 은행(지방은행 포함) 일반대출 중액을 100%로 놓고 대출조건별 금액비율을 보기
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 담보(지급보증)대출	(2) 신용대출	(3) 신용보증대출	(4) 기 타
()	()	()	()
<보 기>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16-4) '1995년 1년 동안', 귀사가 은행(지방은행 포함)에 대출을 신청하였던 금액의 대략
몇 %를 실제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까? ()%

16-5)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100%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위:) (2위:) (3위:)
(※ 100% 대출을 받은 경우는 17번으로 넘어가십시오.)

- ① 신용평가결과가 좋지 못해서 ② 은행에 거래자체를 틀 수 없어서
- ③ 담보가 없어서 ④ 양건성예금 등의 요구로 실제금리가 높아져서
- ⑤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⑥ 업종의 경기전망이 좋지 않아서
- ⑦ 기 타 (내용:)

16-6)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100%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 중요한 순서
대로 2가지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위:) (2위:)

- ① 사업계획 포기 / 축소 ② 제2금융권 대출 ③ 사채대출
- ④ 주식 / 회사채 발행 ⑤ 기 타 (내용:)

17. '1995년 1년 동안' 제2금융권 일반대출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2금융권
의 일반대출 중액을 100%로 놓고 금융기관별 금액비율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출받은 支店이 소재한 지역중 대표적인 1곳을 적어
주십시오. (※ 제2금융권 일반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18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 보험/단자/종금 리스/투신	(2) 상호신용금고 신협/새마을금고	(3) 기 타
1) 대출금액 비율	()	()	()
<보 기>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2) 대출지점 소재지	()시/도	()시/도	()시/도

18. '1995년 1년 동안' 私債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私債총액을 100%**로 놓고 **조달방법별 금액비율**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조달방법별로 대표적인 **私債대출주가 소재한 지역**을 한 곳 적어주십시오.
(* 사채가 없는 경우에는 19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 사채업자	(2) 거래 기업	(3) 친 지	(4) 기 타
1) 대출금액 비율	()	()	()	()
<보 기>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2) 대출주 소재지역	()시/도	()시/도	()시/도	()시/도

IV. 기 타 사 항 (19~20)

19. 원료(부품/반제품 포함)의 구매시장 및 제품 판매시장의 지역별 분포는 대략 어떠한가? '1995년 1년 동안'의 **중 구매/판매금액을 100%**로 놓고 **각 지역별 비율**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서 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해 외
1) 원료 구입	()	()	()	()	()	()	()	()
2) 제품 판매	()	()	()	()	()	()	()	()
<보 기> ① 없음 ② 0%초과~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미만 ⑥ 40%~50%미만 ⑦ 50%~60%미만 ⑧ 60%~70%미만 ⑨ 70%~80%미만 ⑩ 80%~90%미만 ⑪ 90%~100%미만 ⑫ 100%								

20. 자금조달시 귀사에서 당면하는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각각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고 계신 어려움의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어려움		보 통		전혀 안어려움				
1) 양건성 예금 / 꺾기 등의 요구가 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담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사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방법이나 자금조달금액에 제한이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금융기관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기타 (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부록 2 - 설문조사 상세결과표

- 부록 2에서 제시되는 표들은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 (1) 자금조달 유형별 자금조달 비율은 [표 4-9], [표 4-10]의 내용을 자금조달 유형별로 세분하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2) 자금조달 유형별 이자율은 [표 4-23], [표 4-24]의 내용을 역시 자금조달 유형별로 세분하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표의 내용 중 ‘평균의 t유의도(유의확률)’란 서울과 대구권 기업 간에 지표(이자율, 자금조달 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 따라서 t값이 낮을수록 그만큼 지역간 차이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자금조달 유형별 자금조달 비율

[표 A-1] 정책자금대출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15 (50.0)	3 (30.0)	9 (40.9)	15 (39.5)
0초과~10%미만	7 (23.3)	2 (20.0)	5 (22.7)	4 (10.5)
10~20%미만	5 (16.7)	2 (20.0)	2 (9.1)	2 (5.3)
20~30%미만	-	-	2 (9.1)	4 (10.5)
30~40%미만	1 (3.3)	1 (10.0)	4 (18.2)	4 (10.5)
40~50%미만	-	-	-	2 (5.3)
50~60%미만	-	1 (10.0)	-	1 (2.6)
60~70%미만	1 (3.3)	1 (10.0)	-	2 (5.3)
70~80%미만	1 (3.3)	-	-	2 (5.3)
80~90%미만	-	-	-	-
90~100%미만	-	-	-	-
100%	-	-	-	2 (5.3)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9.5	19.5	11.1	24.1
평균의 t 유의도	p = 0.174		p = 0.026	

[표 A-2] 정책자금대출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19 (63.6)	3 (27.3)	13 (61.9)	16 (43.2)
0초과~10%미만	6 (20.0)	2 (18.2)	3 (14.3)	5 (13.5)
10~20%미만	1 (3.3)	3 (27.3)	-	3 (8.1)
20~30%미만	1 (3.3)	-	2 (9.5)	3 (8.1)
30~40%미만	2 (6.7)	2 (18.2)	2 (9.5)	2 (5.4)
40~50%미만	-	1 (9.1)	-	3 (8.1)
50~60%미만	-	-	1 (4.8)	1 (2.7)
60~70%미만	-	-	-	1 (2.7)
70~80%미만	-	-	-	-
80~90%미만	1 (3.3)	-	-	1 (2.7)
90~100%미만	-	-	-	-
100%	-	-	-	2 (5.4)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7.5	15.5	9.0	20.4
평균의 t 유의도	p = 0.104		p = 0.059	

[표 A-3] 은행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1 (3.3)	1 (10.0)	-	6 (15.8)
0초과~10%미만	4 (13.3)	-	1 (4.5)	3 (7.9)
10~20%미만	2 (6.7)	2 (20.0)	1 (4.5)	7 (18.4)
20~30%미만	4 (13.3)	2 (20.0)	2 (9.1)	4 (10.5)
30~40%미만	4 (13.3)	-	-	1 (2.6)
40~50%미만	4 (13.3)	2 (20.0)	2 (9.1)	3 (7.9)
50~60%미만	7 (23.3)	1 (10.0)	3 (13.6)	4 (10.5)
60~70%미만	1 (3.3)	1 (10.0)	-	4 (10.5)
70~80%미만	-	1 (10.0)	4 (18.2)	1 (2.6)
80~90%미만	2 (6.7)	-	3 (13.6)	4 (10.5)
90~100%미만	1 (3.3)	-	3 (13.6)	-
100%	-	-	3 (13.6)	1 (2.6)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39.5	36.5	66.6	36.4
평균의 t 유의도	p = 0.743		p = 0.000	

[표 A-4] 은행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 (6.7)	1 (9.1)	-	9 (24.3)
0초과~10%미만	4 (13.3)	-	1 (4.8)	1 (2.7)
10~20%미만	6 (20.0)	2 (18.2)	1 (4.8)	6 (16.2)
20~30%미만	2 (6.7)	2 (18.2)	2 (9.5)	5 (13.5)
30~40%미만	6 (20.0)	1 (9.1)	2 (9.5)	1 (2.7)
40~50%미만	3 (10.0)	3 (27.3)	1 (4.8)	3 (8.1)
50~60%미만	2 (6.7)	1 (9.1)	1 (4.8)	4 (10.8)
60~70%미만	1 (3.3)	1 (9.1)	-	2 (5.4)
70~80%미만	1 (3.3)	-	3 (14.3)	-
80~90%미만	2 (6.7)	-	2 (9.5)	3 (8.1)
90~100%미만	-	-	4 (19.0)	1 (2.7)
100%	1 (3.3)	-	4 (19.0)	2 (5.4)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34.2	33.6	67.4	34.9
평균의 t 유의도	p = 0.953		p = 0.001	

[표 A-5] 지방은행 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2 (73.3)	4 (40.0)	19 (86.4)	16 (42.1)
0초과~10%미만	7 (23.3)	3 (30.0)	1 (4.5)	5 (13.2)
10~20%미만	1 (3.3)	1 (10.0)	-	4 (10.5)
20~30%미만	-	-	2 (9.1)	3 (7.9)
30~40%미만	-	2 (20.0)	-	1 (2.6)
40~50%미만	-	-	-	-
50~60%미만	-	-	-	4 (10.5)
60~70%미만	-	-	-	2 (5.3)
70~80%미만	-	-	-	1 (2.6)
80~90%미만	-	-	-	-
90~100%미만	-	-	-	-
100%	-	-	-	2 (5.3)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1.7	10.0	2.5	21.8
평균의 t 유의도	p = 0.093		p = 0.000	

[표 A-6] 지방은행 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3 (76.7)	5 (45.5)	18 (85.7)	17 (45.9)
0초과~10%미만	4 (13.3)	4 (36.4)	1 (4.8)	2 (5.4)
10~20%미만	1 (3.3)	1 (9.1)	1 (4.8)	2 (5.4)
20~30%미만	-	-	1 (4.8)	4 (10.8)
30~40%미만	1 (3.3)	1 (9.1)	-	1 (2.7)
40~50%미만	1 (3.3)	-	-	3 (8.1)
50~60%미만	-	-	-	4 (10.8)
60~70%미만	-	-	-	2 (5.4)
70~80%미만	-	-	-	-
80~90%미만	-	-	-	-
90~100%미만	-	-	-	-
100%	-	-	-	2 (5.4)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3.8	6.4	2.1	23.2
평균의 t 유의도	p = 0.495		p = 0.000	

[표 A-7]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4 (13.3)	-	13 (59.1)	20 (52.6)
0초과~10%미만	8 (26.7)	2 (20.0)	2 (9.1)	5 (13.2)
10~20%미만	6 (20.0)	2 (20.0)	1 (4.5)	6 (15.8)
20~30%미만	5 (16.7)	1 (10.0)	1 (4.5)	3 (7.9)
30~40%미만	3 (10.0)	5 (50.0)	2 (9.1)	2 (5.3)
40~50%미만	2 (6.7)	-	1 (4.5)	1 (2.6)
50~60%미만	1 (3.3)	-	2 (9.1)	-
60~70%미만	-	-	-	-
70~80%미만	-	-	-	1 (2.6)
80~90%미만	1 (3.3)	-	-	-
90~100%미만	-	-	-	-
100%	-	-	-	-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20.0	24.0	12.5	10.0
평균의 t 유의도	p = 0.517		p = 0.595	

[표 A-8]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4 (13.3)	-	12 (57.1)	21 (56.8)
0초과~10%미만	6 (20.0)	1 (9.1)	2 (9.5)	5 (13.5)
10~20%미만	4 (13.3)	2 (18.2)	1 (4.8)	3 (8.1)
20~30%미만	5 (16.7)	1 (9.1)	1 (4.8)	2 (5.4)
30~40%미만	5 (16.7)	4 (36.4)	1 (4.8)	3 (8.1)
40~50%미만	2 (6.7)	1 (9.1)	2 (9.5)	2 (5.4)
50~60%미만	1 (3.3)	2 (18.2)	1 (4.8)	-
60~70%미만	2 (6.7)	-	-	-
70~80%미만	-	-	1 (4.8)	1 (2.7)
80~90%미만	1 (3.3)	-	-	-
90~100%미만	-	-	-	-
100%	-	-	-	-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25.0	32.3	14.5	10.5
평균의 t 유의도	p = 0.328		p = 0.462	

[표 A-9] 채권발행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7 (23.3)	6 (60.0)	16 (72.7)	36 (94.7)
0초과~10%미만	4 (13.3)	-	3 (13.6)	-
10~20%미만	2 (6.7)	1 (10.0)	1 (4.5)	2 (5.3)
20~30%미만	7 (23.3)	2 (20.0)	1 (4.5)	-
30~40%미만	6 (20.0)	1 (10.0)	-	-
40~50%미만	2 (6.7)	-	1 (4.5)	-
50~60%미만	-	-	-	-
60~70%미만	1 (3.3)	-	-	-
70~80%미만	1 (3.3)	-	-	-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22.2	10.0	4.5	0.8
평균의 t 유의도	p = 0.081		p = 0.129	

[표 A-10] 채권발행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10 (33.3)	7 (23.3)	19 (90.5)	35 (94.6)
0초과~10%미만	4 (13.3)	-	1 (4.8)	-
10~20%미만	7 (23.3)	2 (18.2)	-	2 (5.4)
20~30%미만	4 (13.3)	1 (9.1)	-	-
30~40%미만	-	1 (9.1)	-	-
40~50%미만	3 (10.0)	-	1 (4.8)	-
50~60%미만	1 (3.3)	-	-	-
60~70%미만	1 (3.3)	-	-	-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16.0	8.1	2.4	0.8
평균의 t 유의도	p = 0.202		p = 0.379	

[표 A-11] 주식발행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2 (73.3)	10 (90.0)	21 (100)	37 (100)
0초과~10%미만	4 (13.3)	-	-	-
10~20%미만	2 (6.7)	-	-	-
20~30%미만	1 (3.3)	-	-	-
30~40%미만	-	1 (9.1)	-	-
40~50%미만	1 (3.3)	-	-	-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4.0	3.1	0	0
평균의 t 유의도	p = 0.816		-	

[표 A-12] 해외차관/증권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2 (73.3)	9 (90.0)	22 (100)	38 (100)
0초과~10%미만	6 (20.0)	-	-	-
10~20%미만	-	-	-	-
20~30%미만	1 (3.3)	1 (10.0)	-	-
30~40%미만	1 (3.3)	-	-	-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3.0	2.5	0	0
평균의 t 유의도	p = 0.861		-	

[표 A-13] 해외차관/증권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2 (73.3)	10 (90.0)	21 (100)	37 (100)
0초과~10%미만	6 (20.0)	-	-	-
10~20%미만	-	-	-	-
20~30%미만	1 (3.3)	1 (9.1)	-	-
30~40%미만	-	-	-	-
40~50%미만	1 (3.3)	-	-	-
계	30 (100)	10 (100)	21 (100)	37 (100)
평 균 (%)	3.3	2.3	0	0
평균의 t 유의도	p = 0.735		-	

[표 A-14] 사채대출의 비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29 (96.7)	10 (100)	17 (77.3)	33 (86.8)
0초과~10%미만	-	-	3 (13.6)	2 (5.3)
10~20%미만	-	-	1 (4.5)	1 (2.6)
20~30%미만	1 (3.3)	-	1 (4.5)	1 (2.6)
30~40%미만	-	-	-	1 (2.6)
40~50%미만	-	-	-	-
계	30 (100)	10 (100)	22 (100)	38 (100)
평 균 (%)	0.8	0	2.5	2.2
평균의 t 유의도	p = 0.570		p = 0.886	

[표 A-15] 사채대출의 비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없음	30 (100)	11 (100)	16 (76.2)	31 (83.8)
0초과~10%미만	-	-	2 (9.5)	2 (5.4)
10~20%미만	-	-	2 (9.5)	1 (2.7)
20~30%미만	-	-	1 (4.8)	1 (2.7)
30~40%미만	-	-	-	1 (2.7)
40~50%미만	-	-	-	-
50~60%미만	-	-	-	1 (2.7)
계	30 (100)	11 (100)	21 (100)	37 (100)
평 균 (%)	0	0	3.1	3.7
평균의 t 유의도	-		p = 0.801	

(2) 자금조달 유형별 이자율

[표 A-16] 정책자금대출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4 (26.7)	3 (42.9)	6 (46.2)	10 (46.2)
8%~9%미만	4 (26.7)	2 (28.6)	4 (30.8)	7 (33.3)
9%~10%미만	4 (26.7)	2 (28.6)	2 (15.4)	1 (4.8)
10%~11%미만	-	-	-	2 (9.5)
11%~12%미만	2 (13.3)	-	1 (7.7)	1 (4.8)
12%~13%미만	1 (6.7)	-	-	-
계	15 (100)	7 (100)	13 (100)	21 (100)
평균 이자율	9.17	8.36	8.42	8.40
평균의 t 유의도	p = 0.227		p = 0.965	

[표 A-17] 정책자금대출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3 (27.3)	3 (37.5)	4 (50.0)	11 (57.9)
8%~9%미만	5 (45.5)	3 (37.5)	2 (25.0)	4 (21.1)
9%~10%미만	1 (9.1)	1 (12.5)	1 (12.5)	1 (5.3)
10%~11%미만	1 (9.1)	-	-	2 (10.5)
11%~12%미만	-	-	1 (12.5)	1 (5.3)
12%~13%미만	1 (9.1)	1 (12.5)	-	-
계	11 (100)	8 (100)	8 (100)	19 (100)
평균 이자율	8.86	8.75	8.50	8.34
평균의 t 유의도	p = 0.878		p = 0.776	

[표 A-18] 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9%~10%미만	3 (10.7)	-	-	-
10%~11%미만	1 (3.6)	-	1 (5.6)	5 (17.9)
11%~12%미만	7 (25.0)	3 (33.3)	1 (5.6)	8 (28.6)
12%~13%미만	11 (39.3)	3 (33.3)	10 (55.6)	4 (14.3)
13%~14%미만	6 (21.4)	2 (22.2)	4 (22.2)	6 (21.4)
14%~15%미만	-	1 (11.1)	2 (11.1)	4 (14.3)
15%~16%미만	-	-	-	1 (3.6)
계	28 (100)	9 (100)	18 (100)	28 (100)
평균 이자율	12.07	12.61	12.78	12.46
평균의 t 유의도	p = 0.236		p = 0.388	

[표 A-19] 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9%~10%미만	1 (3.8)	-	-	-
10%~11%미만	1 (3.8)	-	1 (5.3)	3 (12.0)
11%~12%미만	6 (23.1)	5 (50.0)	3 (15.8)	8 (32.0)
12%~13%미만	11 (42.3)	1 (10.0)	6 (31.6)	5 (20.0)
13%~14%미만	5 (19.2)	3 (30.0)	6 (31.6)	5 (20.0)
14%~15%미만	2 (7.7)	1 (10.0)	2 (10.5)	3 (12.0)
15%~16%미만	-	-	-	1 (4.0)
16%~17%미만	-	-	1 (5.3)	-
계	26 (100)	10 (100)	19 (100)	25 (100)
평균 이자율	12.42	12.50	12.97	12.50
평균의 t 유의도	p = 0.857		p = 0.262	

[표 A-20] 지방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9%~10%미만	-	-	-	-
10%~11%미만	-	-	-	-
11%~12%미만	1 (12.5)	1 (16.7)	-	6 (28.6)
12%~13%미만	4 (50.0)	2 (33.3)	2 (100)	9 (42.9)
13%~14%미만	3 (37.5)	3 (50.0)	-	2 (9.5)
14%~15%미만	-	-	-	4 (19.0)
계	8 (100)	6 (100)	2 (100)	21 (100)
평균 이자율	12.75	12.83	12.50	12.69
평균의 t 유의도	p = 0.841		p = 0.809	

[표 A-21] 지방은행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9%~10%미만	-	1 (16.7)	-	-
10%~11%미만	-	-	-	-
11%~12%미만	1 (14.3)	1 (16.7)	-	5 (26.3)
12%~13%미만	3 (42.9)	-	2 (100)	8 (42.1)
13%~14%미만	3 (42.9)	4 (66.7)	-	2 (10.5)
14%~15%미만	-	-	-	4 (21.1)
계	7 (100)	6 (100)	2 (100)	19 (100)
평균 이자율	12.79	12.50	12.50	12.76
평균의 t 유의도	p = 0.691		p = 0.744	

[표 A-22]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9%미만	1 (4.0)	-	-	-
9%~10%미만	-	-	-	-
10%~11%미만	1 (4.0)	2 (20.0)	-	-
11%~12%미만	3 (12.0)	1 (10.0)	2 (25.0)	2 (15.4)
12%~13%미만	10 (40.0)	1 (10.0)	1 (12.5)	1 (7.7)
13%~14%미만	4 (16.0)	4 (40.0)	-	3 (23.1)
14%~15%미만	6 (24.0)	1 (10.0)	4 (50.0)	5 (38.5)
15%~16%미만	-	-	-	-
16%~17%미만	-	1 (10.0)	-	1 (7.7)
17% 이상	-	-	1 (12.5)	1 (7.7)
계	25 (100)	10 (100)	8 (100)	13 (100)
평균 이자율	12.78	13.00	13.88	14.04
평균의 t 유의도	p = 0.707		p = 0.844	

[표 A-23] 제2금융권 일반대출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1 (4.2)	-	-	-
8%~9%미만	-	-	-	-
9%~10%미만	-	-	-	-
10%~11%미만	1 (4.2)	3 (27.3)	-	-
11%~12%미만	1 (4.2)	-	1 (14.3)	2 (16.7)
12%~13%미만	9 (37.5)	2 (18.2)	-	-
13%~14%미만	4 (16.7)	1 (9.1)	1 (14.3)	2 (16.7)
14%~15%미만	6 (25.0)	4 (36.4)	3 (42.9)	6 (50.0)
15%~16%미만	2 (8.3)	-	1 (14.3)	-
16%~17%미만	-	1 (9.1)	1 (14.3)	1 (8.3)
17% 이상	-	-	-	1 (8.3)
계	24 (100)	11 (100)	7 (100)	12 (100)
평균 이자율	13.08	13.14	14.36	14.25
평균의 t 유의도	p = 0.936		p = 0.894	

[표 A-24] 채권발행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1 (4.5)	-	-	-
8%~9%미만	-	-	-	-
9%~10%미만	2 (9.1)	-	-	-
10%~11%미만	-	-	-	-
11%~12%미만	6 (27.3)	-	2 (40.0)	-
12%~13%미만	8 (36.4)	4 (100)	2 (40.0)	1 (50.0)
13%~14%미만	5 (22.7)	-	1 (20.0)	1 (50.0)
14%~15%미만	-	-	-	-
계	22 (100)	4 (100)	5 (100)	2 (100)
평균 이자율	11.95	12.50	12.30	13.00
평균의 t 유의도	p = 0.104		p = 0.350	

[표 A-25] 채권발행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1 (5.3)	-	-	-
8%~9%미만	-	-	-	-
9%~10%미만	2 (10.5)	-	-	-
10%~11%미만	-	-	-	-
11%~12%미만	4 (21.1)	-	-	1 (50.0)
12%~13%미만	7 (36.8)	4 (100)	1 (100)	-
13%~14%미만	3 (15.8)	-	-	1 (50.0)
14%~15%미만	2 (10.5)	-	-	-
계	19 (100)	4 (100)	1 (100)	2 (100)
평균 이자율	12.08	12.50	12.50	12.50
평균의 t 유의도	p = 0.306		-	

[표 A-26] 해외차관/증권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8 (100)	1 (100)	-	-
계	8 (100)	1 (100)	0	0
평균 이자율	7.50	7.50	-	-
평균의 t 유의도	-		-	

[표 A-27] 해외차관/증권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8%미만	7 (100)	1 (100)	-	-
계	7 (100)	1 (100)	0	0
평균 이자율	7.50	7.50	-	-
평균의 t 유의도	-		-	

[표 A-28] 사채대출의 이자율 (1995년말 차입금)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12%~13%미만	1 (100)	-	-	-
13%~14%미만	-	-	-	-
14%~15%미만	-	-	-	1 (33.3)
15%~16%미만	-	-	-	-
16%~17%미만	-	-	-	1 (33.3)
17% 이상	-	-	3 (100)	1 (33.3)
계	1 (100)	0	3 (100)	3 (100)
평균 이자율	12.50	-	17.50	16.17
평균의 t유의도			p = 0.270	

[표 A-29] 사채대출의 이자율 (1995년 자금조달) [단위 : 개(%)]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서 울	대 구	서 울	대 구
14%~15%미만	-	-	-	1 (25.0)
15%~16%미만	-	-	-	-
16%~17%미만	-	-	-	1 (25.0)
17% 이상	-	-	3 (100)	2 (50.0)
계	0	0	3 (100)	4 (100)
평균 이자율	-	-	17.50	16.50
평균의 t 유의도	-		p = 0.286	

ABSTRACT

Regional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 An Examination of the Existence of Regional Financial Markets -

Park, Won-Seok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xamine the presenc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ose between Seoul and the other regions, and second, to elucidate the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financial markets segmented from the national financial market by way of analyzing factors and channels to generate them. Seoul and the Taegu Area, which includes the City of Taegu and its surrounding Kyongbuk Province, have been selected as sample areas representing financial core and periphery, respectively.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has been made, an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has been built. Some operational definitions have been made : ①the concept of 『regional differences of financial market』 has been adopted as being broadly applied to the cases that regional differences occur in the indicators which represent financial market equilibrium, ②the concept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has been defined as being applied to the cases that the mechanism of determining financial market equilibrium exists endogenously in the subnational boundary. As the criteria to test the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alternative models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have been reviewed. These are classified into ①perfect integration type, ②interest spread type, ③credit rationing type, ④interest spread-credit rationing-jointed type. From these, ①

interest spread, ②credit rationing, ③degree of funds concentration have been adopted as the criteria to elucidate the presenc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of financial market in Korea, and again the first two have been adopted as the criteria to elucidate the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t-test, as well a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interview data analysis have been used.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diverse sources including secondary statistical data, internal aggregated data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rst-hand data from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s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r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presenc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first of all, an investigation of 'loaned money ratio by region' data and so on, shows that Seoul lies in the financial core, and the other regions lie in the financial peripheries in Korea. For more details, examining the presenc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using the criterion of 'interest spread', we do not find any coherent differences between regions. By the criterion of 'degree or funds concentration', however, we find the patterns that more funds are concentrated in Seoul relative to its producing capacity, and by the criterion of 'credit rationing', that debtors of the other regions are experiencing more credit rationing than those of Seoul. Accordingly, we can identify that the regional differences of financial market occur between Seoul as a financial core and the other regions as financial peripheries.

Second, regarding the presenc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market between Seoul as a financial core and the Taegu Area as a financial periphery, first of all, an examination of the spatial boundaries of financing by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sures that Seoul and the Taegu Area are appropriate regional divisions as case regions in which financial transactions are made. Thus, by the criterion of 'interest spread', coherent differences between firms of each region do not exist. By

the criterion of 'credit rationing', however, we find tha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of the Taegu Area are suffering more credit rationing than those of Seoul. Moreover, by analyzing indicators about channels of credit rationing, we find three regional factors, ①difference in the limitation of loanable fund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regions, ②difference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linkages by regions, ③asymmetric information, which operate as the mechanisms that generate regional differences of credit rationing. From summing up the above results, we can identify the existence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segmented from the national financial marke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 sector in the Taegu Area which has credit rationing type in bank loan market.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that perfectly isolated regional financial market doesn't exist, because of dominance of nationwid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and that indicators which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5% significance level are rare, and so on,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in the Taegu Area is just partially segmented from the national financial market.

Key words : Regional differences of Financial Market, Regional Financial market, Interest Spread, Credit Rationing, Loan Market, Asymmetric Information, Industrial Structure, Regional Linkage.

1997年 2月 日

地 理 學 論 叢 別號23

發行人：許 宇 亘

編輯人：柳 根 培

印刷所：伸壹文化社